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THE HYUNDAE BULKYO | 불기 2548년(서기 2004년) 1월 1일 목요일 (주간) | 제 454 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싸우는 사람 없는 새해 되었으면…"

2004 갑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엔 인류를 위협하는 테러와 질병이 사라지고 '나' 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새해를 맞는 서울 미타 유치원의 새싹불자들이 '싸우는 사람없는 즐거운 세상'을 염원하며 새아침의 햇살을 받고 있다. 사진= 박재완 기자

"이념의 갈등 극복하고 대화·화합의 해 되길"

법장 총무원장 신년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법장 스님이 2004년 갑신년을 맞아 양보와 화합을 강조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법장 스님은 지난해 말 발표한 신년사에서 선가(禪家)에서 말하는 세계일화(世界一花, 온 인류가 한 몸으로 연결된 공동운명체라는 뜻)를 예로 들며 "국가와 민족, 이념의 갈등을 극복하고 인류 모두가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우리 사회가 상호 이해와 양보, 대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법장 스님은 또 "부패와 빈부격차,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는 전환점을 맞기 위해서는 자기만 살겠다는 집착과 욕망을 버리고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되새겨 실천해야 한다"며 "상생과 희망의 역사를 밝혀 나가는 길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2004 甲申年,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신년특집 48면 발행

■ 특별법석
·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12~13면

■ 특집1 - 명사와 함께 여는 새아침
· 김종서 원로 교육학자 -6면

■ 특집2 - 바꾸자 그리고 희망을 쏘자
·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 27~29면
· 한국불교 희망찾기 - 31~32면
· 불자 스타들의 희망 쏘기 - 33면

■ 특집3 - 종교패러다임의 변화와 불교
· 프롤로그 - 35면
· 불교, 종교문화의 중심인가 - 36면
· 미래사회에 대한 불교적 비전 - 37면
· 미래사회 불교가 직면할 도전 - 38면

■ 특집4 - 조계종 개혁 10년을 말한다
· 좌담(청화스님, 정병조, 성태용 교수) -42~43면

■ 기획
· 2004년 불교계 핫 이슈들 - 3면
· 문수사와 신곡리의 새해 맞이 - 8면
· 새해는 원숭이의 해 - 26면
· 인터넷 세상의 새아침 제안 - 47면

■ 제9회 신행수기 당선작 발표 - 16~17면

불교에 '내일의 행복' 있다

본지, 독자설문조사 수행전통·사찰문화 계승돼야

"사회적 역할 약해… 변화 필요" 94.8%

'미래사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변화다.'

한국불교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현대불교신문이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불교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으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특집 27 · 28 · 29면

이같은 결과는 본지 구독자 711명의 응답을 종합한 것이며, 이 가운데에는 스님(200명)과 불교신도(327명) 외에 비불교인(타종교인 및 무종교인) 182명(25.6%)도 포함돼 있다. 설문은 지난해 12월 실시했다.

설문에 따르면, 미래사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불교를 지목했고, 개신교와 천주교는 5~6%대에 불과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리가 미래사회에 걸맞는 사상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7.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불교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94.8%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개혁 수준의 변화'를 주문한 비율도 36.4%에 달했다.

변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종교로서의 기능 부족과 사회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59.5%나 됐다. 불교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바꾼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인 셈이다.

응답자들의 이런 주문은 계율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대흐름에 따라 계율도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64.7%나 됐고, 이에 따라 스님에게 육식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60%에 달했다.

한국불교가 발전 계승시켜야 할 항목으로는 사찰 문화나 교리, 계율 정신 등과 비교해 수행전통(38.5%)이 압도적이었으며,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스님의 자질(19.0%)이 1순위였다.

'불교를 대표하는 이미지'로는 산사(41.5%)와 수행하는 스님(35.4%)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사찰 방문을 계획하고 있거나 방문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느 종교인이 도덕·윤리의식이 가장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불교'(34.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는 천주교(41.3%)로 나타났으며, 불교는 36.3%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 본부' 출범

천태종, 통일·환경 등 5개 위원회 구성

천태종이 환경과 생명, 인권과 평화, 남북 통일, 국제협력 등의 활동을 전담할 '나누며하나되기 운동본부'를 창립했다.

천태종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관문사에서 창립식을 개최하고, 총재에 운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을 추대했다. 사무총장에는 무원 스님(천태종 사회부장)이 선임 됐다.

통일, 환경, 노동인권, 국제협력, 기획 등 5개 위원회로 구성된 나누며하나되기 운동본부는 앞으로 각 분야에 걸쳐 현안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간다.

총재 운덕 스님은 "불교는 안으로는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밖으로는 회향의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일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인권을 보장하는 일,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는 일, 절대 빈곤에서 허덕이는 인류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일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이사장 선출 6일로 연기

동국학원, 영배 스님 대행

학교법인 동국학원 새 이사장 선출이 1월 6일 이후로 연기됐다.

동국학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제195회 이사회를 열어 정대 스님의 입적으로 공석이 된 신임 이사장 선출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사들 간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해 무산됐다. 동국학원은 이에 따라 1월 6~16일 사이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배 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새 이사장이 뽑힐 때까지 이사장 업무를 보게 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새해에는 큰 뜻 이루소서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할'



그림·조태호

- 법전스님 법문에서(법문은 12,13면에서 만나세요) -

한국불교총본산성역화불사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佛紀 2548년
謹賀新年
함께하는 종단·신뢰받는 종단
우리 종단은 새해 갑신년에도 모든 종도가 참여한 가운데 수행승풍을 진작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받으며 효율적인 종단 운영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도제양성의 기틀을 새롭게 하고 역사문화기념관을 완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승가상을 구현하고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실현하겠습니다.
大韓佛教曹溪宗
총무원장 법장 · 중앙종회의장 지하 · 호계원장 월서

신년사설

깨어 있는 세상되길…

불기 2548년 새해에 독자님들께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올 갑신년은 현대불교신문이 10주년을 맞는 해여서 저희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1994년 10월15일 '하나 더 있어 좋은 신문'으로 창간한지 10년.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신문' '꼭 만나고 싶은 친구 같은 신문'으로 자란 것은 독자 여러분의 전폭적 후원과 격려에 힘입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간 현대불교신문, 일간 '인터넷 붓다뉴스', 불교 정보센터 '부다피아', 출판 및 책방 '여시아문', 인터넷 쇼핑몰 '마하몰' 등으로 부처님 세계를 넓혀 온 저희들의 성장에 자부심 또한 감추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테러와 전쟁 등으로 점철된 지난해 지구촌의 숱한 악몽과, 앞길이 불투명해 보이는 국내적 여건들이 올해도 우리들에게 만만치 않은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10주년을 맞는 다짐을 새롭게 하려 합니다.

창간 때의 초발심을 다시 가다듬어 부처님의 참다운 지혜를 이 세상 최상위의 가치로 설정, 평화로운 세계, 자연을 아끼는 삶,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저에 있는 '마음의 깨침'을 위한 지면을 꾸려가려 합니다.

인류의 영원한 이상은 평화 입니다. 전쟁의 어리석음이 아직 인류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화를 향한 간단없는 전진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

환경파괴와 자원의 남용으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인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한 위기 극복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동서로, 남북으로, 각종 이념으로 갈라져 반목하고 있는 이 땅의 깊은 상처에도 부처님 가르침은 좋은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저에 마음이 있으며 그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로 귀결 됩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일체 모든 것의 근원을 마음에서 찾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을 움직이는 근원인 마음을 도야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집단무의식을 교정하고, 상생의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에 전문 수행지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10주년의 해에 우리들은 '깨어 있는 마음의 신문'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행히 근년 들어 시민사회 의식의 놀랄만한 깨어남과 더불어 불교계의 사회문제에 대한 눈뜸과 참여가 활발합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지적과 대안 제시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희망이 있음을 알며 그 희망을 지면에 불러들이려 합니다.

저널리즘의 입장에서 유마거사의 비판정신을 살려 불교교단의 잘못된 관행과 낡은 구습, 비리를 지적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 환경, 희망, 마음의 깨우침을 위한 신문 지면을 이제 독자님들과 함께 꾸리겠다는 마음다짐으로 독자 참여율을 더욱 높이려 합니다.

불자는 물론 불자 아닌 사람들도 친구처럼 찾게 되는 신문을 만들겠다는 새삼스러운 다짐을 독자님들께 약속드리며 독자님들의 새해 꿈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의 10년 발전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독자님들의 계속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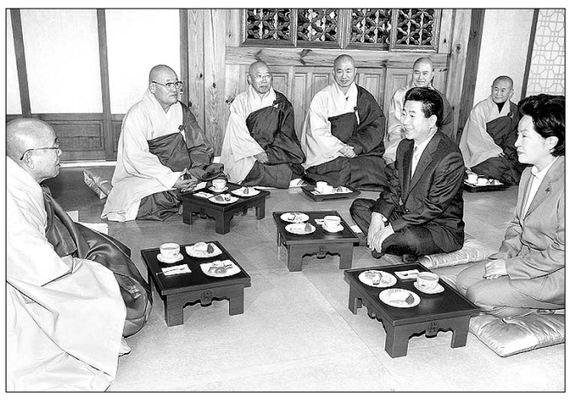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정부 "북한산 기존노선 공사 재개"

고건총리 회견 수행·자연환경 파괴 최소화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2일 해인사를 전격 방문,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에게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재개'의 뜻을 전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사진기자단>

법전 스님, 노 대통령에 "국정 협조"

시민·사회·환경단체들 강력한 반발

천성산 관통도로 백지화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불교계 첫번째 대선공약인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마저 휴지조각이 됐다.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해 당초 노선대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립공원 환경피해 최소화 노력과 법과 제도 개선시 시민환경단체 및 종교단체와 협의, 서울북부지역의 대기오염·사찰 수행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 환경영향평가 시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 중시 등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22일 합천 해인사를 방문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에게 "공론조사 이행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법전 스님은 "대통령이 원활하게 국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의 녹색허파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에 8차선 고속도로를 허용한 노무현 대통령과 조계종의 야합에 의해 죽음의 길을 떠나게 됐다"며 정부와 조계종을 강력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 조계종에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정부의 결정 단계에서 철저히 소외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와 조계종이 일종의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관통저지운동에서 하나의 축으로 활동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윤주옥 사무국장은 "마무리 과정에서도 총무원과 자리 마련을 3번 이상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조계종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계 9개 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노 대통령의 해인사 방문과 관련 "도대체 누가 청와대와 협의해 방문이 이루어졌는지 그 전말을 밝혀야 한다"며 "문화재 유지·보수비를 타내기 위해 거금 1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뿌린 파렴치한 사건과 1천억 원 규모의 동판 대장경 제작 사업과 무관치 않다는 의혹에 대해 해인사 종무소와 총무원은 해명해야 하고, 종정예하와 종도 앞에 깊이 참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명우·남동우 기자

불교계 뒤늦은 대응…이미지 손상 자초

북한산 뭘 남겼나

북한산 관통도로는 1996년 3월 2일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 후인 2001년에야 불교계가 본격적인 저지 운동에 나섰다. 즉 늑장 대응이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교계는 이후 환경운동 입지뿐만 아니라 대사회 이미지에도 큰 손실을 입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이후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조계종과 함께 하겠는가"라며 "조계종은 뼈아픈 반성과 함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고건 총리는 12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공원 환경피해와 사찰 수행환경 피해 최소화 등을 약속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조계종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산 관통도로 일지

1996. 3. 2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
2001. 10. 24 관통도로 건설 저지를 위한 불교대책위 출범식 및 제1차 결의대회
2002. 2. 18 LG건설 회룡사 비구니 스님 폭행
2002. 3. 5 조계종, '환경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결의대회' 개최
2002. 7. 18 북한산국립공원 살리기 3보 1배
2002. 7. 25 철마선원 폭력배 난입
2002. 8. 14 조계종 공대위·시공사 북한산 터널 노선 재검토 합의
2002. 12. 4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북한산 관통도로 전면 백지화 공약 발표
2003. 4. 14 조계종·정부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 합의
2003. 6. 5 노선재검토위 활동 종료. 의정부 우회 4명, 북한산 우회 2명, 북한산 관통 5명으로 '우회' 의견 제시
2003. 12. 22 노 대통령 해인사 방문
2003. 12. 24 정부 기존 노선 강행 발표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무산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 국회 부결

1급청인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이 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무산됐다.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은 불교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이날 개정법률안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소방방재청 신설안으로, 방재청장의 정무직 임용 논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부결됐다. 방재청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소방공무원이 방재청장을 맡는 수정 동의안 모두 의결정족수인 출석과 반수 찬성에 미달됐다.

이처럼 개정법률안 부결로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논의는 '일단 멈춤' 상태에 머물러 있어 개정법률안이 이번 회기 내에 재 상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고흥길 의원(한나라당) 측은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 문제는 이의가 없었던 만큼 행정자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1월 9일까지인 이번 회기 내에 재 상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회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정은 한두 부처가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문제만으로 개정법률안을 재 상정하기 어려워 다음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재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법에는 차관급인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 소방방재청 신설, 기획예산처 소관의 행정개혁업무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각각 행자부와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함께 포함돼 있다.

오유진 기자

'현대' 만평 심 민 섭



佛紀2548년 謹賀新年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 정 영산 일공
부종정 유념 법신
원로원장 송 산
원로위원 선명 효계 벽봉

중앙종의회의장 성관
중앙종의회부의장 천호 인관
중앙비구니회회장 대월
중앙비구니회부회장 선덕
중앙종의회의원 법원 선덕 성욱 체의 불선 보선 체명 은혜 대천 혜민 진운

총무원장 법륜
총무부원장 선진
포교원장 체관
문화원장 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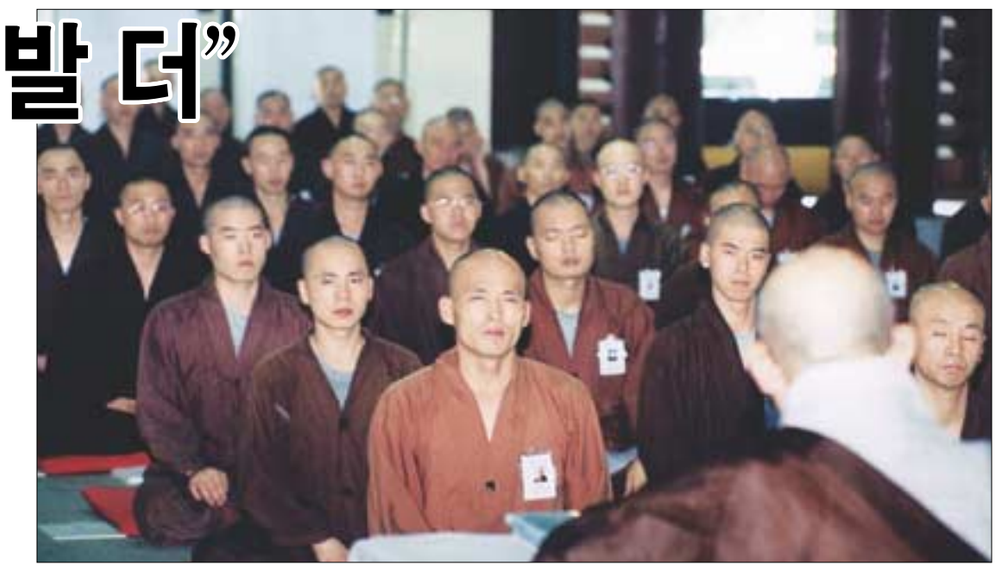
재무부장 대월
규정부장 석경
사업부장 체도
사회부장 풍원
사업국장 성해
사회국장 홍재

전국교구종무원
인천종무원장 법원
충남종무원장 체의
전남종무원장 진운
부산종무원장 대천
경남종무원장 은혜
경북종무원장 불선
대구종무원장 송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2동 704-23호 TEL 02) 853-0531 / FAX 02) 853-0533

“안살림 다지며 세계화 한 발 더”

2004년 불교계 핫이슈들



◇ 2004년은 불교계가 내실 다지기와 세계화라는 두 화두를 함께 풀어나가는 한 해로 전망된다. 사진은 2003년 행자교육원 교육장면.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해가 될 것 같다. 향후 100년의 불교계를 전망할만한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그 동안 내부적으로 진행해 오던 수행체계에 대한 논의가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승가교육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태고종과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들도 종단 미래의 비전을 세우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세계가 한국불교를 주목하는 해이기도 하다. 세계불교청년포럼, 세계여성불자대회, 한국 비구니 스님을 주제로 한 첫 국제학술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가 잇달아 개최돼 세계불교계에서 한층 높아진 한국불교의 위상을 엿보게 한다. 올 한 해 불교계를 달굴 이슈를 중심으로 2004년 불교계를 미리 내다봤다.

▶ 조계종 수행체계 확립 윤곽 드러날 듯

재작년 말 ‘수행체계 연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시작된 조계종 수행체계 정립이 올해는 대강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연구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간화선뿐 아니라 현재 행해지고 있는 각종 수행법에 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내부적으로 진행해 왔다. 올해는 그 동안의 내부 논의 과정을 정리해 보고서 등의 형태로 공개하고,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과 결론을 도출해 가는 해가 될 전망이다.

수행체계 확립은 간화선과 다른 수행법의 관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하는 문제와 수행 방법론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조계종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메카톤급 핵 폭풍이 일 가능성이 높다. 조계종은 간화선만을 정통 수행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빠사나 등 다른 수행법에 대한 관심 등과 맞물려 수행 방법 자체에 대한 비판이 최근 몇 년 새 이어지고 있다.

▶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마무리

올해 6~7월이면 모든 구조가 갖춰진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위용이 드러난다. 당초 지난해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기가 늦춰지면서 완공이 올해로 미뤄졌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1월 준공되는 총무원 청사와 불교중앙박물관 등이 들어서는 본관과 전통문화예술 공간, 국제회의장 등이 들어서는 별관으로 구성된다.

총무원 업무공간이 들어서는 본관은 현재 거의 완공돼 1월 중순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총무원이 1월에 새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의 총무원 건물은 곧바로 헐리면서 이 자리에 전통문화예술공간과 국제회의장 건립 공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별관 공사가 끝나는 6~7월이면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이 최종 마무리된다.

연면적 5천평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는 불교중앙박물관, 불교예술공연장, 불교문화정보센터,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 불교음악실 등이 들어서면서 불교문화종합공간이자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한데 묶는 ‘한국불교 총본산’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또한 조계사 앞 우정총국과 연계한 공원화 작업도 진행되면서 인사동과 우정총국을 잇는 문화벨트를 형성해 시민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 조계종, 승가교육체계 개선 추진

조계종에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스님 되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승가교육체계 개선에 대해 ‘혁명’ 수준의 의지를 거듭 천명했고, 현 체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있어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메스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승가교육체계 개선은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조계종단과 사회과 요구하는 승가의 리더십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그 중심은 기초 · 기본교육에 있다. 법장 스님이 밝힌 방향은, 예비스님(사미 · 사미니)이 되는 기초교육기간을 현재의 6개월~1년에서 4년으로 대폭 늘리고, 다시 전문대학원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2년 교육을 마쳐야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칭 ‘승가교육제도개선 추진위원회’가 꾸려져야 내 · 외적인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결론 볼 문제가 아닌 만큼 올해 안에 끝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조계종 중앙신도회 · 전국신도회 통합

올 4월 초면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로 양분돼 있던 조계종의 양대 신도단체가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 통합 대회를 갖는다. 지난해 4월 두 단체가 통합 선언을 한 이후 약 1년 만에 실질적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다. 1955년 전국신도회 창립으로 시작된 조계종 신도회는 94년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로 갈라져 10년 동안 딴 살림을 살아왔다.

통합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중앙신도회 명칭 개정을 위한 종헌 · 종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해 11월 중앙종회에서 유보돼 한때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두 단체는 예정대로 통합 대회를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월 중순 공청회를 거쳐 3월 중순께 있을 중앙종회에 ‘종헌 · 종법 개정안’이 상정,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 4월초 통합 대회 및 지도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세계불교청년포럼 9일 개최

세계불교청년우의회(WFBY: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한국본부(회장 선업)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나눔과 하나됨’을 주제로 제3회 세계불교청년포럼을 개최한다.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 총 19개국에서 37개의 단체가 참가하는 이번 포럼에는 칭야오(대만) 티타다모(싱가포르) 상가세나(인도) 스님 등 세계 각국의 스님들이 강연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과 지광 스님(능인선원 원장)이 강연자로 참석해 한국불교의 수행법 등을 강연하게 된다.

이번 포럼에는 이밖에도 WFBY 산하단체인 ‘클럽 25’의 공식 출범식도 열릴 예정이다. 25세 이하 청(소)년 불자들의 모임인 ‘클럽 25’는 포럼 기간동안 세계대표를 선출한 뒤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한다.

전 세계 청소년 불자들의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대회는 한국불교의 청소년포교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6월 27일 세계여성불자대회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 스님)는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중앙승가대에서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여성불자대회에는 27개국 500명이 모여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 현재와 과거’라는 주제로 여성불자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성불자들의 교육 및 수행환경의 개선을 논의하게 된다.

대회준비사무국은 현재 대회를 위한 장소 섭외 등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오는 3월 15일까지 대회의 논문마감 후 5월까지 논문번역 작업 등 세부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6월경에는 세계여성불자연합회(Sakyadita) 회장 렉셔 소모 스님이 내한, 한국 준비사무국과 함께 대회 준비상황을 총 점검한다.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전국비구니회는 한국 비구니 승단의 전통과 규모를 바탕으로 전 세계 불자여성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세계여성불자연합회의 한국지부 설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삶과 수행전통을 집중 조명하는 최초의 국제학술대회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올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열린다.

또 6월에는 제8회 세계여성불자대회(Sakyadita)가 한국에서 개최돼, 2004년은 한국 비구니 스님에 대한 세계 불교(학)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양성평등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매 안거 때마다 800여 명의 비구니 스님이 안거에 들 정도로 한국 비구니 승단이 수행전통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비구니 승단의 역사와 조직, 수행전통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대만 · 일본 등 동아시아 비구니 스님에 대한 연구를 중심 주제로 3~4개의 그룹별 주제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또 한국 불교를 전공하는 국내 학자 10여명과 미국 영국 호주 덴마크 등의 해외학자 12명 등 20~2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태고종, 내부개혁 정체성 확립

태고종은 올 해를 종단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해로 설정하고, 불교전통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해 동방대학원대학 개교, 녹색장묘문화 사업 등을 전개한다. 또한 불교용품 · 달력 보급 등 재정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권 · 환경위원회 구성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2종단으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내부적인 개혁 작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종헌 · 종법 개정, 법계에 따른 의제 개정, 법랍에 따른 승가의 위계 확립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조계종과의 분규사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이는 태고종의 정체성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 천태사상 선양 · 영통사지원 계속

지난해 활발한 대내외 활동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천태종은 중창조인 상월 원각 대조사의 열반 30주년을 맞아 천태사상 선양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상월 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도 결성해 주요 사업과 활동방향의 밑그림도 내놓는다.

총본산 구인사의 성역화 사업을 비롯한 각 지역 포교도량 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천태 지의 스님과 대각국사 의천 스님 등 역대 조사를 모시는 한 · 중 조사전을 건립하고, 판도암 · 광명당 등 현재 진행중인 불사를 마무리해 구인사 대중과 신도들의 신행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서울 동북부지역 포교도량인 삼룡사와 인천 황룡사 등도 올해 낙성을 목표로 불사를 진행한다. 한 · 중 · 일 천태종간 교류를 비롯해 몽골불교 지원, 개성 영통사 불사 지원 등 종단의 외연을 넓히는 사업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 진각종, 교학체계 확립 · 총본산 성역화

진각종은 종단의 교학 · 교법체계 확립과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펼쳐 나간다. 특히 효암 통리원장 취임 이후 진행해온 교학 · 교법체계에 대한 연구와 고증작업이 올 해에도 지속된다. 이 가운데에는 총본산과 교육도량의 불상 봉안 문제와 출가승 제도 부활 등 종헌 · 종법을 개정해야 하는 굵직한 사안이 포함돼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에 위치한 산내연수원의 연수시설 확충과 총본산 청사진 제시 등도 이뤄진다. 현재 위덕대 건축공학과가 주관해 설계 작업을 벌이고 있어 올 해 중에는 총본산 성역화 사업이 표면화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진각종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탑묘원과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사업 등을 시행해 새로운 재정 수입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진각종은 이 사업을 통해 종단을 대외에 알리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명우 · 권형진 · 박봉영 · 오유진 · 한상희 기자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전화 : 사무처(031)470-3100 팩스(031)470-3116
홈페이지 :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4구 산 5-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 064-727-3100 FAX :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 055-345-9900 FAX : 05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4-1321 FAX : 055)746-7825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FAX : 042)526-089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99
TEL : 054-275-3163 FAX : 054)274-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259-5599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 033-651-3003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 555-8871 FAX : 054)556-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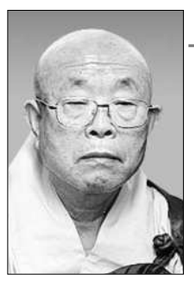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 (1-718) 460-2019 / FAX : (1-718) 939-3974
● Washington D.C.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 (1-703) 560-5166 / FAX : (1-703) 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 (1-323) 766-1316 / FAX : (1-323) 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 Ave.Skokie, IL 60077, USA
TEL : (1-847) 674-0811 / FAX : (1-847) 674-2280
- CANADA (캐나다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1-416) 750-7943 / FAX : (1-416) 701-1359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 (54-11) 4921-9286 / FAX : (54-11) 4921-9286
● Tucumà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Yerba Buena,
cp(4107) Tucumàn, Rep. Argentina
TEL : (54-381) 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0)2131)969551 / FAX : (49-(0)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66-2) 391-0091

각 종단 대표 신년법어 요약
(전문 buddhanews.com에)

천지에 빛 놓으니 집마다 순금의 문 열려

새해 새아침 시방에 영롱한 빛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아자(啞者)는 만류군생(萬類群生)을 깨우치는 법음을 설하고 농자(聾子)는 성전일구(聲前一句)를 전합니다.
이것이 새해아침에 광명이 가득하고 영롱한 빛이 시방을 머금은 소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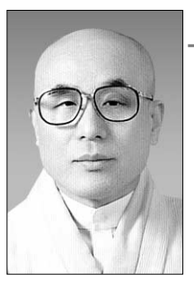
이와같은 현묘한 이치는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진리의 참모습을 깨치려면 저 빛깔과 소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꾀꼬리는 벗을 불러 노래하고 제비는 둥지를 찾아올 것이며
맑은 바람은 흰 달을 흔들고 흰 달빛은 맑은 바람 속에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혜목(慧目)이고 진리의 광명입니다.
대용현전(大用現前)하고 부존궤칙(不存軌則)입니다.

줄탁(啐啄)의 솜씨를 지닌 사람은 부쟁(不諍)의 덕을 얻어 원융을 이룰 것이요
말에 얽매인 사람은 재주를 팔아 어리석음을 얻을 것입니다.

천지에 빛을 놓으니 집집마다 순금의 문이 열립니다.

악(喝)!

동체대비의 세상 만듭시다



운산 스님 (태고종 종정 대행)

갑신년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분야와 각 계층이 희망적으로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의식과 행동을 과감히 지양, 척결하고 과거는 과거로써 역사에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하고 보다 성숙한 모습과 자세를 갖출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과 사회속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를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보살의 이타정신을 발휘하여 원만하게 조절하고 또한 원융과 회통정신을 실천하여 갈등과 대립, 다툼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라는 집단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과 이웃과 국가사회를 위하는 넓은 마음과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밝아지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해를 밝고 아름다운 한해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과도한 집착과 욕망을 덜어내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옆자리를 비워놓는 일입니다.
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 청정한 국토, 안락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너' 아닌 '너의 나'를 보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가득 찬 부처님을 봅시다. 새로운 마음의 눈을 열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집착과 대립, 독선의 어둠을 버리고 지혜의 빛으로 이웃을 봅시다. 나의 네가 아닌, 너의 나를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부처님 남기신 법문은 대천세계에 가득합니다.

"미래의 부처님이여, 당신을 공경하고 찬탄합니다. 그대들은 부지런히 수행정진하며 보살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입니다.(我不輕汝 汝等行道 皆當作佛)"

적멸궁 앞에는 훌륭한 경치도 많고
영축봉 꼭대기엔 티끌 한 점 없어라
종일토록 방황하며 지난 일을 생각하는데
저물녘 자비의 바람이 효대에서 이네
적멸궁전다승경(寂滅宮前多勝景)
영축봉상절섬애(靈鷲峰上絶纖埃)
방황진일사전사(彷徨盡日思前事)
비모비풍기효대(簿暮悲風起孝臺)

세세생생 쓰고 남을 불사를



혜일 대종사 (진각종 총인)

법계는 법의 일산으로 덮히우고
뭇 중생은 모두가 일불의 제자라.
동녘 바다에 법일이 솟아올라 창공에 들어가니, 하늘에는 구름 없고 바다는 파도 잔잔하구나.

내가 있고 네가 있는 지옥(地獄)불이 사라지면 기름가마와 철산은 무용지물이요, 잘하고 못하고를 논하지 아니한다면 천상누각(天上樓閣)이 무너져 윤회(輪廻)의 틀이 뜬구름이 되리라.

오로지 열 손가락 모아 바라는 것은
뭇 중생들이 앉고도 남을 부처님의 금강보좌(金剛寶座)를 법계 법신으로부터 옮겨
선악시비(善惡是非) 선후본말(先後本末)이 없는 평등한 밀엄정토를 건설할 일이로다.

자심에서 우러나오는 본심의 소리
육자진언을 정진의 틀로 삼아
세세생생에 쓰고도 남을
성스러운 불사(佛事) 지을 것을 서원합니다.

오고 감 두려워 하지 말라



죽산 스님(관음종 종정)

사해랑평용수안(四海浪平龍睡安) 구천운정학비고(九天雲靜鶴飛高)
사해의 물결이 고요하면 용이 편안히 잠들고 구천의 구름이 고요하면 학이 높이 난다네.
가차사대이위신(假借四大以爲身) 항연불포어생사(恒然不怖於生死) 사대를 잠시 빌려 몸을 이루었으니 항상 편안하여 오고감을 두려워 않는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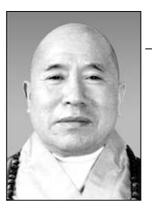
마음의 문 열고 보살도 실천



수성 대종사(총지종 종령)

부처님의 법문이 팔만사천이라고 하나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허공의 말이니, 경구 한 구절 내 마음 속 깊이 있으면 팔만사천 법문이 다 내것입니다.
믿음과 실천! 그 모두는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닦는 데 정진한다면 나의 실천은 절로 되는 것이며 구경에는 성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훔!

절대 평등한 중도세계 이룩



정각 스님(법륜종 종정)

부처님의 대지혜 금강보검만이 불의와 부정, 타락과 부패를 대광명의 천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보다 철저한 수행과 뼈를 깎는 참회로 인간의 자성을 재발견 해야만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갑신년 한 해를 희망과 용기를 갖고 미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보람찬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함께 살아야 모두가 산다



혜안 스님(보문종 종정)

새해에는 '함께 살아야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공존 · 공영의 연기적 원리를 사무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발원합시다.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허둥대며 사는 무의식적인 일상에서 깨어나 자기와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나를 찾아가는 명상과 성찰 그리고 참회의 한 해가 되기를 발원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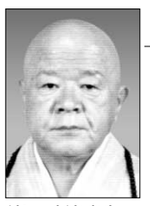
용맹정진 앞날 발전있기를



동광 스님(총화종 종정)

누겁진구 세척제(累劫塵垢 洗滌除) 송구영신 혁개척(送舊迎新 革改拓) 갑신일조 천지광(甲申日朝 天地光) 용맹정진 유발전(勇猛精進 有發展)
누겁으로 싸인 때를 씻어 버리고
옛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여 혁신하면
갑신년의 아침 해가 천지를 비추니
용맹정진하면 앞날에 발전이 있으리오

자기를 바로보는 해 되길



일공 스님(원융종 종정)

일체 만물은 하나!
내가 있기에 이 우주만물이 존재하고, 우주만물이 있기에 또한 내가 존재함을 알고 일체 만물과 개인은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밝아지면 자연히 천하가 밝아진다 했으니,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진하여 자기를 바로 보는 한 해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남북통일 이뤄 함께 번영



지명 스님(조동종 종정)

일월이 승침하여 세월을 재촉하니 계미는 저물고 갑신이 밝아오도다.
오탁악세에 새롭게 법의 수레를 굴리고
선정과 지혜로 고요히 비추어서 속세의 모든 티끌을 씻어내고
하루 빨리 남북통일을 이루어 영원토록 함께 번영할지어다.

이웃과 함께하는 한 해로



해곡(열반종 종정)

오늘의 동녘에 뜨는 해는 어제의 해가 아니며, 오늘 뜨는 달은 내일 뜨는 달이 아닙니다.
명예와 탐욕 그것은 아침의 이슬이며 부귀영화는 눈이 녹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은 업장은 새해가 와도 매듭을 풀어야 하듯이 자비인욕으로 보살행을 실천하여 갑신년을 이웃과 함께 하는 한 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화합으로 난제들 극복



연화 스님(미륵종 종정)

불신과 탐욕으로 얼룩진 오늘의 현실을 부처님의 가피로써 지난 과오를 깨끗이 청산하고 나라의 어려운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화합의 장으로 나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지은 과보로 인해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 살면서 무명의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도다.

자신이 누구인지 항상 관조



혜안 스님(무량종 종정 대행)

지난 한 해 어리석음에 빠져 무리한 행동과 욕심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새해에는 내 앞에 부여된 허공무대에서 내 방식을 버리고 부처의 교시를 마음에 새겨 한 해의 삶을 계획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수시로 관조하면서 탐욕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공조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봉은사 보우당

기도하는 도량 · 공부하는 도량 · 가족과 함께하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산 奉恩寺

조 실 석주 정일
주 지 설담 원혜
신도회장 우보 안승기

봉은학림
기초학당 / 불교대학 / 연화(노인)대학 / 봉은불교문예대학 /경전학교 / 봉은시민선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전화 : 02)3218-4800~5 / 팩스 : 02)544-2141



◇ '부처를 닮은 사람들' 이 의정부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김밥 한줄에 희망을 담았어요"

부처를 닮은 사람들 의정부 재소자 위문

"봉사 스님·불자에게서 또다른 불교 모습"

"우리 막내랑 쏙 닮았네…."

파란 수의를 입은 재소자가 3살짜리 꼬마아이를 품에 안자, 두고 온 가족생각 때문인지 이내 눈가가 흥건해진다. 아이는 재소자 포교봉사단체인 '부처를 닮은 사람들'(http://cafe.daum.net/ilovebuddha)과 함께하는 꼬마 포교사.

"여주교도소 여 재소자 방의 경우 아이들이 다녀가기만 하면 밤새 흐느끼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곤 해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족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책하는 마음 때문일 거예요."

12월 19일 의정부 교도소를 찾은 '부처를 닮은 사람들' 회원 7명과 의선 스님, 그리고 2명의 꼬마. 이들은 이제 교도소 철문을 드나드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용인 수지포교원 신도를 중심으로 재소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있는 이들은 한달에 보름가량 교도소를 찾기 때문이다.

언제나 초과되는 질문시간을 마치며, 스님은 재소자들에게 교도소를 다시 찾을 때에는 교화시키는 입장으로만 오라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가족들이 몇 개월 동안 찾아오지 않는 재소자도 많아요. 그 분들껜 저희가 만든 김밥 한 줄이 희망이 된다니, 아침마다 김밥을 싸면서도 힘든 줄 모르겠어요." 꼬마 포교사의 엄마인 전경란 씨 말이다.

"지난달인가, 다섯 살배기 딸아이를 백혈병으로 잃은 재소자가 있었어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스님이랑 저희가 교도소 안에서 천도재를 지내줬어요. 아이의 아버지인 재소자와 천도재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펑펑 울고…." 윤영국 씨는 아직도 가슴이 뭉클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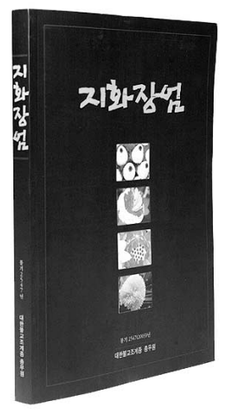
재소자 대표 정모 씨는 "이렇게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하는 스님과 불자들을 보면서, 생활 속에서 전파되는 또 다른 불교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정부=오유진 기자

불전장엄용 紙花 보고서 조계종, '지화장엄' 발간

생화에 밀려 자취를 감췄던 불전장엄용 지화(紙花)에 대한 조사보고서 <지화장엄>이 발간됐다. 조계종 총무원이 발간한 이 조사보고서는 조계종이 2002년부터 불교무형문화재를 조사·발굴·전승하기 위해 진행해온 전통불교문화조사사업의 첫 결실이다.

<지화장엄>은 불교에서 전해지는 5가지 지화의 제작과정을 사진과 함께 단계별로 기록한 보고서로, 지화 제작 기능 전승과 지화 대중화에 기여할 기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불교 지화제작 기능을 전수받아 40여 년간 지화를 제작한 이기원 씨가 지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촬영, 정오 스님(포항 천국사 주지, 영산재 이수자)과 성운 스님이 정리했다.



이외에도 지화의 유래, 불교의식 속의 지화장엄 종류, 무속에서 보이는 지화와의 비교, 지화관련 논문 등이 포함돼 있다.

12월 23일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조계종 문화과장 심원 스님은 "이번 조사보고서 발간이 지화의 가치, 현황 파악의 결과라면 앞으로는 지화를 어떻게 활성화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것"이라며 "지화 장인을 무형문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두 번째 전통불교문화조사사업으로 내년에는 사찰학춤을 발굴·조사할 예정이다.

오유진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 사형제 폐지 종교인 천도재 봉행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 기도모임은 12월 25일 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한 사람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종교인들이 촛불행렬을 하고 있는 모습. 남동우 기자

법천사지, 금동불상 등 유물 발굴



원주 법천사지에서 금동불상 1점(사진)과 기와류, 목재를 엮어 만든 방형의 우물지, 건물지 9동, 석탑 옥개석, 보살입상 등 신라 말기부터 조선전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발견됐다.

강원도 문화재연구소 조사단(단장 지현병)은 12월 24일 법천사지 3차 발굴조사 결과 머리부분이 결실된 금동불입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불상은 불두와 불신, 대좌를 따로 제작해 접합시켰고, 대좌는 불신에 촉으로 고정했다. 대좌 등의 양식으로 보아 신라 전성기 보다는 후대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

"천성산과 운명 같이 하겠다"

지율스님, 법륜·수경 스님과 대응방안모색

도롱뇽소송, 16일 3차 심리

12월 26일 도롱뇽을 원고로 하는 도롱뇽 소송의 2차 심리가 끝난 후 지율 스님은 "천성산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처음의 마음이 변함이 없으며 현장이 생기면 달려가 반드시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북한산이 노선 강행 쪽으로 결정되면서 천성산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법륜 스님, 수경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제 111호 법정에서 열린 2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정우규(울산생명의 숲 대표), 서재철(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함세영(부산대 지질학과 교수) 등을 신청인으로 받아들이고, 1월 16일 오후 3시 3차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12월 15일 열린 천성산 현장검증에서 울산고속철도공단측에서 지하수, 지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천성산 비대위측에서도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도롱뇽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도롱뇽의 소송대리인인 '도롱뇽의 친구들'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 16일까지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효 소송인단수는 18만8천7백명으로 자료 입력을 진행 중이다.

한편 지율 스님은 도롱뇽 소송인단 1백인 모집을 위해 1월 7일부터 전국투어를 열고 거리서명, 강연, 간담회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도롱뇽 소송에 관한 자료와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생명 사랑의 마음을 담은 '원고, 도롱뇽 출석했습니까(가제)'라는 책도 1월 중순경 출판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도난성보회수·범인 검거 공로자 9명에 공로패

조계종 총무원은 12월 23일 도난성보문화재를 회수하고 범인을 검거한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공로자들에게 감사패와 금일봉을 전달하며 "5천년 인류 역사와 얼이 담긴 문화유산을 회수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공로자는 구례 천은사 범종을 회수한 전북 임실경찰서 백종진 서장, 배영근 경사, 김진담 경장과 영동 영국사 영산회상도를 회수한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강신태, 허정행, 김동하 씨, 서울지검 송인택 검사, 임순만 행정주사보, 김규상 검찰주사보 등 9명.

배영근 경사는 "문화재 도난 사건을 수사할 인력이 부족해 사건해결이 쉽지 않지만, 신속한 신고로 도난 문화재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문화재 도난 사범 검거에 힘이 된다"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김진담 경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의왕시 자원봉사대회 청계사팀 단체 우수상

청계사자원봉사단(단장 김명순)이 12월 16일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2003 의왕시 자원봉사대회'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자원봉사단체상을 수상했다.

지난 1981년 창립된 청계사자원봉사단은 그간 자원봉사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자원봉사인증제 도입, 30여 복지시설 및 군·교도소 위문방문 등 모범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벌여왔다.

김철우 기자

42장경 특별강좌 개최 혜진법사 초청 7일부터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은 1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광주불교문화대학 강의실에서 위빠사나 명상센터 원장 혜진 법사를 초빙, 42장경에 관한 특별강좌를 무료로 진행한다.

42장경은 중국 한왕조(서기 62년경)때 명황제의 초대를 받고 중국을 방문한 인도스님들이 부처님과 불교를 알리기 위해 만든 시편집형식의 경전이다. 광주불교교육원은 지난 94년에 개원, 불교교육과 문화교육, 불교문화 유적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062)228-9098

김은경 기자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호국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조 실 휴암 정천
부조실 경하 현성
회 주 진불장 혜성
주 지 선묵 혜자

청담문도회 일동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직원 일동
학교법인 청담학원 직원 일동
사부대중 일동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 264 TEL 02)993-3161/3 FAX 02)993-3164
http://www.dosunsa.or.kr



명사와 함께 여는 새아침
김종서 박사

갑신년(甲申年) 새해를 맞아 교육계 원로인 김종서 박사(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재가불자에게 수행이란 어떤 의미인지, 평소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부처님 말씀, 사회 갈등 치유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또한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방안과 미래 사회 불교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김 박사는 금강경 암송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일체유심조'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 또한 시대가 변하더라도 지켜야 할 계율이 있으며, 불자로서 긍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북동 길상사에서 만난 김 박사는 여생을 수행으로 회향하고 있었다.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나는 불자' 긍지 갖고 사세요



◇하루를 불교로 시작해 불교로 맺는다는 김종서 박사. 금강경 암송과 참선으로 하루를 보낸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국립묘지로 산책을 갑니다. 산책하는 100분 동안 금강경을 3번 암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불교로 하루의 시작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립묘지에 묻힌 넋들을 부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지요. 세 번째 이유는 제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하고 성북동 길상사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금강경을 한 번 더 암송하지요. 길상사에 도착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참선을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 테이프를 듣습니다. 잠들 때도 다시 금강경을 암송합니다.

▲여생을 수행으로 회향하는 것 같습니다. 재가불자들에게 수행이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맑게 하고 스스로를 제어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자 된 도리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마음속에 새기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수행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현대 사회 문제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 일어나기 때문에 수행으로 자기 통제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따라서 일체유심조는 개인적 측면 뿐 아니라 국가적, 전 지구적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한 불교적 가르침이 있다면?

부처님을 수행자로 보기도 하지만 사회개혁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부처님 생전 시 인도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죠. 그런 사회에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을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계급을 타파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는 나만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의식이 깊게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죠. 나와 다른 견해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금강경 암송과 함께 하루 시작
일상 생활 속 수행은 불자된 도리
인드라망 속에 나와 뭇생명 존재

▲날이 갈수록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자라면 환경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뭇생명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나를 짓밟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드라망의 구슬에 꿰어있다고 할 때, 나와 뭇생명을 둘로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불교의 사회 참여 의식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여불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이 그러했듯 실천불교는 계급타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용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는 최근까지 수행불교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요즈음 실천불교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천 없으면 평생공부도 헛 일
보살십선계, 세상 바뀌어도 지켜야
불교 세계화가 인류 정신세계 바꿔

▲한국불교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불교는 비판이 강할수록 정비례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한국불교의 첫 번째 문제점은 교육입니다. 종교에서도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 비해 불교에서 교육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재가나 승가 모두 '계율'을 바탕에 두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계율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바뀌어야 할 것이 있고 바뀌어서는 안 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살생(不殺生, 살생을 하지 마라), 불투도(不偸盜, 도박이나 도둑질을 하지 마라), 불사음(不邪婬, 올바르지 않은 이성관계를 갖지 마라), 불망어(不妄語, 거짓말을 하지 마라), 불기어(不綺語, 생색내는 말을 하지 마라), 불양설(不兩舌, 이간질 하는 말을 하지 마라), 불악구(不惡口, 욕지거리 등의 나쁜 말을 하지 마라), 불탐애(不貪愛, 탐내는 마음을 갖지 마라), 불진에(不瞋恚, 성내지 마라), 불치암(不癡闇, 똑똑한 체 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라) 등 보살십선계(菩薩十善戒)는 시대가 아무리 변화더라도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입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불교는 교리나 선적인 면을 고르게 계승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발전시킨 불교입니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에 바르게 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언어 소통 능력이 필수입니다. 특히 스님들의 외국어 교육이 중요합니다. 강원 교과에 외국어 강좌 포함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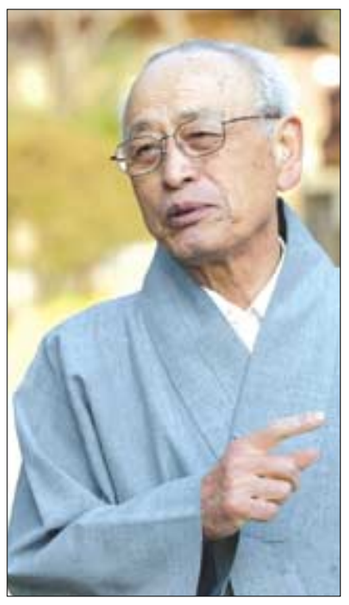
▲미래 사회의 대안을 불교에서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불교가 미래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물질 위주의 사회인가 정신 위주의 사회인가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문화 범람으로 인해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친 현대인들이 진정 참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자연스레 불교가 대안으로 부각됐습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또한 사회개혁의 측면도 강합니다.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하고 사회개혁적 측면이 강하며 평등사상이 짙게 깔려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불교는 미래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한국불교의 세계화입니다.

▲새해를 맞아 불자들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한다면?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자라는 자부심과 긍지입니다. 한번은 어느 지인에게서 불자 유치원 원장이 원장들의 모임에 나가면 자신의 불자라는 것을 밝히길 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장들 대부분이 개신교인이라서 그렇다나요. 불자들이 타종교인 99명보다 우수하다는 긍지를 가지면 보시나 계율, 불교의 생활화 등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김종서 박사는?

김종서 박사는 1924년 황해도 장연에서 출생했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美 죠지피바디 사범대 문학석사(교육학), 서울대 문학박사(교육학)를 거쳤다. 서울대 사범대학 학장과 덕성여대 총장, 한국교육개발원 이사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어디에도 끌려다지니 않겠다고 다짐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수행에 몰두하고 있다.

성북동 길상사에서 만난 김 박사는 80세라는 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일흔이 넘는 4명의 도반들과 매일 참선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위해 정진하고 있었다.

교육학자이자 고 이기영 교수와 불교대중화에 헌신한 김 박사는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묻자 '이심전심(以心傳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1945년 방한암 스님에게 원성(圓成)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서울시문화상 ·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상했으며, 〈교육연구의 방법〉등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겼다.

西翁大宗師 舍利 親見法會

지난 12월 13일(음11월 20일) 열반하신 대한불교조계종 제5대 종정 서옹당 상순대종사의 종단장에 참여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종단장은 고불총림 백양사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 방식의 다비식으로 여법하게 거행되었습니다.

다비식 후 습골을 마치고 연화대 아래 깊이 묻었던 항아리를 열자 맑고 영롱한 백옥빛 사리 4과가 출현하였습니다. 비록 과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지만 밀봉된 항아리 속에서 사리가 출현함은 지극한 수행의 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세수 92세, 법납 72세를 일기로 앉으신 채 입적하신 서옹대종사의 깊고 놀라운 수행을 증명하는 희유한 실례이며 중생들에게 남기신 대자비심의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리는 계 · 정 · 혜의 훈수(熏修)로 생기는 수행의 결정체로서 최상의 복전이기에 공양하고 공경하면 죄업을 소멸하고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 공덕을 사부대중에게 회향하며 서옹대종사를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고불총림 백양사의 산문을 활짝 열고 사리친견법회를 열고자 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수희동참하시어 무량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大韓佛敎曹溪宗 古佛叢林 白羊寺

● 사리친견법회 : 일시 - 200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수행관 / 공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서옹당 상순대종사 49재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막재 - 1월 30일 ● 서옹 큰스님 사진전 : 일시 - 200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수행관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연 령 사
주 지 송영임(연화심)
신도회 일동
■ 경남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276
전화 055)355-3259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기 원 정 사
주 지 도 원
신도회 일동
■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342
전화 055)353-9601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백 령 사
주 지 지 수
신도회 일동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842-8
전화 055)391-6176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보 리 암
주 지 지 명
신도회 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2동 327-6
전화 051)542-2952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용 정 사
주 지 학산(혜봉)
신도회장 서광명장
■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산213번지
전화 055)353-1196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말사
용 궁 사
회주 정 무
밀양불교대학 불교대학 운영위원 일동
신도회장 이연등화 보현회 일동 초심후원회 일동
■ 경남 밀양시 가곡동 692번지
전화 주지실 055)354-4467
종무소 354-4464 / 팩스 354-4415

덕대산 극락사
주 지 법 륜
신도회 일동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전화 055)352-7224
휴대폰 011-584-5515

보건복지부지정
대전시니어 클럽
관 장 혜 광
50세 이상 조기 퇴직자와 경험과 연륜이 많은 어르신들의 사회적적 일자리 창업 취업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
■ 전화 042)471-5545, 472-5547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현지스님
부회장 광민스님
총 무 혜향스님
■ 전화 062)376-3223

대한불교 조계종
청암사승가대학
학 장 지 형
학인대중일동
■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
전화 : 054) 437-0038

(사)대한불교선각종
월 암 사
주 지 월인(月仁) 합장
■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198-11번지
전화 061) 644-4657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회주 근 일
주지 혜승 기획 법운 총무 호성
교무 성공 재무 도륜 호법 혜봉
포교 선휴 사회 정우
www.gounsa.net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
전화 : 054) 833-2324 / 팩스 : 054) 834-6935

대한불교 조계종
봉 암 사
주 지 원 타
신도일동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전화 : 054) 571-3733, 9088

〈삼천불 조성불사 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보 문 사**
산림기도 : 음력 1월 5일
방생법회 : 음력 1월 13일
주 지 도 성
신도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702의6
전화 : 053) 472-5578 / 팩스 : 053) 476-3302

대한불교 조계종
구룡산 통 천 사
주 지 선 지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
전화 : 053) 941-3503
주지실 : 053) 953-4481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 지 송 덕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전화 : 053)982-9329
팩스 : 053)983-1698

대한불교 조계종
능인선원·행원불교대학
주 지
학 장 혜 장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677-13
전화 : 053) 753-6875~6
팩스 : 053) 753-6554

대한불교 조계종
원 각 사
주 지 석대혜
간병봉사회 · 교정법회 후원회
원림회, 유적답사반 (양력 초하루 법회)
신도일동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159
전화 : 054) 481-2363

대한불교 불이종
자암산 보현사
주 지 성원 갈평
신도회장 피진연화
원 주 김자덕화
창 건 주 민서안거사
■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0
전화 : 054) 859-1148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말사
천년고찰 선석사
주 지 선 문
신도일동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 2리 217
전화 : 054) 933-9800

불교진각종
보정심인당
주 지 혜 명
■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6-4
전화 : 054) 247-2649

불교진각종
용 연 사
주 지 유 광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전화 : 053) 616-8846

대한불교 조계종
법 륜 사
주 지 지 성
■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457
전화 : 053) 313-5908

대한불교 본원종
용암산 고경사
주 지 자 광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
전화 : 054) 637-8885

대한불교 조계종
미승산 반룡사
주 지 진 담
신도일동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리 187
전화 : 054) 954-1498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주 지 지 광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대한불교조계종 등룡사
신 도 일 동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TEL 02)577-5800
FAX 02)577-0052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수원포교당
주 지 성관스님
선원장 금산스님
총 무 신원스님
입 승 덕안스님
교 무 대진스님
포교국장 지견스님
도 감 동일스님
기획국장 실원스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2-1
TEL 031)245-9670~2
FAX 031)244-8562

한국불교태고종
전통사찰48호
송 덕 암
주 지 고동우
사부대중일동
■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602번지
☏ 041)688-2913
기원정사포교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619번지
☏ 041)631-5153

무등산 혜 룡 사
삼장법사 日圓 혜우 합장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 269번지
전화 062)224-5588

대한불교 조계종
연암산 금강사
주 지 이청수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1동 832-9호
전화 : 053) 941-0330, 955-0077
팩스 : 053) 953-0330

광 진 사
주 지 혜 원
대중일동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715
전화 : 054) 974-1783

경주 정각사
주 지 해 월
(해월 불교춤 연구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1동 1484-15
전화 : 052) 247-1380



문수사와 신곡리의 새해맞이

절이 있으므로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어서 절이 있다.

'연기법'을 설명하는 경전 구절의 패러디일까? 경북 구미시 도계면 신곡리에 가 보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신곡리는 얼핏 보기에도 가난의 때를 훌훌 벗어 던진 부촌이다. 시멘트 포장길과 말쑥한 지붕의 양옥집들. 한 겨울의 스산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신곡리는 누구에게나 포근한 '고향' 그 자체로 다가오는 정겨움이 넘친다. 그 훈훈한 기운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마을에서 할아버지 걸음으로도 15분 거리. 거기가 신곡리 훈풍의 진원지 문수사다.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동짓날 팥죽 먹으며
스님과 둘러앉아 '농사설계'

"106가구 중 100가구 절에 다녀요"
혜향스님 "서로 도우며 살자" 강조
절일 · 마을일 구분 없이 손모아 척척

기자가 찾아간 날은 동짓날. 마침 법회가 끝나고 큰방에 스님과 신도들이 모여 앉아 팥죽 공양을 하고 있었다. 어정쩡한 자세로 인사를 하고 조용히 신도들 틈에 끼어 앉았다. 신도들이 스님의 법문을 듣는 시간인줄 알았으므로. 그런데 아니었다.

"날이 풀리면 극락교 앞 밭에 사과나무를 심을까 하는데 일손 좀 보태 주시렵니까? 400주를 혼자 심으려니 힘들 것 같아서..."

"아따, 당연히 저희가 도와 드려야죠. 사과나무 400주는 대여섯 명이 도우면 금방 심어요."

스님의 조용한 요청을 큰 소리로 시원스레 받아들이는 아낙의 눈가엔 선한 미소가 가득하다. 문수사 신도회 총무 이자비심 보살이다.

"스님. 내년에도 고추 값이 올 만큼 좋을까요? 그렇다면 대여섯 마지기 심을 만 한데 말이죠."

"그야 아무도 모르죠. 시세를 미리 안다면 부자 안 될 사람 없게요?"

"하하하"

문수사 큰 방은 새해 농사설계로 뜨겁다. 농사일이며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가 그칠 기색이 없다. 주지 혜향스님은 농사일을 물으면 '농촌지도소장'이 되고 집안일을 물으면 '동네 어른'이 된다. "신곡리 주민들은 모두 문수사를 다니시나요?" 기자의 질문에 또 이 자비심 보살이 나선다.

"총 106가구, 불교 100가구, 기독교 3가구, 무교 3가구, 이상."

마치 군부대 점호 보고처럼 딱 부러지게 마을 종교 현황을 '보고'하자 온 방이 웃음도가니가 된다.

혜향스님과 마을의 인연은 40년 전부터 '스님과 신도' 관계를 떠나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 강원과 선원을 찾아다니며 정진하던 혜향 스님이 바랑 하나를 메고 문수사로 들어 온 다음해부터 마을 사람들과 스님은 공동체의 틀을 짜기 시작했다.

1962년, 우리나라 모든 농촌이 다 그랬듯이 신곡리도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으며 사는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 혜향스님이 양봉 기술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스님이 영월 법흥사에서 기도할 때 마을 사람에게 우연히 배운 양봉법을 신곡리의 가난 퇴치 작전 제1호로 발동한 것. 처음엔 "그게 뭐 돈이 된다고..."하며 선 뜻 나서지 않았지만 스님의 정성어린 설득과 조금씩 늘어나는 벌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벌을 자식 키우듯'하게 됐고 10여년 만에 양봉 영농마을로 지정되어 명성 까지 얻게 됐다.

온 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신곡리는 다시 가난 퇴치 작전 2호를 선포했다. 바로 과수원이었다. 일조량과 기후가 과수재배에 적합할 뿐 아니라 주민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기에 이 작전도 성공했다. 성공한 것은 양봉과 과수원 농사뿐이 아니었다.

"뭣보다 마을 사람들의 단합이 제일 큰 농사 아닙니까? 우리 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단합이 잘된다고 믿고 있어요. 스님이 서로 협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잘못이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절에서 팥죽 공양이 끝나자 스님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마을로 내려 왔다. 팥죽과 김치, 과일 등을 챙겨들고 찾은 곳은 마을 경로당. 모여 있던 10여명의 어르신들이 "아이구, 팥죽 공양이 왔구나"하며 스님 일행을 반겼다. 경로당에서 또 한 바탕 팥죽 잔치가 벌어지며 내년 농사 얘기가 다시 불붙었다. 뒤편에 앉아 있던 기자에게 홍종걸(73세) 할아버지가 말을 건넨다. "스님에게 받은 한 통의 벌이 지금은 셀 수가 없이 많아. 수천통의 벌통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자식들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지." 김규철(70세) 할아버지도 거든다.

"암, 스님이 이 마을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지. 그 뿐인가. 우리 마을 마흔 살 이전의 연배들은 거의 대부분 스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어. 그 정도니까 절에 나오란 말 안 해도 우린 다 절에 나가서 불공도 하고 일도 도와 드리지. 스님에게는 절대 품삯도 안 받는다구…하하하."

또 한 할아버지는 "이 사람들아 제일 중요한 걸 말해야지. 기자 양반, 저 스님은 우리 동네의 부처님이야. 경로당에 텔레비전 사 주셨다고 이런말 하는게 아니야. 해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시고, 초상이 난 집엔 제일 먼저 달려오시지. 스님이 손수 극락왕생을 빌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나도 죽으면 저 스님 염불 소리 들으며 저승 갈 테야."

"우린 살아서도 죽어서도 행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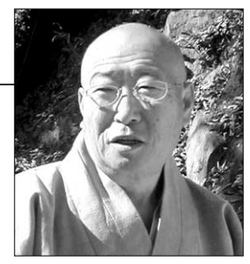
마을 사람들의 스님에 대한 존경도 대단하지만 마을에 대한 스님의 사랑도 크다. 그렇게 일과 믿음으로 다져진 문수사와 신곡리. 동짓날 법회와 공양 시간은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의 축제였다.

구미=김두식 기자

◀"좋은 신문에 우리가 나가도 되나?" 신곡리 어르신들은 카메라를 꺼내자 얼른 방을 치우고 '점잖게' 포즈를 취했다. "좀 웃으세요" 기자의 주문에도 결코 긴장을 풀지 않았다.

▌혜향 스님 인터뷰

"중생 외면하면 불교가 아니죠"
불사 있으면 주민들 자발적 참여



"60년대 초반 신곡마을에 처음 와서 보니 완전히 깡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수와 보리농사 이외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보리도 제대로 마음껏 못 먹을 정도로 가난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혜향스님은 손수 자비를 들여 양봉기술을 가르쳐 주며 함께 양봉을 시작하게 됐다.

"처음 양봉을 시작했을 때는 주민들의 참여가 대단했습니다. 농사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죠. 양봉을 열심히 한 사람 가운데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함께 양봉을 하며 생긴 수입으로 40년 동안 요사채, 수덕전, 사자암을 건립 했으니까요"

스님은 마을 주민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다. 사찰에서 불사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운력에 동참했고, 진입로 포장도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중생의 삶을 외면한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항상 중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중생의 아픔을 달래주고 기쁨은 함께 나눌 때 불교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요?



"조선시대 문수사 중창조인 혜봉 스님은 노승이 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을 꾸었는데 노승은 문수보살의 화신이고 노승이 타고 온 말은 사자라며 신곡마을 뒷산을 청량산이라 명하고 문수사를 창건했습니다."

신곡마을 송도순 이장(53)이 전해주는 마을 내력이다.

시집와서 30년동안 신곡마을에 살고 있는 이 자비심 문수사 관음회 총무 보살은 "처음 시집왔을때 동네 어른들이 문수사에서 기도를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지극정성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들은 문수보살의 지혜를 타고났는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등 훌륭하게 자라 마을의 자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곡마을에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전형적인 시골마을이지만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만도 서울지검 김헌범 검사, 변호사 김인수, 진현희씨 등 다수이고 학계에는 김학묵 부산대 교수, 김덕묵 단국대 교수, 김기탁 상주대 총장, 김영수 안동대 교수 등이 이 지역 출신이다.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한의과대학)

2004년 본과생(학사) ■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약과(중의약)	5년	◇ 자 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대학재학 및 졸업자(만 40세이하)
일반학과 (사범대)	4년 (편입가능)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건강진단서 1통(영문) 여권용사진 10매, 주민등록등본 1통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 3월이후(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중국 중의사 시험 2002년부터 개방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 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 등 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6년)
▶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월 2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처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

4 문의처

· 남경중의약대학 한국분교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FAX : 02-511-2028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中國 南京市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25-632-2539, FAX : 25-532-0825

2004년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개호복지사과	2년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교육학 학위가능)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4년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학위수여 가능)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4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 30명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남경중의대학 30명 합격
2002. 2. 제 11회 졸업생 배출, 남경중의대학 37명 합격
2003. 9. 남경 중의대학 41명 합격

· 전과 중국학위 가능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효장 사범대학 입학 및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월 2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7 FAX 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삼 화 불 교 대 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기간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남경한의대 입학가능, 남경사범대 입학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불 교 **성지고등불교학교**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연사,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개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바라춤, 나비춤 등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하신 곳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051-265-5692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수행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20~40세)
▷ 도심속의 포교원(부산)
018-801-2584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387-0361
016-428-6665

1. 천일기도하면서 가족처럼 지내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2.합창단을 이끌어 주실 피아노선생님을 모십니다
032-873-1059
016-443-9933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서 울
016-9755-8988

산세수려한 사찰입니다
신심있는 공양주를 구합니다
052-254-5125

조계종 스님으로 30대~40대 건당상좌로 하여금 운영관리 스님을 구합내지 소백산 지장보궁에 신심깊고 평생을 의지터로 삼을 공양주 구함
제2지장보궁 내원암
054-653-1180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분당 불국사
031-719-0408

평생을 함께 할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스님이 되고싶은 남여 행자님을 모십니다
031-868-1832~3
011-9822-6469
경기도 동두천 옥금산 불면암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착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변비는 만병의 원인
변비 · 숙변 (다이어트)
▷변화없을시 환불 보장
2달분 90,000원, 1달분 50,000원
구입문의 080-558-6633
대리점모집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행자님을 모십니다
도심 불교 포교의 태명사 능인선원, 국녕사, 등룡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춰 함께 정진하실 행자님을 모십니다. 큰 뜻을 품고 자신을 갈고 닦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행자님들을 모셔서 세시대를 열어가는 참된 수행자와 전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참수행에 큰 뜻을 품은 행자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행 자』 · 자격 : 고졸이상 40세 미만 · 신체 건강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대한불교조계종 능인선원 능인불교대학
▶문의 : 577-5800 교202 • e-mail : neungin@chollian.net
H·P : 011-9887-6351, 011-249-3378, 011-898-4680

지현역리학 연구원
◆ 생활역학 전문 교육처
– 고 자강 이석영, 고 단원 이병렬선생의 전통 학문 강의(초급~고급)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 전수
한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수
◆ 작명학 강의
– 본명 사주의 오행균형법 원형이정의 수리법 부족된 자원보충법
음령법 사상체질법 체계적인 이론연구의 정통작명 비법 전수
※갑신년 개요 : 강의록 테이프와 자료 판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기림오피스텔 1004호
02)2243-9598. 018-470-6314

불교대학 가맹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구회(포교단)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가맹점 캠퍼스 설치
▶붕직자 과정 – 원사, 원주, 교무, 종무 자격
▶포교사과정–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솔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포교사, 장묘관리사
▶법사과정–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법사
011)412-8040

2004 역학 컨설팅 교육생 모집
★교육일정 : 2003년 2월 12일(수) 주 1회
★강사 : 초 · 중급 – 남륜 스님
★사주통변 – 김재덕
(SBS 입생열전,KBS뉴스투데이, EBS 아름다운도전출연, 굿데이 인연법 연재)
★관상학 (특강) – 신기원 선생
신청문의 027567-4833. 011-9702-2237
신생역천 김재덕 운세 상담 060-605-0914

수인작법 (수강생 모집)
자연의 운행속에 감춰진 생노병사의 열쇠인
자연수리로 수치의 비밀을 밝히어 각자에 대한 운명과 타인 내지 자녀들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운을 바로 보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혜안의 비밀을 푼다
수치로 사주 보는버 내지 모든 생활사에 수치 응용 비결법 전수
내손을 가지고 조화를 이용하여 구궁 팔문 태음 태양 사시 12달의 수를 놓아 화생할수 있는 수인작법 터득과 손으로 뽑는 각종 수인사주 운수법 총망라 단시일 내 터득
(수인작법 육임 단시점 12신살 당사주 기문둔갑 그외 등등..)
불운의 각종 예방법 내지 다방면으로 부딪히는 인생사 풀어내는 비방법 방편법 전수
031) 633-1517. 016-231-5451

성수철학원 (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봉은불교미술원 – 탱화전문
▶전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지장탱 감로탱 관음(천수천안) 지옥탱 팔금강탱 나한탱(오백나한) 산신, 독성
▶먹탱화 옹탱화 ▶무속증압탱(각종 족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1구 493번지
041)541-3545,3547. 016-751-3545
www.bongen.pe.kr/www.bongen.com.ne.kr
불모 오재택의 작품사진 300여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모 오 재 택

사주 개인 지도
특수비법 : 쉽고 정확하게 3시간 완성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지도 : 대주 스님
☎ 02)962-0867. 011-741-0867

우리집도 100%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다
부부문제 (금전 · 애정 · 갈등)
자녀문제 (학습태도,친구관계,직장문제,부모+형제에 대한 존경과 애정)
정기강의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수시친견 : 월~일요일 오전 11시 이후
장 소 : 성북구 돈암1동 83-2 (해인사 내)
문의전화 : 02)925-3747

신비한 기 치유법
1. 만성적인 두통
2. 관절염, 요통
3. 병명이 없는 육체의 병
4. 정신질환, 영적인 병
대 암 사
063-537-2448

탈종 공고
지난 12월 24일자 탈종공고상에 계재신문의 착오로 오류가 발생되었음을 사과드리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 승려번호 : 10005 · 법명 : 영인 스님
위 승려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귀 종단의 종지종풍을 더이상 선양할수 없게 되어 탈종합니다
불기 2547년 12월 12일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예하

주지 직인 개인 공고
· 사찰명 : 삼신사 · 주지 : 도해(김기옥)
· 주소 : 경북 봉화군 물야면 두문1리 산 45
위 사찰 주지 직인은 2003년 12월 19일자로 개인하였기에 전 주지 직인은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불기 2547년 12월 19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 공고
· 사찰명 : 삼신사 · 주지 : 도해(김기옥)
· 주소 : 경북 봉화군 물야면 두문1리 산 45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과 맞지않아 탈종하고자 공고합니다
불기 2548년 1월 1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실력테스트 해보세요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 위치 : 경기 ● 위치 : 전북
● 법당 : 20평 ● 법당 : 10평 ● 법당 : 13평
● 요사 : 140평 ● 요사 : 50평 ● 요사 : 20평
● 부지 : 900평 ● 부지 : 1200평 ● 부지 : 600평
● 가액 : 10억 ● 가액 : 4억5천 ● 가액 : 4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011)713-563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건물 : 2층건물 2층 85평
● 방5개, 친견실, 욕실 2개
● 보증금 4천만원,월 100만원
● 버스정류장앞 지하철3분거리 (주차장 완비)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551-1719

포교원 안내
● 위치 : 하남시 중앙동 대도로변
● 4층 건물중 5층. 38평
● 법당, 친견실, 스님방
● 몸만 오시면 됨. 명리에 능한신분, 역학가능하신 분 유리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일신상 (급)안내
011)9093-0108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
● 부지 : 764평
● 건물 : 법당 15평(전통목조), 종각3평(전통목조), 요사채
● 불사할수 있도록 조경완비 했음
● 가액 : 3억
011)462-0392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대흥동 보문산길
● 3층 건물중 2층 33평
● 삼존불, 후불 탱화, 지장불 108불, 신중단
● 옥탑방, 지하 사용가능
● 몸만 와서 운영가능
● 전세 2천, 시설비 1800만원
011)9867-9822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011)9405-8186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사찰
● 부 지 : 130평. 요지
● 법 당 : 50평 포집
● 요 사 : 100평
● 가 액 : 12억
● 위 치 : 인천포교당
● 부 지 : 32평
● 전 세 : 4700만원
● 시설비, 월세 없슴
● 요지.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비슬산
● 계곡좋고 산세 수려
● 산속에 위치
● 건물 2층 법당 23평. 1층 요사채
● 등기평수 : 120평
● 방5개, 삼성각 5평
● 가액 : 1억 4500만원
011)9394-121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중구 번화가
● 건물 : 5층중 4층 50평
● 엘레베이터 유
● 보증금 3천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 합 5천만원(방 총 6개)
051)803-4945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시내에서 5분
● 산세가 좋고 앞에 냇가 물이 흐름
● 삼존불, 산신, 용화
● 대지 약 2만평(과일나무심어져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물 : 상담후 결정
● 법당20평, 스님방2, 공양간20평, 집2채
011)9273-2477

선원 안내
● 위치 : 서이천IC 10분 거리
● 대지 278평, 건평 250평. 3층 건물
● 가액 : 4억
● 1 · 3층 홀, 큰 방, 화장실
● 2층 방 7개, 화장실
011)325-5199
031)632-5664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김천, 상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462-5275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시내 ● 위치 : 부산 시내
● 대지 : 80평 ● 대지 : 400평
● 법당 : 40평 ● 법당 : 25평
● 요사 : 8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6억(대출가능) ● 양도가 : 10억
※ 역사깊은 도심사찰임 ※ 주차시설 양호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내당동
● 구)황제예식장, 황제맨션앞
● 평수 : 45평
● 방4개,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6)9633-0302

신축사찰수련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 파계사옆 마을 상단
● 2차선 포장도 주차장완비 정남향
● 대지 207평, 텃밭 110평
● 2층건물, 건평70평 2002.11월준공
● 1층 : 객실 방3칸, 큰 거실, 사무실, 내실 주방, 욕실, 보일러실(심야 전기, 기름 겸)
● 건물2층 : 계단실,법당, 주지실, 응접실
● 특징 : 요산 요수, 수려한 자연경관 앞 냇물 뒷산은 竹林병풍 한폭의 동양화(가격 절충)
053)983-9933
053)984-9640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 평수 : 30평
●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53)565-8212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 부지 : 1500평(1000평종교부지허가)
● 산세수려, 수목 울창
●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음
● 교통편리, 도로 인접
● 서울 근교 중 최고의 명당터
● 가액 : 3억5천만원
017)438-3377

포교원 안내
● 위치:일산신도시주엽전철역150m 앞뒤로아파트단지
● 평수 : 25평, 방1개, 시설 A급. 3층 건물에 3층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바닥은 전기 온돌 판넬. 철학관으로도 적합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2백만원
019)687-0306. 031)919-0306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대지 360평, 대웅전 26평
● 지장전 10평, 산신각 5평
● 용왕전 0.5평, 공양실 大, 공양실 小, 주지실, 종무실, 방4칸
● 가액 : 5억(절충가능)
011)9105-7246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운장사 법당
● 보증금 1000만원, 월100만원
033)766-005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지하철 당고개역 앞
● 평수 : 약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400만원
02)935-4294

단독주택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길음시장내
● 법당 단독주택 30평
● 보증금 전세 4천만원
● 시설비 : 600만원
011)662-7372
016)344-1129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부근
● 55평. 임대. 법당(삼존불,산신각, 108지장보살님)
● 방3개, 주방, 화장실
● 가액 : 7천만원(상담후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 시설완비. 즉시 법회 가능
016)243-1643
02)907-1643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천평. 밤산 군유지 2만평
●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봉 안대. 동양화같은 최고명당. 비구니선원 적합
● 가액 : 2억7천만원
011)531-133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읍내
● 대지 약 100평
● 건물(30여평), 법당 10평, 방2, 욕실, 창고
● 교통, 주차 편리
● 가액 : 8000만원
011)879-4791

♪♬ 참선은 아무나 하나 ♪♬

禪

참 선 교 육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교육」 책은 재미있으며 깊이가 있고 바른 신심을 일으켜 바른 발심 바른 참선을 하는데 길잡이가 될것입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참선의 목적), 참선의 종류(범부선- 참선과 인과 법,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참선의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참선과 채식, 육식-참선의 적!, 선인체 상식), 참선할때 마음가짐, 참선전에 해야할 일, 참선할때 방귀를 참으면 어떻게 되나요, 왜 한철 90일 정진인가? 참선하면 얼굴이 바뀌는 이유? 인체 세포가 바뀌는 기간, 참선의 장소(토굴장소는 어디가 좋은가?, 토굴생활 하는 법) 선사와의 백문백답(진제선사와 백문백답)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全提와 單提, 화두,생각,망상, 선어록(禪語錄), 禪법문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괴, 정념즉괴,입제의 법로, 선문답의 공방, 禪師 법문, 근일 禪師 법문, 선지식을 찾아라, 승당에 내려가 일깨워 주는 법, 실제 단련법을 제시함, 교묘하게 전환하라, 관문을 부수고 눈을 열어주어야 한다, 도 닦는 것과 외부의 조건은 어떤 관계인가?, 근기란 무엇인가?, 도에 쉽고 어려움이 있는가?, 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지난날의 업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참선은 아무나 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조사어록에 나오는 복, 참선은 불교도 초월하는 것이다, 참선과 주파수, 기분 주파수, 편안하게 해주는 주파수, 수면과 주파수, 참선의 다섯가지 믿음, 화두참선과 염불수행, 왜 정진력을 길러야 하는가, 이십 대 3년 정진을 삼십 대 10년과 안바꾼다, 발심 수좌의 분류, 魔의 원인, 잘못 알고있는 魔, 재미있게 설명한 魔, 원담선사와 백문백답, 정일선사와 백문백답, 지리산영명선사와의 백문백답]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 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스님 일대기 (415쪽)
3권 교정중 곧 발간 예정 (인도사 1조~28조, 중국사 28조~56조, 한국사 57조 태고보우 - 경허, 만공, 전강, 송담선사까지)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사찰내 불교서점이나 영풍,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각권 1만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禪)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 禪 會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매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오가피와 여러 씨앗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베개

02)447-5300

불교성지순례
15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곳!! 인도

실크로드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성지순례 10일(불교8대성지) 1,8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2월 10일

인도, 네팔성지순례 15일(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0,000원
▶일 정 : 뭄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갠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등 히말라야설산)-카투만두
▶출발일 : 2월 7일

인도문화탐방 10일 (인도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1,990,000원
▶일 정 : 델리-자이푸르(라자스탄사막지방 핑크빛 고도)-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카쥬라호(힌두조각 예술의 극치)-알라하바드-바라나시(갠지스강, 녹야원)-델리(국립박물관)
▶출발일 : 2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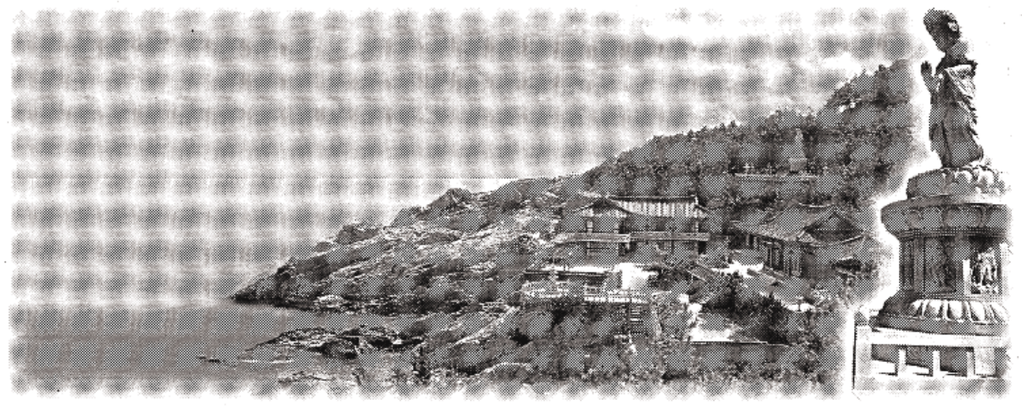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양곤 ※ 2월 10일 출발

중국불교 4대 명산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항주 5일 850,000원
▶구화산, 보타산, 황산, 영파, 상해 8일 1,150,000원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상해 5일 790,000원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성도 5일 850,000원
※ 10명이상 매일 출발 가능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효사 육임 도서 안내

■ 활용서 ■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2,500,000
- 육임래정비법 350,000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310,000
- 각일각시운명예언비법(태아 · 길일 · 길시 선정법) 74,000
- 육임신수비결(설명비디오 포함) 300,000
- 육임指斗생활비법 10,000
- 길흉상담지침록 20,000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日語版 ..... ￥272,000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학습서 ■

- 효사 육임강의록 上(학습용) · 下(활용서)권 410,000
- 육임강의 비디오 · CD 900,000
- 육임형이상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130,000

효사 전국육임 直講 안내

- 서울 매주 금요일 「효사숙」 02-993-8680
- 서울 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숙」 02-525-3039 (비구니스님 전문학당 청룡사)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숙」 063-284-7714
- 광주 매주 월요일 「광주숙」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숙」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숙」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숙」 053-624-8680

● 오행기초 · 기본을 모르는 분들은 위각본 강의 2시간전에 나오셔서 사전 교습을 받게 됩니다.
※ 수강료는 일백오십만원이고 교재 효사육임강의록 上 · 下권을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효사숙」에서「본회회원실기지도강의」와 육임서 설명회가 본 강의전에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문의 02-993-8680 / 02-998-8683
입금계좌 도서주문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강의신청 :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봉인사 1월 수련안내

1. 자비수관(慈悲手觀) 수련

◆ 지, 수, 화, 풍, 공 의 오대 관법을 통한 위빠사나와 티벳 밀교계통의 자비관법수행
◆ 안 내 : 지운스님(전 송광사 강주)
◆ 일 시 : 1월 10일(토) 오후 3시부터 16일(금)까지 (6박 7일)
◆ 준 비 물 : 간편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
◆ 수련비용 : 20만원(교재비 포함) (중.고생도 참여할수 있습니다.)

2. 다도(茶道) 수련안내

◆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쉬운 다도를 일주일간 매일 한시간 반 동안 공부합니다
◆ 전 불교 TV에서 강의하셨던 내용을 수행법에 맞춰서 합니다
◆ 안 내 : 지운스님(전 송광사 강주)
◆ 일 시 : 1월 11일(일) 오후 1시 반부터 16일까지 매일 출퇴근 가능
◆ 동참금 : 5만원
[교재비 별도 / 교재는 "찻잔속에 달이 뜨네" -봉인사에 비취되어있습)]

* 문 의 : 031) 574-5585
WWW. bonginsa.net / bonginsa@bonginsa.net

봉인사 한길정진원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생명나눔 실천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인 현장 스님(맨 오른쪽)을 비롯 의사들과 소아암 완치 아이들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43명의 영웅'들이 전해준 '희망'

병원을 뒤흔든 웃음소리… '완치판정', 완치 금메달 수여식때 그늘도 눈물도 없어 '성스러운 존재 되어달라' 스님의 당부 투병중인 친구들에게 큰 용기 심어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12월 23일, 전남대 병원 6동 7층 대강당에서 오랜만에 떠나 갈 듯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제 3회 광주 전남 백혈병 소아암 완치잔치'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 주인공은 혈액암의 일종인 백혈병과 뇌종양을 넉다운시킨, 이름하여 '43인의 영웅'들이다. 이들은 골수를 제공받았거나 항암치료 후 약물치료로 병세를 이겨내고, 2~3년간 다시 재발되지 않아 전문의로부터 최종 '완치판정'을 받기 위해 모였다. 드디어 영광스런 '완치판정'의 순간. 사회자의 호명에 영웅들이 무대 앞으로 나섰다. 병원장과 의사, 후원단체장이 금메달을 수여하며 축하했다. 어느 누구도 눈물 흘리지 않았다. 함께 자리한 투병중인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듯 더 이상 얼굴에 그늘이 보이지 않았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혈소판 헌혈 공여 뿐 아니라 생일잔치, 투병비지원 등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광주전남 지역본부장 현장 스님은 아이들의 목에 완치메달을 걸어주며 머리를 서로 맞대고 기도했다. "장하고 장하다. 이제 그 힘으로 세상을 맑게 해다오."

현장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세상에는 성(聖)스러운 전쟁이 있다"고 전제하고 "여러분은 자신의 병과 싸움을 하여 이긴 영웅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성스런 존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소아암을 이겨낸 영웅들의 장기자랑시간이 되자 아직도 병고를 이겨내고 있는 형전(16)이가 피아노를 치고 싶다며 사회자에게 요청했다. 초등학교 5학년인 1999년, 형전이는 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반의 치료기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해 하루 종일 집안에 있을 때 피아노가 유일한 친구였다. 이날 2백여 명의 관객 앞에서 연주한 곡은 '케논 연주곡'이었다. 단 두 달간의 피아노 레슨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믿기지 않는 솜씨였다.

그래도 형전이는 운이 좋은 편이다. 2년 전 골수이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 전문의의 완치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재발하지 않는다면 내년엔 영웅칭호를 받으며 완치메달을 목에 걸을 수 있다.

소아암 완치를 축하하는 음식을 마련하고, 매월 아이들의 생일잔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광주전남 지역본부 자원봉사자 백 자인화 보살은 "선진국에서 소아암의 완치율은 80~90%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비가 없어 하루에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소아암으로 죽어간다"며 안타까워했다.

흔히 알려진 바와는 달리 백혈병은 유전이 아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혈액이 있는한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것도 시도때도 없다. 국내에서만 1년이면 1200명의 어린이가 백혈병을 포함한 소아암 진단을 받는다. 어른도 1년이면 3000여명이 혈액암으로 절망한다.

그렇다고 불치병은 아니다. 골수기증만 된다면 대부분 완치된다.

우리나라 골수은행에 등록된 골수기증자는 4만 명 가량 된다. 국내에 소아암환자만 3만 명이니 여기서 서로 맞는 혈액을 찾기란 하늘에서 별따기이다. 전문의들에 의하면 골수이식 기증자가 두배로 늘어난다면 형전이처럼 완치자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날 43인의 영웅들이 보여준 것은 희망이다. 완치된다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겠다는 한가닥 빛. 절박한 순간에도 오직 완치하겠다는 희망.

이렇게 소아암 아이들의 가슴에 붉은 태양만큼이나 강렬하고 힘찬 '해내겠다'는 용기와 희망 속에 새해가 시작되고 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광주전남 지역본부(062)234-6602

광주=이준엽기자



광주 전남 백혈병 소아암 완치잔치

완치 사례

정/솔/빈 (순천 신흥초교 5년)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생각하면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잃은 것도 많았고 배움과 깨달음 또한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어둠의 긴 터널을 하염없이 헤매야 했고 소중한 친구들 선생님, 정들었던 교실과의 긴 이별은 나에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태어나 처음 알았고 너무나 생소한 병명을 접할 때 그저 그런 병이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의 표정은 너무 심각하고 불안해 하셨습니다. 저는 달님과 별님에게 애원하며 빌었습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나와함께 이 시련을 나누어 가지자고" 수 없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고 많은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지치고 약해져만 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불안감과 공포심이 나를 휘감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주사 바늘은 내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몸 안에 들어온 액체는 온몸을 벌집 쑤셔놓듯이 파괴해 갔습니다.

현재가 아닌 먼 과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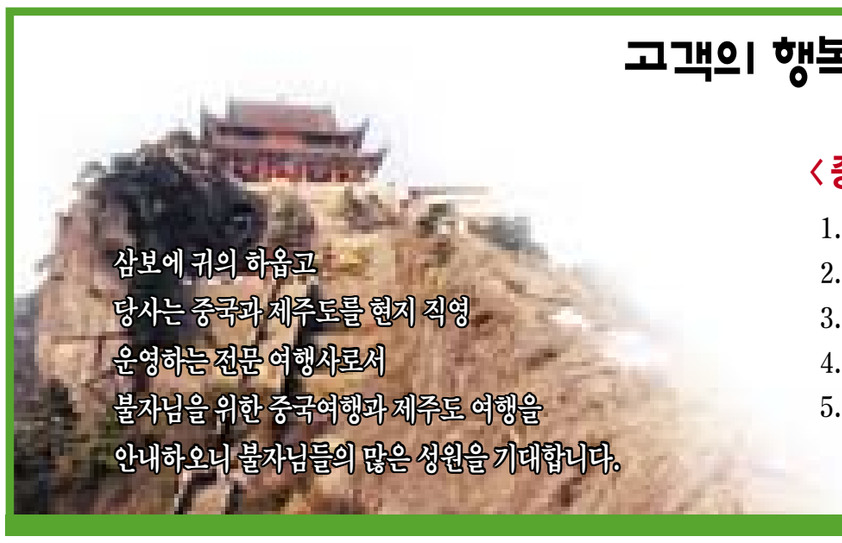
드디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만들기 위해 2년 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던 골수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던 악마들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육체로 탈바꿈 되어갔습니다. 완전한 승리이자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고 따뜻하답니다.

소중한것들과의
이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달님, 별님에게
지켜달라 애원했지요
새롭게 태어난것 같아
행복합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20-8489



〈 중국 4대 불산 성지순례 〉
1. 관음보살 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5만원
2. 지장보살 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보살 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79만원
4. 문수보살 도량 - 북경 / 오대산 / 운강석굴 69만원
5. 관음도량 과 지장도량 순례 8일 125만원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

설날 특별전세 항공편으로 떠나는
중국 역사고찰 성지순례 5일 449,000원
▷ 소림사 · 용문석굴 · 백마사
▷ 출발일 : 2004년 1월 22일(木) 오후 21:00 인천공항

〈 국내 - 제주도 사찰순례 〉
1. 산사체험과 역사유적 답사 3일 21만원
2. 마라도와 한라산 등반 3일 25만원
3. 마라도와 우도팔경 3일 27만원
- 제주도 일정은 제주 4대 사찰순례가 포함 되었습니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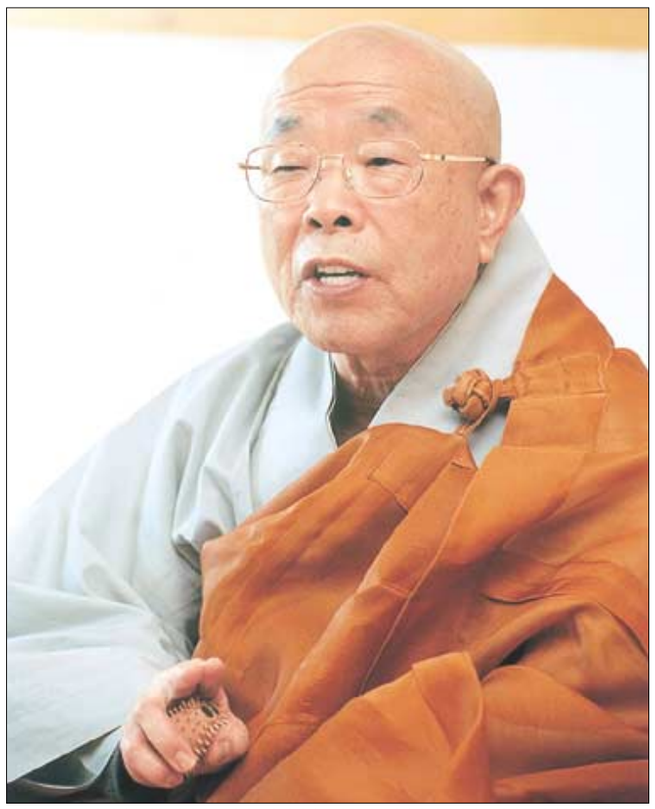


새해맞이 특별법석

지난 12월 13일 본사는 애독자 300여명과 함께 해인사 퇴설당에 주석하고 계시는 조계종정 도림 법전 스님을 예방했다. 2004년 새해를 맞이하며 종문의 종장에게 인사를 드리고 독자들에게 조계종정 스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였다. 본사의 예방 요청에 종정스님께서는 흔쾌하게 허락하여 주셨으며, 70여분에 이르는 장시간 동안 사자후를 들을 수 있는 광영을 주셨다.

종정스님이 계시는 퇴설당은 해인사 법당 좌측에 자리 잡고 있다. 13일 12시 40분 40여명의 일행들은 퇴설당에서 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기 위해 입방했다. 방은 작지만 정결했으며, 벽면에는 특별한 장식도 보이지 않았다. 눈길을 끄는 것이라면 '사중득활(死中得活)'이란 액자였다. 죽음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라니,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크게 발심하고 의심없이 정진하라
백척간두서 한걸음 더 나가야 산다



◇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새해에는 더욱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질문: 큰스님을 선객들은 절구통 수좌라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그간에 특히 기억에 남는 수행담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법전스님: 나는 14살에 출가하여 17살에 수계를 했어. 이후 절에서 허드렛일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23살부터 강원을 거쳐 선방에서 수행을 하게 되었지. 그럭저럭 강원에서 문자를 깨치고, 선방을 거쳐 남들이 하는 이력을 마치게 되었지만 강원을 마친 이후는 죽 참선수행에 몰두해 왔어.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수행이라면 아무래도 경북 문경군에 있는 사불산 상원사의 작은 암자인 묘적암에서 수행할 때일꺼야. 그때 33살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본래면목을 밝히지 못하고 밥만 축냈다고 생각하니까 밥통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급함이야. 그래서 할일을 마치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부모형제를 떠나 출가했는데 그때까지 입으로만 수행을 했다는 강한 회의감이 나를 질누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디가서 일대사를 해결할까 하고 인연처를 찾다가 고려말의 유명한 고승인 나옹 혜근 스님이 삭발한 상원사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지.

당시 상원사 묘적암은 빈한하기 짝이 없었어. 그나마 칠성각을 보호하는 47명의 계원들이 있어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 인근의 아낙들이 쌀자루를 이고 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 것이 전부였어. 내가 그곳에서 정진을 하려는데 이들이 오면 방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당도하자마자 절문을 닫아버렸어. 칠성불공을 해줄 수 없으니 오지 말라고 선언해 버렸지. 다행인 것은 그곳에 쌀 2가마가 있었어.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지. 저 쌀이 떨어질 때까지 할일을 마치지 못한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 30이 넘도록 허송세월 했는데 다시 식충이 될 수 없다는 마음은 결연했지.

일절 딴 신경을 안 쓰고 화두 하나에 매달렸지. 낮에는 썩은 나무 베다 나르고, 장작 패는 것 이외에는 화두에 전념했어. 밥 짓는 시간이 아까워 한꺼번에 잔뜩 해서 시렁에 바쳐 놓고 삼베 보자기를 그 위에 덮어 두었어. 배가 고프면 그것을 맹물에 말아 먹는 거야. 반찬이란 김치 두 쪽으로 충분했어. 밥그릇도 씻지 않고, 세수나 변도, 목욕도 하지 않았어. 방에는 찬 기운만 돌지 않을 정도로 해놓고, 이불도 없이 날이 새는지 밤이 오는지도 잊고 화두에 빠져 들었지. 그렇게 석달여 용맹정진을 한 뒤 죽지 않고 산에서 내려왔어.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야.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세상사 모든 것이 마찬가지야. 남이 놀 때 놀지 않고, 남이 게으를 때 게으르지 않으면 올 것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의심해선 안돼. 수행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해.

남 놀때 수행하면 '올것' 반드시 와
가진것 이웃에 나눠주는게 진정한 불공

불교를 믿든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든 종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설픈 잔꾀나 술수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을 위해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지.

중국 송나라 시대에 양지라는 스님이 계셨어. 이분은 양지파라는 일파를 만드는 대종사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자명 선사를 모시고 40년간 원주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어. 원주는 절에서 대중스님들을 위해 밥 짓고 빨래하고, 아픈 사람 수발들고 하는 일이야. 그런데 양지스님이 원주를 살았던 절에는 스님들이 4천여명 거주하고 있었다고 해. 보통 10여명이 사는 선원에서도 원주를 두 철정도 하면 도망가려고 할 정도로 힘든 일이야. 그런데 40년을 원주로 살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양지스님은 자명선사를 모시고 원주로 살은 40년간 단 하루로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자명선사를 찾아가 문안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한 뒤에는 반드시 도가 무엇인지 물었어. 특이한 것은 양지스님의 한결같은 질문에 자명선사의 대답 역시 한결같았다는 사실이야. "이 사람아, 원주나 잘하게" 이것이 40년간 이어지 자명선사의 대답이었어.

40년이 지난 어느 날 양지스님은 인내력의 한계를 보이게 되지. 그날 아침에는 양지스님이 자명선사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어. "스님께 법을 배우고자 40년간 원주를 살았는데 스님은 법문은 안 해주고 원주만 잘 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자명선사는 이렇게 대답해. "이 사람, 난 자네에게 항상 법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이 대목에서 양지스님이 확철대오했다는 거야.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평상심이 도라는 중국 선종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 대목이다. 도라는 것이 세간을 떠나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큰스님은 경책을 잊지 않으셨다. 불자들이 양지스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가져야 참 불자가 될 수 있다는 거다. 포교도 마찬가지란다. 책만 보고 말만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수행이 몸에 익고 그로 인해 인격이 갖추어져야 포교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조주스님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조주스님은 마조도일스님의 제자인 남전보원 스님의 제자이다. 강원도 영월 법흥사에 신라말에 흥령선원을 개창한 철감선사의 스승이 남전스님이므로 우리나라 불교와 무관하지 않다.

▲법전스님: 중국에서 조주스님은 80이 넘어 중국 천하를 유람하며, 공부 잘하는 스님에겐 찾아가 배우고 공부가 부족한 스님들에겐 가르쳐 주지. 어느 날 투자산에 살고 있던 투자대동 스님을 찾아갔어. 법을 듣기 위해서 였지. 투자스님은 기름 때 묻은 옷을 입고 조주스님을 맞이했어. 투자 스님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선문의 법규에 따라 깨 농사를 지은 뒤 기름을 짜 팔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어. 장삼도 가사도 입지 않고, 다 떨어진 누더기 옷에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 조주스님이 그런 투자스님에게 공손하게 질문을 했어.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 부처·조사 따로 있다면 불교가 아니야"

"밤에는 다니지 말고, 날이 새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적어도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

▲질문: 스님께선 최근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라는 법문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스님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 경계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법전스님: 그런 경계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라는 것이 무슨 뜻이야?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곳에서 더 나간다는 소리는 떨어져 죽는다는 말과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해야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곳에 무슨 말과 수사가 필요하겠어.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인데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나를 떠나 부처나 조사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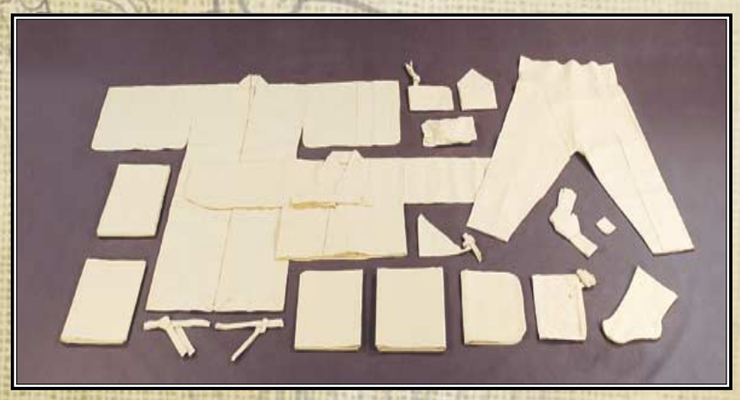
▲질문: 스님 사불산 묘적암에서 수행할 때 화두에 몰두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화두를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법전스님: 조주스님의 '무'자 화두를 들었지. 무자 화두는 우리나라 선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2004년 갑신년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살아생전 부모님께 건통삼베 「가가 孝 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 장매, 악수, 버선, 도포끈, 베개, 허리띠, 댓님, 오낭, 면모, 행전, 턱받이, 면포, 마스크 (총 21종)
•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단속곳, 치마, 이불, 요, 장매, 베개, 원삼띠, 면모, 악수, 버선, 오낭, 턱받이, 면포, 마스크, 족두리 (총 20종)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큰일을 당하고 나서 허둥지둥 장의사에 급하게 만든 수의(壽衣)가 어련하겠습니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꼼꼼하게 따져가며 제대로 된 수의(壽衣)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불효(不孝)가 아니라 최고(最高)의 효도(孝道)입니다. 수의(壽衣) 중에서도 윤년수의(閏年壽衣)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起源)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가가수의의 특징

- 가가수의복은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소가 아닌, 수의를 만드는 수의제조 공장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거의 없으므로 수의의 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 20년 경력의 전문기술자가 직접 주문된 수의를 제작합니다.
- 미리 만들어 놓은 수의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받은 후에 수의를 제작합니다.
- 주문한 수의의 제작과정을 직접오셔서 보고 가져갈 수 있으므로 믿을 수 있습니다.
- 수의의 특이점(치수, 삼베의종류, 부분제작 등)들을 미리 주문해 주시면 아래제품에 없는 수의라도 문제없이 만들어 드립니다.
- 재봉에 사용하는 실은 100% 면사만을 사용합니다.
- 수도권은 24시간 내에 제작,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송해 드립니다.

품 명	구 성	재 질	가 격
특1호 대마A급	남 21종, 여 20종	중국 기계직	550,000원
중1품 안동포(중국)	남 21종, 여 20종	중국 수제직	1,700,000원
정1품 안동포(국산)	남 21종, 여 20종	안동 수제직	4,200,000원

※ 멧베는 별도입니다.

가가수의 | www.OKhemp.com | 서울시 은평구 응암 4동 721-10 Tel : 02-375-6495 / H · P 011-9947-2750 고객센터(무료) 080-2002-4468



◇ '절구통 수좌' 란 애칭으로 끊임없는 정진의 가풍이 대변되는 법전스님은 평생 '무' 자 화두를 들고 수행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새해맞이 특별법석

법전스님이 12월 23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한 가르침

"자기 절복으로 국민을 섭수해야 진정한 화합"

▲이 땅은 갈등과 이해의 충돌 속에서 각자의 목청만 돋우고 있는 현실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견화경(見和敬) 이화경(利和敬)이 없는 까닭입니다. 견화경은 견해를 함께 하는 것이요, 이화경은 이익을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동견(同見)과 동리(同利)는 서로의 참음을 통하여 서로 화합하고 서로 공경함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은 자기절복(自己折伏)으로 모든 국민들을 섭수(攝受)하고 포용하여 갈등을 통합하고 원융정신으로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내야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마저 하나의 이기집단으로 자기 목소리만을 낸 것이 현재의 모든 불화합의 근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인이 말하길 항산(恒産)이어야 항심(恒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도 경제와 바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경제회복을 꾀하되 성장과 분배의 올바른 원칙을 확립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빈부격차의 해소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함께 살핀다면 이 역시 화합의 또다른 방편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받들면 국민도 정부를 받들게 됩니다.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게 조계종 정종 법전스님의 법문을 듣는 애독자들과 본사 직원.

참선은 전쟁터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사불산 묘적암 수행시절 기억에 남아

"3천배 해야 화두 배우는데 오늘은 외상" 웃음

화두라 말할 수 있어. 조계종의 중흥 조사 중의 한 분인 고려말엽의 태고 보우 스님은 처음에 "모든 존재는 하나로 돌아간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화두를 참구하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 뒤에 중국에 들어가 석옥청공스님을 만나게 돼. 석옥청공스님은 임제스님의 법손으로 알려진 인물이야. 작은 움막같은 천호암에서 늘 혼자 자연을 벗삼아 수행하고 살았어. 황제가 법문을 청해도 나가지 않았지. 그런데 태고 보우 스님을 만나자 한 눈에 법기임을 알아보고 인가를 해버렸어. 그리고는 "오늘부터는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내 법은 태고 스님에게 전한다"고 했지. 태고스님은 종지를 확실하게 세우셨어. 그런 그분도 무자 화두를 통해 본래 면목을 확인했던 거야.

▲질문: 역대 조사 스님들 중에서 어느 스님을 가장 존경하시는지요?

▲법전스님: 수많은 조사스님들이 계시고, 그분들 모두에 대해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분만 꼽으라면 조주스님을 꼽을 수 있지.

▲질문: 저 역시 조주스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던 관음원(지금의 중국 하북성 조현에 있는 백림선사)을 찾아가 하루 밤을 묵으며 그분의 향취를 맡고자 했던 적도 있습니다. 스님을 뵙게 되면 "모든 존재가 하나로 돌아간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萬法歸一 一歸何處)"에 대해 여쭐 수 있는 일은 아니지. 부처님 말씀처럼 실천궁행하며 살 때 가능한 이야기야. 예컨대 복 많이 달라고 억만금을 싸들고 해인사 법당에 찾아와 불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참불자가 되는 것이고, 부처님에게 복을 받아 가는 것은 아니야.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서울 시내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서럽고 외로운 사람,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 마음과 내 가진 것을 나누워 주는 것이 진정한 불공이지. 그런 삶을 산다면 그야말로 성불은 하지 못해도 참 불자라 부를 수는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참 불자가 되는 길을 물고 싶었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스님: 그래 좋은 질문이군. 내 가르쳐 줄터이니 내 앞으로 나오시게.

▲질문자가 스님 앞으로 나가자 스님께선 엎드리라고 하고는 질문자의 등을 세 번 두드렸다. 알았는가? 하는 스님의 말씀에 질문자는 말없이 합장 예배하고 물러나 앉았다.

▲질문: 큰스님, 참 불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지요?

▲법전스님: 21세기는 부처님처럼 존경 받으며 사는 것이 불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야. 부처님처럼 존경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쉽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우선 참다운 수행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수행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어. 힘들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해봐. 서산스님은 "차라리 한 평생 천치가 될지언정 속빈 강정은 되지 않으리라"는 말을 했어. 그것은 문자법사가 되느니 차라리 천치가 되겠다는 의미인데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야. 수행이라면 절에서 해야지 어떻게 집이나 직장에서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야. 자신이 게으르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지. 참다운 수행은 선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야. 집이든 직장이든 시장이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야. 나는 6.25 사변 때 경험했어. 해인사에 살았는데 해인사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총알과 박격포탄이 날아 다녔지. 그 속에서 참선했어. 참선이란 전쟁터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도 참선할 수 없어.

두 번째 참 불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발심하는 일이야.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그렇지만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지. 부처님께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출가하여 인천의 스승이 되었지. 사무친 마음이 있었기에 뼈를 깎는 수행을 했어. 그런데 요즘은 폼으로 출가하는 것 같아. 남보기 좋으라고 절에 가고, 남을 의식해 참선한단 말이야. 그것은 잘못된거야. 진정한 발심이 있어야 해. 자발적으로 신심이 우러나서 생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발심 말이야.

▲이상의 질문을 마치자 스님은 그 자리에 참석한 대중들을 위해 화두를 주시겠다고 했다. 흰 종이에 <<조주어록>>의 한 구절을 복사한 것이었다. 내용은 어느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고 묻자 '없다(無)' 고 대답하는 것이다. 바로 무자 화두의 내용이다. 그리고는 "내게 화두를 배우려면 3천배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단체로 왔으니 외상으로 화두를 준다"고 하시고, 뒤에 반드시 3천배를 하라고 당부하시며 너털웃음을 웃으신다.

▲법전스님: 조주스님의 무자 화두를 주었는데 이것을 깨치면 수행도 포교도 잘할 수 있으며, 참 불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지.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 여러분 중에 부처님을 친견한 적 있는 사람 손들어 봐. 조주스님의 무자 화두를 관통하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돼. 공부 열심히들 해.

정리=차차석 상임논설위원 · 사진=고영배 기자

현대불교 창사 10년 축하

천수천안의 자비로 정론직필 힘써주길…

우선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언론이 난무하는 시대지만 언론의 필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불교 언론인하면 언론인이자 불교인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언론이라는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전문지' 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전문가를 우대하는 시대이니만큼 전문지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을 날이 당도해 있다고 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천수천안관세음보살과 같은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국내외의 불교계 소식과 다양한 불교문화를 한 장의 종이 위에 펼쳐서 독자들에게 기쁨과 새로운 정보를 준다는 것 자체가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천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의 올바른 시각과 천개의 손을 가진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른 눈과 바른 손은 바른 법을 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필수조건입니다.

언론은 잘못을 고쳐주는 파사현정의 파천검(破天劍)이 되어야 합니다.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韓國佛教 太古宗

■ 元老會議 議長 金一宇
副議長 李寶峰
副議長 林元法

■ 總務院長 李雲山
副院長 尹慈月
副院長 禹慧空
副院長 文普經

● 企劃監査室長 金法宣
● 總務部長 金越海
● 教務部長 閔法顯
● 財務部長 任乘照
● 社會部長 片白雲
● 事業部長 金一蘆
● 糾正部長 金慶潭
● 教任部長 高東佑

■ 中央宗會議長 朴印空
副議長 成圓峰
副議長 鄭大隱

■ 中央護法委員長 金法藏

▶총무원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9-16번지 02)382-7361~3 FAX 02)382-9852

대한불교 천태종

종정 김도용 대종사

종정사서실장 이문덕

총무원
총무원장 전운덕
총무부장 박덕수
교무부장 변춘광
재무부장 남궁도재
교육부장 김용암
사회부장 김무원
규정부장 조진덕

종의회
종회의장 윤덕산
종회부의장 장도정
종회부의장 박노승

감사원
감사원장 주정산
감사위원 김경천

중앙신도회장 김유혁
금강대학교총장 박봉식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
종전연구원장 김영태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전화 043) 423-7100~8 / 팩스 043) 420-7399



(사)한국불교미륵종 종정예하 주석사찰

대 인 사

조 실 운허연화
주 지 송정

신도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659
TEL 055)375-2076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관 음 정 사

주 지 윤송정

신도일동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
TEL 055)345-4741

(사)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의장 주석사찰

천 장 사

조 실 강연봉
주 지 김혜법

신도일동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이전리 134
TEL 054)873-3912

(사)한국불교미륵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지장기도 참회도량

용 연 사

주 지 김영각

신도일동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73-15
TEL 055)337-0408
FAX 055)338-4408

(사)한국불교미륵종 교육원장 주석사찰

태 봉 사

조 실 석정업
주 지 수 덕

신도일동

■울산시 울주군 온양면 삼광리 608
TEL 052)287-6952

(사)한국불교미륵종 사무총장 주석사찰

약 사 암

주 지 이보성

신도일동

■경남 진해시 충무동 25-11
TEL 055)547-3469

(사)한국불교미륵종 재무부장 주석사찰

도 명 암

주지 권묘각

신도일동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1-11
TEL 02)351-3679

(사)한국불교미륵종 규정부장 주석사찰

심 복 사

주 지 박혜종

신도일동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 807
TEL 02)577-0007, 578-5507

(사)한국불교미륵종 서울·경기종무원장 주석사찰

"군포교의 정법도량"

보 명 사

주지 마 덕(영 탄)
총무 법 성

신도일동

■서울시 은평구 녹번2동 28-61
TEL 02)352-0206

(사)한국불교미륵종 경북종무원장 주석사찰

지장천도기도도량

자 운 사

창 건 주 배태선 김영진
주 지 혜 연
공 덕 주 최원보 김미자
지 장 회 장 김정토화
관 음 회 장 이영희
방 생 회 장 조용우
불사추진위원장 박성태
부 위 원 장 최운식
위 원 회 최정수 김보화
김미옥 최외덕
오성일 박진열 최재원

신도일동

■경북 경주시 조양동 527
TEL 054)746-7025

(사)한국불교미륵종 경남서부종무원장 주석사찰

불 동 암

주 지 행 인

신도일동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신흥1458
TEL 055)746-9286

(사)한국불교미륵종

법 우 회

고 문 윤송정
회 장 이보성
등반대장 이해산

회원일동

■경남 진주시 진해시 충무동 25-11
TEL 055)547-3469

(사)한국불교미륵종

지 광 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127-39
TEL 02)856-3879

(사)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의원 주석사찰

천 도 사

주 지 천 명

신도일동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27-37
TEL 031)565-4620

(사)한국불교미륵종

보 화 선 원

주 지 보 화

신도일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07-60
TEL 02)582-8537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종 정 운허 연화

총무원장 윤송정

감 찰 원 장 김 영 각

교 육 원 장 석 정 업

원 로 위 원 장 혜성, 혜동

사 무 총 장 이 보 성

사회부장 권마하

교무부장 이혜경

재무부장 권묘각

규정부장 박혜종

중앙종회의장 강연봉

중앙종회부의장 조월상

중앙종회의원
강연봉 전지연 정동성
이해산 전법일 정혜덕
권묘각 이혜경 권마하
박혜종 윤천명 김청화

서울 경기교구 종무원장 박영탄

대전 충남 북교구 종무원장 이해산

경남 중부교구 종무원장 강영운

경남 서부교구 종무원장 행 인

비 구 니 회 장 정동성

▶미륵종 총무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11-11
TEL 02)351-3679 / 홈페이지 www.mireuk.org

▶중앙교육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698-1
TEL 052)264-6487~8

▶부산연락사무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91-1 해양빌딩 203호
TEL 051)466-3977 / FAX 051)442-6770

(사)한국불교미륵종
금 강 사
주 지 혜 경
신도회장 김 상 길 총무 김공덕화, 황홍운
관음회장 문청정화 총무 이무상심
약사회장 정자광심 총무 강향곡
지장회장 이관음심 총무 이성덕화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976
TEL 051)293-0137 / 080-2002-108

(사)한국불교미륵종
도 선 사
주지 도 천
신도일동
■ 경북 구미시 원평2동 169-6
TEL 054)444-1072

(사)한국불교미륵종
지 원 정 사
주지 지 원
신도일동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88번지
TEL 043)534-1220

(사)한국불교미륵종
지장기도도량 **용화정사**
주 지 성시경
신도회장 오혜민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216
TEL 031)768-0076

(사)한국불교미륵종
구 민 정 사
주 지 혜 문
(참사랑 장애노인 복지회)
(부산불교 장애인 연합복지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123번지
TEL 051)941-0295~6

(사)한국불교미륵종
팔각산 팔각사
주지 혜 정
신도일동
■ 경북 청송군 부동면 항리 194
TEL 054)873-4120

(사)한국불교미륵종
고 운 사
주지 무심화
신도일동
■ 경남 김해시 외동 673-10
TEL 055)335-5887

(사)한국불교미륵종
금 강 정 사
주지 금 강
신도일동
■ 대전시 중구 선화동 11-1
TEL 042)223-2718

(사)한국불교미륵종
약사여래불 기도도량 **불 곡 사**
주지 혜 연
신도일동
■ 경남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822
TEL 055)636-2414

(사)한국불교미륵종
나무아미타불 기도도량 **정 토 원 정토선원**
주지 장고봉
신도일동
■ 대구시 동구 중대동 561
TEL 053)984-0409

(사)한국불교미륵종
장 곡 사
주지 득 봉
신도일동
■ 울산시 동구 일산동 533-52
TEL 052)232-5939

(사)한국불교미륵종
청 량 암
주 지 지 산
창건주 이향숙
신도일동
■ 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309
TEL 055)673-3818 / 672-2882

(사)한국불교미륵종
약사여래불 **선 자 암**
주지 행 각
신도일동
■ 경북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 459
TEL 054)763-0309/761-1449

(사)한국불교미륵종
구 담 사
주지 원 광
신도일동
■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산2-1
TEL 043)833-1688

(사)한국불교미륵종
태 종 사
주지 정 담
신도일동
■ 강원도 횡성군 강림2리 2120
TEL 033)342-7444

(사)한국불교미륵종
용 화 사
주 지 정동성
신도일동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1237 TEL 055)382-3390
용화사 부산 포교원
주 지 정동성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300-60 TEL051)522-7915

(사)한국불교미륵종
청 룡 사
주지 장혜성
신도일동
■ 경북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33
TEL 054) 873-5744

(사)한국불교미륵종
"가평군 미륵성지 불사중인"
대 원 정 사
조실 월 산
주지 무 명
신도일동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2리 255
TEL 031)593-9718, 594-7779

(사)한국불교미륵종
수 덕 사
주지 법 련
신도일동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956
TEL 043)836-6770

(사)한국불교미륵종
현 통 암
주지 혜 도
신도일동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죽월리 440
TEL 055)356-7879

제9회 신행수기 수상자 명단

- **대상(유마상)**
  박수영 '백 여덟 번째의 기회'
- **현대불교신문사장상(우수상)**
  배장환 '아버지'
- **특별상(종단협의회장상)**
  정상구 '해회처(解悔處) 가는 길'
- **특별상(천태종 총무원장상)**
  향광행 '세 자매의 부처님'
- **특별상(관음종 총무원장상)**
  박길복 '그리운 님 황금의 동상'
- **특별상(총화종 총무원장상)**
  김갑숙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온다'
- **특별상(진흥원 이사장상)**
  채상희 '언어도단의 세계를 언어로…'
- **특별상(신수회장상)**
  최봉종 '나유타'

당선 소감



박수영
(주부 / 대구시 동구)

불교를 신앙으로서가 아닌 진리로서, 모두와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모로 능력이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불심의 기본적 시각, 마음의 자세, 불교와 문학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접목시키다가 신행수기를 만났습니다. 제 소망의 첫 삽을 떠올리며 실패의 짜릿한 경험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 동안의 방황이나 어려움이 단번에 위로와 보상을 받는 기분입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숨은 곳에서 보시, 봉사활동 등 보람되고 가치 있는, 훌륭한 신행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리 내어 떠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내심 우려를 했습니다만 저 나름의 귀중한 체험을 모든 분들께 알리고 동참을 권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불자님들의 신심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된다면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창간호부터 열심히 구독한 결과로 이런 큰 상을 부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의 주장자를 굳건히 세우며 불자님 모두의 마음 속 주인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함께 나아가자고, 심사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인공 감사합니다.

실패도 '공부'임을 알리고 싶어 응모
불자들 신행에 도움된다면 영광

백 여덟 번째의 기회

박 수 영 (주부 / 대구시 동구 신천4동)

1997년 IMF 관리체제가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였다. TV를 비롯한 모든 매스컴에서는 생소한 단어들이 넘쳐났다. 'IMF', '구조조정', '모라토리움'. 우리네 소시민들은 휘둥그레 눈을 떴다. 이게 무슨 난리인가? 나도 엉거주춤 시류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긴, 너무들 흥청망청 했었지', '진작에 모두들 정신 차렸어야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높여 책임을 전가시키기에, 서로를 원망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다른 모든 경제적 타격은 제쳐 두고라도 나에게는 군 제대를 코앞에 둔 아들이 있었다. 당장 취업 문제가 다가왔다. 제대 후 졸업을 하면 적당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리란 수순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있었다. 그러면 모든 어려움은 일시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매스컴의 야단법석에 비례해서 마음 속 불안지수도 높아만 갔다.

아들이 제대하기 전 무작정 108배를 시작했다. 그것은 어떤 발원이라기 보다 내 마음의 불안을 잠재울 한 가닥 희망의, 최선의 수단이었다. 그냥 불교 신도란 호칭만 달고 다닌 지 십수 년이 되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편리할 때도 있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던가? 어떤 때는 어쭙잖은 설득이나 회유, 강요도 했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불심, 확실한 신념이 없는 이론은 말놀이에 불과할 뿐, 빈 바람벽처럼 공허했다. 나의 얄팍한 지식이나, 절에 다닌 세월의 숫자만큼이나 아상(我相)만 높아져갔다.

'부처님 아들의 취업이 걱정됩니다.' 기복(祈福)에서 출발한 내 기도는 108 번뇌를 넘나들며 '과거, 현재, 미래, 욕심, 허세, 집착 등 모든 인간사 속성의 구석구석을 훑고 뒤지며 형식적인 108 번의 절로서 마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어떤 날은 '이게 기도가 아닌데…,' 라는 자각이 슬며시 들었으나 늦은 밤, 절을 시작하면 마음은 또 다시 허욕의 물살 속을 허우적거렸다.

유년은 아주 병약(病弱) 했었다. 초등학교 시절, 신학기 몇 날은 항상 결석해 제대로 정해진 내 자리에 앉아 본 기억이 별로 없었으며, 소심한 성격을 점점 더 위축시켰다. 체육시간에는 외톨이로 운동장 귀퉁이 꽃밭에서 사금파리로 금 긋기를 하며 지낸 기억, 제법 키가 커진 5학년 때 외할머니의 등에 업혀서 학교 간 부끄러운 기억, 반쯤 밖에 다니지 않은 중학교 1학년 때 '4등'이 적힌 통지표를 보시고, 무뚝뚝한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기억 등…. 나는 항상 '병골이', '약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숫기 없는 아이로 인식돼 뒷줄로만 다녔다. 결혼 후에는 조금 나아졌지만 '기관지 천식'을 천형인 양 평생 달고 살아가는 내게 요령 없는 108배는 무리였는지 처음 얼마동안은 심한 몸살을 앓았다. 숨이 가빠질 때는 다반사였고, 무릎이 아파 약을 붙이기도 했다. 어떤 날은 절하기 싫어 괜히 방안을 서성이기도 했고, 피로회복제를 꺼내 마시기도 했다. 예전에는 '성철 스님의 30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배는 어렵사리 한 적도 있었는데….



그림 / 문병성

108배 계속하여 부처님만 생각하게 돼
천식에 시달리면서 의심 덩어리는 커지고…
"너무도 먼길을 굽이굽이 돌아왔습니다"

'몸이 있어야 마음도 있는 거야'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야'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절을 할게요.' 육체적 고통은 차치하고라도 식구들은 별의별 이유를 붙이며 만류했지만 나 또한 '한국 아줌마의 자식에 대한 집착' 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 저런 사연을 만들며 108배는 습그머니 내 생활의 일부분으로 녹아들었다. 차츰차츰 흔들림도 줄어들고 그 많던, 거미줄 같이 얽혀 나를 옥죄던 잡다한 생각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언제부터인가 108배를 할 때 잡념이 없어졌다. 그냥 부처님께 절을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만이 무작정 좋았다. 이런 것이 무념(無念)일까? 나도 무슨 발원(發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의식적으로 생각을 모아 발원을 해 보지만 어느새 마음은 무념 상태가 되어가곤 했다. 신기했다. 그렇게 나를 싸고 있던 걱정, 불안, 욕심 등이 108배를 할 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부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20분은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 행복하기까지 했다. 물론 평소에는 누구를 흉보다가, 시린 무릎 걱정하다가, 생각으로 기약 없는 열두 채 기와집도 지었다가, 뒤죽박죽이었지만.

'1000일을 마치면 그만 두어야지'라는 생각도 1,000일이 지나자 욕심인지 집착인지 그만 사라졌다. 그리고 나의 108배는 계속됐다. 그 사이사이 걱정거리가 생기면 '300배로 7일 기도를 해야지', '300배로 100일기도를 해야지' 등의 생각을 키우며 욕심을 늘려갔다. 여하튼 기도에 탄력이 붙었다고나 할까? 기도시간이 즐거워지며 기다려질 때도 있었다.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근하신년 清心淨土

即身成佛 現世淨化

한국밀교의 대표종단 진각종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總印 慧一

統理院長 孝庵 宗議會長 鎭山
教育院長 惠淨 查監院長 烋明

대한불교 진각종
http://www.jingak.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대표전화 : (전국)1588-5525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大韓佛教 觀音宗

宗正 南天 竹山

司書室長 李曉天

總務院長 李泓坡
副院長 金智攝

總務部長 黃法明 教務部長 李法炫
總務局長 李大光 教務局長 李道悟
財務部長 朴智悅 社會部長 趙法護
財務局長 朴智性 社會局長 李道覺
監察部長 金垈弘
監察局長 李義禪

宗會議長 鄭法輪
副議長 朴松月

教育院長 金東靈
修教部長 陳大明 譯經部長 具普覺
修教局長 辛性法 譯經局長 金玄山

布教院長 鄭法性
布教部長 柳牛耕 組織部長 權宗一
布教局長 金玄觀 組織局長 林法京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전화 : 02) 763-3345. 0054 / Fax : 02)763-5851

시시비비에서의 명확한 결론, 낯선 상대에 대한 강한 거부감, 용서나 실수에 대해 인색한 고정관념, 형상화되어 질 정도로 굳어가던 이기심 등이 한 겹 두 겹 벗겨져 나감을 느꼈고 지나치게 신중하고 모든 일에 생각만 많은 나 자신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던 나의 단점들이 수긍이 됐고 그 개선의 여지 또한 보이기 시작했다. 아울러 소심하고 위축되어 있던 나의 또 다른 부분은 스스로 다독여졌다.

그러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예전엔 조금만 피곤해도 숨이 가빠지고, 가벼운 감기 증세도 빠르게 천식으로 옮아갔었다. 밤에 자다가도 숨이 조여들면 앉아서 밤을 새울 때가 많았다. 기도(氣道)를 넓히는 흡입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녔다. 또 빈혈이 심해 길에서 쓰러져 '119'에 실려 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여러 증상들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나아졌다. 차츰 투약 횟수가 줄어들어 1주일 분의 약으로 한 달을 지내고 6개월을 견디게 되었다. 맹세코 나를 위한 기도는 한번도 없었다. 아이들의 일을 비롯한 다른 여러 집안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제 자리를 잡아갔다. 가슴 속 밑바닥에서 감사함이 일어나 서서히 확신으로 바뀌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불신했으며 거부했었던가? 그래도 나는 역시 부처님 자식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딸 들을 낳고 아들을 소원하신 친정어머니에게 환한 금빛 물살이 퍼지는 둑 위에서 발가숭이 계집아이를 안겨 주셨다고 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불심이 남다르신 어머니를, 알량한 지식을 내세우며 외면했었다. 참 너무도 먼 길을 굽이굽이 돌아왔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겸손으로, 하심으로, 환희심으로, 또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찾아왔다. 부처님 법이나 진리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나 의문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어떤 체계적인 지식이 없어 많은 방황을 했다. 참선에 대한 호기심에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 손에 잡히는 대로 여러 경전들을 읽고 외우며 가끔씩 큰스님 법문도 경청했다. 예전 얼마간의 교사생활의 연장선에서 였는지, 사회의 어떤 문제보다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많아 자연스레 108배'는 우리들의 아이들, 특히 그날그날 머리에 떠오르는 장애아, 소년 소녀 가장 등 불특정의 아이들에게로 옮아갔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에 감히 가까이 다가서는 것인가? 하잘 것 없는 내가 무슨 큰 힘이 있어 도움이 되겠냐마는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그 근기에 맞게 어떤 방편으로든 나투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부처님께서는 내게 참 많은 것을 주셨다. 건강한 몸을 가지지 못한 데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서 일까? 예전에는 부정적 시각이 나를 옭아매었다.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여, 똑같이 있는 반 컵의 물도 속절없이 기분이 맑은 어떤 날은 반 컵이나 물이 남았다고 신명을 내다가, 또 까닭 없이 우울한 다른 날은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로 세상에 주눅 들며 형편없이 위축되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 법문을 들었다. 그러면 이리저리 날뛰던 두렵고 초조하던 마음이 어느 틈에 안정되며 콧노래가 나왔다. 생활이 차츰 즐거워지며 세상을 보는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어갔다.

특히 마음 속에서 '계산'이 없어졌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절약이나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기며 산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이다. 8만 원이 모이면 10만 원을 만들고 싶고 90만 원이 되면 100만 원으로 채우고 싶은 소박한 마음을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은 가지고 있다. 치밀한 성격의 나도 한 달의 수입에서 기독교의 십일조(十一條) 마냥 내 나름의 정해 놓은 액수를 넘지 않고 불전을 기복(祈福)의 한 가지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했다. 나의 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계산되어진 보상이나 대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절에 갈 때마다 불전 때문에 자주 갈등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것은 기복도 보시도 아니었다. 앞으로의 나나 가족을 위한 든든하고 확실한 저축이었다. 내가 누구에게 베풀다니, 그 베품의 밑바닥에 나의 아상(我相)은 없었는가? 과연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는가? 너무도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부끄러움과 반성이 교차되었다.

무주상보시(無住想布施)를 생각했다. 혹시라도 내 안 구석 어딘가에 아상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아 느슨해지는 마음을 다잡는 심정으로 정근, 사경도 병행했다. 감히 참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면벽(面壁) 흉내도 냈다.

그래서 나는 남이 갖지 않는, 어떤 사고나 위험으로부터도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줄 나 혼자 만의 비밀스러운 우주은행에 저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니 미약하나마 '텔레 뱅킹' 등으로 어떤 기관에 송금할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때는 즉흥적인 송금 후 일말의 후회를 한 적도 있었다. 비록 형체는 없으나 진리의 세계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엄연히 존재하는 당연한 사실인 것을 여태껏 모르고 살았다. 절에 갈 때 불전 함에 넣는 '금액'에 대한 아쉬움이나 망설임도 없어졌다. 돈으로도 해결 못할 미래에 대한 막연하던 불안도 걱정도 두려움도 사라졌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 저금통장'에도 빨리빨리 잔액을 불리고 싶었다. 혹시라도 미래에 있음직한 위험에 내 통장의 잔고가 모자랄까봐, 이렇게 내 마음을 바뀌게 해준 '주인공'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과 몸 구석구석까지 가득 찼다. 나 자신 스스로도 대견해졌다.

자리(自利)에서 이타(利他)로 넘어가는 깨우침이 '우주 저금통장'이란 징검다리로 한 걸음 다가왔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처님께서는 백 여덟 번의 많은 기회를 주신 것 같다. 그 많던 정신적, 물질적 깨우침의 기회를 다 놓쳐 버리고 허우적거렸는데도 마지막 백 여덟 번째의 기회를 남겨 주셨다. 이제는 모든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힘들고 감당 못 할 일이 생기면 우주와 연결된 나의 주인공(眞我)에게 자연스레 맡기게 되었다. '주인공, 네가 해결하고 이 시자를 잘 이끌어가' 라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도 생겼다. 누구에게나 미소로 대하고 여유로워지며 칼날같이 날카로웠던 마음도, 주눅 들고 위축되었던 마음도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변했다. 두려움도 없어졌다. 이 튼실한 묵시(默示)를 누구에게나 알리고 싶다. 혹시라도 생활이 힘이 들고 부대낄 때, 위기는 다시없을 기회라는 그 평범한 진리로 부처님의 바다에 풍덩 뛰어들기를 권하고 싶다. 껴안기는 자식을 내칠 부모는 없지 않은가? 수천 년을 이어 온 부처님의 자비심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림 / 문병성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끝없이 의문 일어나
법문 들으며 긍정적 시각, 마음속 '계산' 없어져
주인공에 대한 감사함 생활 구석구석 가득

심 사 평



총 100여 편에 이르는 응모작 가운데 예심을 통과한 작품은 총 14편이었다. 전반적으로 응모작들의 수준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져 당선작들을 선정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진을 첨부하는 등 여러모로 각별한 정성을 녹인 작품이 많아, 심사과정 중 '힘들지만 행복한 고민'이 내내 함께했음을 밝힌다.

그 가운데서도 박수영 씨의 <백 여덟 번째의 기회>와 배장환 씨의 <아버지>를 특별히 주목했다. 두 작품 모두 탄탄한 문장력과 구성력을 바탕으로 신행생활의 감동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백 여덟 번째의 기회>는 기도를 통해 무주상보시의 실천까지 이끌어 낸 점이 돋보여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높은 수준, 선정 과정 힘들지만 행복
불교계 현실 비판글 등 풍성한 수확

<아버지> 역시 대학생이 수련대회를 거치며 내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편지체로 답아낸 것이 신선했으나, 순간적인 느낌을 생활수행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그 외에도 소소한 일상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들의 삶이 담긴 작품 6편을 추가로 선정했다. 기복이나 교리에 집착하지 않고 신행생활과 불법을 접목, 무난하게 풀어낸 작품들 위주로 수상작을 꼽았다. 특히 올해는 <그리운 님 황금의 동상>과 같이 신도의 눈으로 불교계 현실을 비판하는 시도까지 엿보여 나름대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다.

■심사위원: 사진 왼쪽부터 법산 스님(심사위원장, 동국대 정각원장), 희명화 신수회장, 이영자 초대 신수회장, 최정희 전 편집국장, 김정자 논설위원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uhy@buddhapia.com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제2차 1029일간 영가천도 기도법회로 국운융창, 국민대화합, 조국통일, 세계평화를 위해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동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

7차에 걸친 몽고의 혹독한 외침으로 국가가 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의 평화를 이루고자 국왕(고려 고종)과 문무백관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 한자 한자씩 정성껏 담아낸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국민화합의 원천이자 국난극복의 큰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750여 년간 우리 민족의 숨결과 함께 해온 이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목판 팔만대장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하게 보존 · 유지하여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그리고 인류문화의 보고 寶庫이자 한 민족의 위대한 가치인 팔만대장경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청동판 복원불사는 우리 국민의 의무이자 또 하나의 민족적 과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이 국가적 어려움을 팔만대장경 조성으로 극복해냈듯이, 현재 우리가 처한 불안정한 정치 · 경제적 상황, 사회구성원간의 갈등,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통일의 민족적 과제 등 내우외환의 어려움을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청동판 복원불사를 통해 불보살의 가피로 극복해내고, 국민대화합, 국운융창과 조국의 통일, 세계평화를 발원코자 성스러운 불사를 봉행합니다. 이 거룩한 불사에 많은 성원과 동참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 최고의 품질로 우영이 만년 이상인 (주)풍산에서 영산된 인청동과 우연MS(주)의 기술로 조성된 팔만대장경

● 기도입재일 : 2003년 양력 11월 3일
● 기도회향일 : 2006년 양력 8월 28일

- 천도재 동참금 : 100만원 (동판 팔만대장경 1장 포함 : 해인사에 영구보존)
- 동판 팔만대장경 1장 : 50만원 (경판만을 해인사나 가정에 모실 분)
- 계좌번호 : 농 협 843174 - 51 - 009176 (해인사 천도법회)
  우체국 611806 - 01 - 002618 (해인사 천도법회)
  농 협 843174 - 51 - 012073 (해인사 동판)
- 문 의 : (055) 931-8771, 934-3105~6, 934-3107(팩스)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세 민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 계 사

조 실 고산 혜원
주 지 우담 원정
강 주 제월 통강
총 무 성 륜
기 획 묘 유
교 무 중 선
재 무 지 문
도 감 한 호

사부대중일동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
전화 : 055)883-1901/5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하사

주 지 대 성
신도회장 문수용
신두부회장 김종길
거사림회장 김태룡

보현회
관음회
금옥회

사부대중일동

■ 경남 김해시 삼방동 882번지
종무소 : 055)337-0101

대한불교조계종 제14 교구
백양산 선암사

법 주 중 원
주 지 정 야
신도회장 신제철
봉사단장 왕선자

청년회,어린이 숲속학교
불교교양대학 일동

■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3동 628
전화 : 051)803-7573
팩스 : 051)803-7521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사불교대학
기본교리/경전과정
주 지 혜 총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2동 33
☎ 051)809-0926
팩스 051)803-0188

불교의 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복지 봉사센타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
- 치매노인 주간 보호센터 .무료급식(매일300여명)
- 용호어린이집 .노인대학(매일200여명)등

관 장 혜 총

■ 전화 : 051)628-6737 / 팩스 : 628-6562

대한불교조계종
묘봉산 혜원정사

조 실 고 산
주 지 원 허

고산장학회 / 선지식회 / 자비회 /
만불회 / 지장회 / 관음회 /
연꽃부부회 /자원봉사단 / 선원대중 /
혜원합창단 / 청년회 / 대학생회 /
중 · 고등학생회 / 어린이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산1113-1
전화 : 051) 866-7771
팩스 : 051) 866-7777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선찰 대본산 범 어 사

조 실 지 유
주지직무대행 홍 선

부주지 지 연 사 회 도 관
총 무 정 야 포 교 지 종
교 무 능 허 호 법 각 우
재 무 지 종 원 주 초 안
신도회장 박수관

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전화 051-508-3122~7 / 팩스051-508-3229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通 度 寺



가사불사 및 예수재 동참안내

일 시

◆입재일 : 2004년 3월 1일 월요일
(음 2월 11일) 10시
◆회향일 : 2004년 4월 18일 일요일
(음 윤 2월 29일) 10시
◆초재 3월 7일(음 2월 17일) 부터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영가천도재를 지냅니다.

방 장
부방장 초 우
전계사 중산 혜남
주 지 이산 현문

총무국장 산 옹 기획국장 시 공
교무국장 오 심 재무국장 보 화
포교국장 정 법
원 주 방 원 호법국장 덕 원

영축총림대중 일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055)382-7182 팩스 382-7196

大韓佛教 天台宗 釜山
三 光 寺

주 지 김도원

총 무 서덕재 교 무 정도웅
재 무 윤갈웅 노 전 김구수

• 신도회장 안 영 일 • 부 회 장 윤인오, 오귀분
• 총무위원 김 종 기 • 재무위원 신순옥
• 교무위원 김 수 웅 • 사업위원 민철규 • 홍보위원 김 형 대
• 재무위원 송 세 현 • 기획위원 조수웅 • 섭외위원 문 경 용
• 재무위원 주랑월자 • 조직위원 이영균 • 부녀위원 김 화 순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산131번지 전화 051-808-7111-5 / 팩스 051-803-1332
인터넷 삼광사 http://www.samkwangsa.or.kr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 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여여정사

선원장 정 여

거사림회, 청년회, 선림회, 다도회, 복지회, 여진부, 합창단
금빛모임, 푸른샘, 월요법회, 화요법회, 수요법회, 목요법회, 금요법회

■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전화 051-853-5486~7
팩스 051-863-6422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 장 혜총 스님
기획실장 박용하
사무국장 이춘성
간 사 김영곤, 서은해

■개 금 사 회 복 지 관 관장 박용하/과장 채종현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명현스님/부장 박신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여스님/부장 정순화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임광수/부장 배의식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현스님/부장 김맹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련스님/부장 김민아
■양 정 청 소 년 수 련 관 관장 범산스님/차장 장문숙
■양 주 암 어 린 이 집 원장 범산스님/원감 양금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혜총스님/부관장 이춘성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 정여스님/사무국장 정득보
■사회복지시설 컴넷하우스 원장 윤숙자/사무국장 서성자
■부 산 보 현 의 집 원장 이기표/총무 이영숙

"좋은 인연입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선원장 수 불

■ 법인사무국 : 051)892-9803
부산 : 051)892-9877
서울 : 02)732-0772
창원 : 055)281-0772
미국휴스턴 (0011)713 467-0997
홈페이지 www.ahnkookzen.org

대한불교조계종 신창농장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한나래문화재단

주 지 심 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전화 : 051)508-0345
팩스 : 051)508-6561
HOMEPAGE : www.busanbuddhism.com
E-mail: 5080345@hanmail.net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비룡산 동명불원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07번지
전화 : 051)555-5959
팩스 : 051)626-7498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총본산 금 수 사

주 지 송구산
총 무 변혜선
신도회장 홍일랑
신도일동

■ 부산시 동구 초량 4동 843번지
전화 051)467-3316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운산 내 원 암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울산남구노인복지관
사부대중일동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12
☎ 052)238-5088 / 052)239-0388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문 수 사

문 수 불 교 문 화 원
회 주 법 흥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김진실행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61-3
☎ 051) 624-3754, 623-3648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영 주 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 관음어린이집
회 주 불국정관
주 지 범 산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950
종무소 051) 754-2210 / 유치원 754-6120
어린이집 755-2888 수련관 868-0750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청 량 사

주 지 운암(석현엽)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445
☎ 051)271-2774

대 한 불 교 조 계 종
해 인 정 사

(부설:해인경전대학)
주 지 수진
관음예불회원 일동
신도회 일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1063-56
☎ 051)202-4933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신 흥 사

주 지 지 은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739
☎ 052)295-7655

황령선원 홍 제 사

선원장 혜 국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 3동 산51-2
☎ 051)802-0130

밀 양 천 황 산
얼음골 천 황 사

- 보물제 1213호 석불좌상 -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7번지
☎ 055) 356- 2540

자비실천수행도량
미 룡 사

주 지 김정각
부 주 지 김묵담
법 사 고지정
신도회장 김영배
불교자비원이사장 김성길
새샘복지재단이사장 정하용
노인대학학장 김연순
바라밀합창단단장 이정희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실장 김경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23-194
☎ 051)404-4300, 2100, 403-4848
팩스 : 403-4860 E-mail:jbwooo@cholian.net

지장불교근본도량 사회복지법인
공 덕 원

주 지 효 선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 051)625-2253
FAX 051)623-3946

통도사 부산포교원 대 광 불 교 대 학

주 지 상 진
신도회운영위원장, 부회장, 상조회, 총무부, 재무부, 교무부, 문화원, 기획부, 홍보부, 호법부, 섭외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390-34
☎ 051)816-2241 FAX 051)806-2430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부산분원
관 음 사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9-2 전화 051)294-9300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다정한어린이집 노인주간보호센터
부산사하두송자활후견기관
☎ 051)265-9471 www.dusong.or.kr

부산여성불자회

회 장 왕선자
부회장 이윤목,홍말연, 조정숙
총 무 류경자, 하영조
재 무 김지언,박정연
감 사 이경월,이소연
교 화 심춘자,이복선,김윤숙
운 영 임정숙,김경자, 서화영
봉 사 박영옥,김경희,정태림
장학위원장 홍말연
이사 및 각 지구회장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393-12(불교회관 5층)
☎ 051)852-1466, 팩스: 051)867-8048

반냐라마 근본불교학교

근본도량 신어산 다보선원
서울 지혜선원
대구 지혜선원
최고지도법사 빅쿠 붇다하빠-라
대표법우 혜 일 법 우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680
전화 055)331-2841
서울 02)597-2841
대구 053)475-2841
H·P 011-1700-2841
홈페이지 www.bodh.net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

부설 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회장 류진수
상임부회장 김창석, 정금강행, 하도명화
부 회 장 이근철, 김석조, 이영숙, 박성빈, 윤인오, 박수관
사 무 총 장 박영병
재 무 총 장 송귀종
재무부총장 최용진, 백기현
감 사 서병흔, 최익두 , 이대원성
기 획 실 장 김수현
이사회원일동 교직원, 재학생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
☎051)853-2021 / FAX 051)853-2036

재 단 법 인
보 현 장 학 회

이사장 정 여
상임이사 각 우
이 사 정현 심금윤월 백대일심
감 사 여현 정만
사무국장 이욱태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57
☎051)403-7096 팩스 403-9801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 감사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대덕스님과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신협 이사장 사상호 합장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1동 547-18 건축사 회관1층
☎ 051)633-9120~3
www.bulkyocu.co.kr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기관
부산불교교육대학

운영위원장 혜 총
학 장 이하우
교직원 일동

☎ 051)867-9944
www.psbuddhism.org

불 교 전 문 편 집 회 사
대 한 기 획

051)866-7818, 팩스 864-7075
daehana@korea.com

도서출판 부다가야

☎ 051)865-4383
www.buddhagaya.co.kr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총 재 법 장
회 장 조홍인
수석부회장 박상헌
각지역회장단 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07번지
☎ 051)627-1869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 하는
釜山佛教實業人會

회 장 박수복
고 문 강병중 서춘석
상임부회장 김윤환
부회장 김종태 이군철 이상태 하문원 박영근
감 사 박수관 배영호
회원, 마야 부인회 일 동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 401-9번지 3층 303호
☎ 051)818-9914 / FAX 818-9916



부처님의 가피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주지 변춘광 스님
총무 방경혜 스님 재무 김효성 스님
섭외 구성해 스님 부전 김원재 스님
신도회장 배두출
대중일동
■ 서울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TEL 02)3460-5300 / FAX 02)3460-5200

대한불교 조계종
용화사
주지 선곡
신도회장 최감로성
■ 경남 통영시 봉평동 404
TEL 055)646-3090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지도법사 세민
주지 현호 총무 용담
신도회장 심정구
■ TEL 031)444-5935 / 5936

기원정사
주지 도영
신도일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79-116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주지 박종하
신도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 FAX 02)597-3510

정각사
주지 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02)742-1231

대한불교 조계종
강화전등사
회주 장윤
주지 계성
사부대중일동
www.jeondeunsa.org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TEL 032)937-0125 / FAX 032)937-5450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주지 진관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02)359-8410

재단법인선학원
정토사
회주 박설산
주지 석응천
신도일동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TEL 02)379-5502/ FAX02)396-3405

용화정사
주지 성관
신도회 일동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19-70
TEL 031)246-0108

향천선원
선원장 유혜림
사부대중일동
■ 서울 중구 신당2동 414-12(장충체육관앞)
TEL 02)2254-3171

대한불교 조계종
석남사
주지 정무
신도일동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
TEL 031)676-1444

대한불교 조계종
내소사
회주 우암
주지 진원
사부대중일동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TEL 063)583-3030

재단법인선학원
인과선원
주지 정덕
신도일동
■ 서울 노원구 월계 4동 657-2
TEL 02)907-3706

대한불교 조계종
계룡산갑사
주지 장곡
사부대중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
TEL 041)857-8981, 8982
FAX 041)857-9753

대한불교 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회주 송월주
부설 (관인)영화유치원
■ 서울시 광진구 구의 2동 9번지
TEL 02)444-4321 / 444-7215
FAX 02)454-8177

계태사
주지 혜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514-11호
TEL 031)291-2928

대한불교 조계종
노적사
주지 박종후
신도회 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북한산성 내)
TEL 02)353-5016 / 4924
FAX 02)386-4198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각원사
주지 각원
사부대중일동
■ 경기 수원시 정자동 423-1
TEL 031)247-2513

낙산사
주지 설웅
대중일동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TEL 033)672-2448
FAX 033)671-1445

대한불교법성종
대덕사
주지 성인
신도회장 수덕화 윤정식
총무 법성화 이상님
부천남부경찰서 법우회 일동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25-35
TEL 032)664-5545

대한불교천태종
인천 황룡사
주지 김무원
신도일동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TEL 032)873-0747

한국불교태고종
록유사
주지 성인
사부대중일동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2리
TEL 033)647-1391~2

산신기도도량 철승산
남가섭암
주지 성오
신도일동
■ 충남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산54
TEL 041)841-7979, 4789

한국불교 태고종
능하사
주지 성연
신도일동 법회(음) 1, 18일
■ 서울 마포구 공덕1동 118-4
TEL 02)701-7488, 703-5575

한국불교태고종
대각사
주지 월조 동산
신도일동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303-67
TEL 042)586-5026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재웅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131-80
TEL 02)742-0172

지장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만의사
주지 성직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140
TEL 031)376-6005 / FAX 031)377-1717

대한불교조계종
삼선포교원 삼선승가대학
원장 지광
원장 묘순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255
TEL 02)923-0582, 922-9652

대한불교조계종
심원사
주지 김도후
사부대중일동
■ 강원도 철월군 동송읍 상노1리 72-1
TEL 033)455-3468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황일면
광동중학교 교직원 일동
광동고등학교 교직원 일동
광동여자고등학교 교직원 일동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장현리 603-5
TEL 031)572-0559/ FAX 031)572-4049

맑은마음 좋은벗 깨끗한땅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대표 유수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TEL 02)587-8993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사
지도법사 명천
■ 경기 포천군 군내면 직두1리 477-1
TEL 031)535-0493

사단법인 21세기
한국불교사회봉사회
회장 이설산
임직원일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321-3
TEL 02)303-0024~5

해인사
주지 혜경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돈암1동 83-2
TEL 02)925-3747

어린이법회 지도자 첫 자격시험

조계종, 구랍 20일 70여명 응시

어린이 포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어린이 법회 지도자 자격고시가 최초로 실시돼 관심을 모았다.

2003년 12월 20일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 강당에서 실시된 '제1회 어린이법회 지도자 자격고시'는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대한불교교사대학이 주관한 어린이법회 지도자 첫 자격시험. 70여명이 응시한 이날 자격고시는 50분씩 두 시간동안 진행됐다. 자격고시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주관식 등으로 나눠진 60문항으로 사찰예절, 불교문화, 불교상식,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교리 등 폭넓은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어린이 지도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 '법회에 잘 나오던 어린이가 법회에 잘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등 어린이법회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점검하는 서술형 문항들이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법회 지도자 자격고시 합격자에게는 조계종 포교원이 자격증을 주게 되며 이는 종단 차원에서 어린이법회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최초의 공식 인증서여서 의미를 더한다. 김광호 대한불교교사대학 홍보부장은 "자격증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종단에서 어린이지도자의 자질을 점검하고 자격증을 주는 것은 어린이 지도교사 배출에 기준을 갖게 되는 역사적인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보완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 자격증에 걸 맞는 대우,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의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 조계종단 차원의 교과내용, 평가기준 수립 등이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천미희 기자



◇어린이 법회 지도자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는 응시생들.



◇새벽예불에 앞서 불전에 향을 올리는 박종부, 안태선 부부.

연말연시 용맹정진 10년째 **박종부** 거사 내외

한해 한해가 새롭고 감사해요

일주 휴가 … 참회 · 서원 담은 기도로 새아침

"지난 한해 감사했던 일들을 모든 분들께 회향하고 새해에는 더욱 정진하겠다는 서원을 담아 일주일 기도를 올립니다."

10년 전부터 매년 연말과 연초에 일주일동안 휴가를 내고 출가자의 마음으로 용맹정진에 들어가는 박종부(51.기계제작회사 대표) 거사와 안태선(47) 보살은 올해도 변함 없이 경남 고성 현불사(주지 일화)를 찾았다. 바쁜 일상에 쫓겨 좀처럼 기도와 정진 시간을 갖기 어려웠던 부부가 일상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정진을 위한 휴가를 단행한 것이 벌써 10년째를 맞았다. '일주일은 없는 셈치자' 고 마음을 다져먹고 아무리 급한 연락이 와도 기도만은 회향했다. 이렇게 현불사로 입산, 하루 삼천 배의 절을 올리는 동안 현불사는 이들 부부에게 출가본사와 같은 마음의 고향이 되었고, 일주일 기도는 자성(自性)을 일깨우는 수련처로 자리잡았다.

갑신년 새해 첫날도 서원을 담은 기도로 맞이했다. 불전에 향을 올리며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는 새벽예불, 금강경 독송, 절 수행으로 이어졌다. 몇 년 동안은 매일 삼 천 배를 올렸는데, 지금은 절을 천 배로 줄이고 사찰 일을 돕는 울력 기도를 올렸다. 저녁예불, 천 배, 금강경 독송이 끝나는 오후 10시쯤, 하루 일과가 끝이 난다.

기도를 시작한 첫해에는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며 기도를 회향한 후 찾아온 환희심과 일상의 변화는 평소의 수행을 한층 더 다잡을 수 있는 활력소로 찾아왔다.

"일주일간의 간절한 서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해태(懈怠)해지는 마음을 다잡는 재발심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는 부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불법을 만나 수행할 수 있게 된 감사함과 이웃과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더욱 정진하겠다는 발원이 더욱 깊어진다"며 두 손을 모았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치매 어르신 작업요법 발표회

도자기 공예 등 40점 전시 · 판매

용호복지관, 수익금 전액 이웃돕기에

지난해 12월 24일 용호복지관 2층 강당에는 용호복지관 치매 노인들의 작품 발표회가 열렸다.

이 발표회는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기쁨과 보람을 안겨준 행사로 치매 어르신들의 한해 마무리를 대신했다.

작업요법은 치매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다른 요법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복지관에서는 잘 실시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용호복지관의 이번 작업요법 발표회는 다른 복지관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2003년 한해동안, 칼라 믹스로 얼굴을 만들고, 종이로 꽃을 접으며 용호복지관 치매 노인들은 세월을 잊었다. 올해로 2회 째를 맞은 작업요법 발표회에는 치매 노인들이 일주일에 한번, 1시간씩 꾸준히 공을 들여 만든 칼라믹스, 종이 공예, 도자기 공예 등 작품 40여 점이 전시, 판매됐으며 판매수익금 전액은 이웃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탁돼 의미를 더했다.

천미희 기자

대구불교계 종교교류 활발

지성 스님, X-mas 미사 참석 축하 법문
영남불교대 실내악단, 파티 캐롤 연주

성탄절을 맞아 대구지역 불교계가 성당을 방문하고,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우는 등 종교간 교류에 적극적이다.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12월 25일 범어성당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기념 미사에 참석해 축하 법문을 했다.

이에 앞서 동화사 사회국장 법륜 스님은 24일 대구시 불로성당과 계산성당 등을 방문해 불교계의 축하 메시지와 화분을 전달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오케스트라 실내악단은 12월 18일 미군부대를 방문,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캐롤 등을 연주했다. 23일에는 미군부대 교회 성가대가 영남불교대를 찾아 찬송가를 합창하고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日국보급문화재 등 83점 경주박물관서 특별전시

일본의 국보급 불교문화재들이 한국에 첫나들이를 왔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박영복)에서는 구랍 12월 20일, 일본 나라국립박물관과 공동주최로 '일본의 불교미술' 특별전을 개막했다. 전시기간은 2004년 2월 1일까지.

이번 특별전에는 일본이 받아들인 불교를 민족적 정서와 감성으로 자국화시킨, 아스카(飛鳥)시대부터 가마쿠라(鎌倉)시대까지의 금동불, 목조불상 등의 불교조각, 불교회화, 금속공예, 전적류 등이 선보인다. 62건 83점이 전시되는 불교미술 가운데에는 국보 9점, 중요문화재 25점이 포함돼 있다. (054)740-7538

천미희 기자

심인고 교사국악회 공연

심인고등학교 교사국악회가 12월 28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10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연주회에서는 수연장지곡과 대금산조, 대취타, 김천교사국악회의 찬조공연, 동요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김은경 기자

국제고승백고좌 대법회

국제불교승가회(회장 동암)는 12월 24일 청주 사직동 시민회관에서 국제고승 백고좌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남북통일을 위한 기원제, 공인법위증서 봉정식, 신도수계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캄보디아 불교복지시설 '연화원' 기금 마련 선화展

캄보디아 불교복지시설 '연화원' 설립 기금마련을 위한 선화전이 12월 15~24일 광주 남도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선화가 묘각 스님(대각암 주지)의 달마도, 관음도, 문수동자 등 선화와 성불도, 부엉이 등의 채색화 45점이 전시됐다.

묘각 스님은 전시회 수익금 전액을 캄보디아 씨엠립에 건립중인 한국 사찰과 복지시설 연화원 건립기금으로 내놓았다.

묘각 스님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10만평 부지를 제공받아 포교원과 복지시설을 건립중이다"며 "신년도에 본격적인 건립불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종교벽 넘은 훈훈한 세모 온정

구미사암련, 불자들 성금 모아 가톨릭 재단 운영 시설에 지원

구미불교 사암연합회(회장 정우)는 지난해 12월 16일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성금을 기탁해 종교간 벽을 뛰어넘는 자비실천으로 화제를 모았다.

구미불교 사암연합회는 구미 오성예식장에서 가진 송년의 밤 행사에서 스님과 불자들이 모은 성금 백만원을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기탁했다.

구미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정우 스님은 "구미지역에 불교계가 운영하는 시설 중에도 어려운 이웃이 많지만, 이웃을 돕는 마음은 종교를 떠나 한마음이라는 취지에서 가톨릭 재단 시설에 성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충효자비원, 나자렛의 집 방문 내의 · 라면 등 전달, 위문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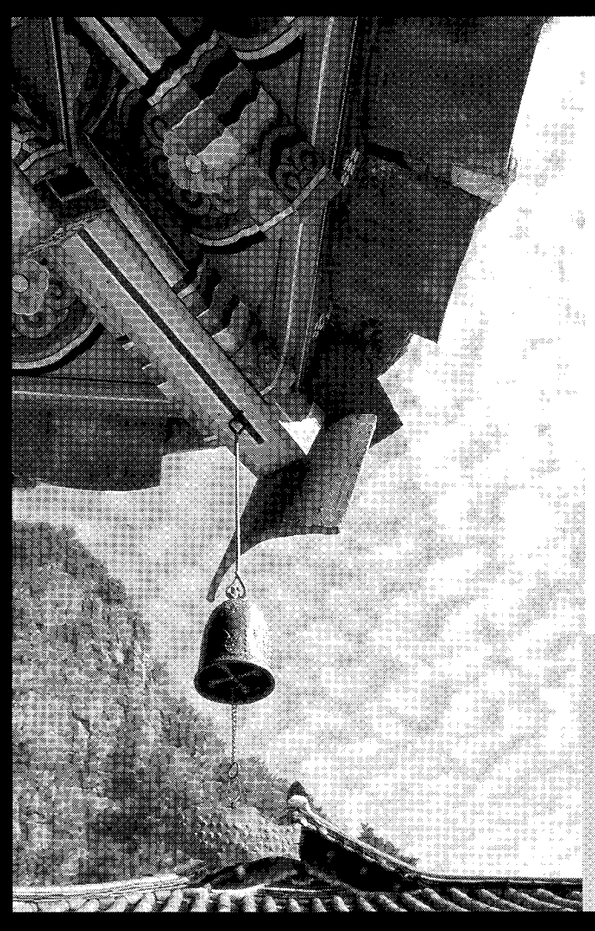
영천 충효사(주지 해공) 부설 사회복지법인 충효자비원은 12월 25일 생명사랑 자비실천의 일환으로 행려자와 무의탁 노인들의 안식처인 천주교 성모자애원 나자렛집을 위문 방문했다.

10년동안 매년 나자렛집을 방문해온 충효자비원은 이날 정수기 2대, 내의 100벌, 속옷 2박스, 라면 30박스, 고등어 50박스 등을 전달하고, 초청가수 및 풍물패 공연, 디스코 한마당 행사를 열어 수용자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해공 스님은 "많은 것을 나누지 못해도 그저 따뜻한 손 한번 맞잡기 위해 방문했다"며 "자비의 손길은 때와 장소, 종교, 이념, 국경도 초월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TEL:(02)994-3947 FAX:(02)994-3948 세상을 여는 창



산사에서 바람과 나누는 조촐한 대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현 수좌가 이런 책을 내놓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평소 그의 善心과 성실함에 눈길을 주어 온 내게, 이것은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宋月珠 전 조계종 총무원장

조촐하고 정갈한 글모음이다. 군더더기 없는, 꼿꼿하게 목을 세우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글의 잔치가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리하여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로 다가가게 만든다. -박관우 불교방송 기자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지현 스님 지음 / 240면 / 값 9,500원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정족산 대성암

복지관건립계획 및 현황

1. 위치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 65
2. 부지면적 : 15,000평
3. 건축개요 : 1차 – 신묘정사(1,000평)
   공인 박물관(1,200평)
   2차 – 노스님 복지관
   평생 교육원
   대체의학 연구실
   치매병원
4. 건축허가 : 양산시 2000년 3월
5. 1차 준공예정일 : 2003년 12월
6. 현재 공사 진행 중
7. 낙성식 법회 : 2004년 3월 21일 (일)
   (음력 3월 3일) 오전 10시

주 지 원 진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TEL 055) 365-1189, 367-6967

팔공산 1인1지장 만불보탑 건립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선원

선원장 지 공
신도회장 대각심
부회장 여래장

신도일동

※ 틱낫한스님 호흡수행법나누기
명상기초반 모집 중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541-1
TEL 053)744-0151
FAX 053)744-0150

참회기도의 생활화로 불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여여선원

주지 혜운

신도일동

(매월 예불대참회기도 및
천수다라니 기도 법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82-4
TEL 053) 622-0336

대한불교조계종

은적사

주 지 허운
총 무 허주
신도회장 하보타월
합창단장 김지혜심
봉사단장 김화산성

부설 룸비니 유치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572번지
www.eunjuksa.or.kr
TEL : 053) 653-1572

대한불교조계종

황룡사 직지불교대학

제8교구 본사 직지사
대구 수성 포교원

주 지 도일

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65-1
TEL 053) 784-8620
FAX 053) 784-8633

대한불교천태종

대구지부 대성사

주 지 이문덕

신도회장 김소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FAX 053)623-0265

기도 도량 약사여래대불

옥천사부설 울릉도성불사

주 지 혜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북면(성불사)
TEL 054) 971-6009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남장사

주 지 성응

신도일동

상주냉림사회복지관 임직원일동
상주자활후견기관 합 장

경북 상주시 남장동 502
TEL 054) 534-6331
FAX 054) 531-0047
냉림사회복지관 : 054) 532-5677
자활후견기관 : 054) 536-658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법형제회

심봉회
심안회
심원회
심주회
회원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053)767-3100(代)
FAX (053)765-1600

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진산 정사

www.jingak.or.k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4-1
TEL 053)255-1450, 1411
FAX 053)250-9703

변호사 주호영, 권성우, 서인규

법률 사무소

변호사 / 법학박사
주호영

(前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천,상주,영덕,영양판사,지원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33-10
(법무빌딩 농협4층)
TEL 053) 759-6000~3
FAX 053) 759-6004

高靈 기와
(주) 高靈청기와

(고령기와는 명품기와만을
만듭니다.)
KS 表示許可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工場

代表理事 金段東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전화 : 054) 954-8000(代)
팩스 : 054) 954-5335
www.rooftile.co.kr
e-mail : gr@rooftile.co.kr

문화관광(주)
053 여행사

직원일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90-1
TEL 053) 425-0081, 359-0090
FAX 053) 425-0031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 건설 업체

대표 탁희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H.P 011-509-1443

대창종합열처리

· 대표 : 김상진
· IS 9002, QS 9000 국제인증서
· 특허 0266125 · 실용실안등록번호
· 0173004 · GE업체 등록
· 광양제철소 등록업소
· 현대 중공업 등록업체
· CLEAN사업장 인정서
· 몰리부덴코팅
· 중장비 바스케수리 보강
· 풍산금속 방산업체 등록

경북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1227
TEL : 054) 762-0117
H.P : 011-503-0117
FAX : 054) 763-0117

템플스테이 국고 100억 지원

문화관광부 '템플스테이' 확대방안 발표

5년간 30개 사찰에 시설 지원
사찰고유문화 관광상품화 계획
외국인 위한 체험프로그램 특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템플스테이'에 국고 100억원이 지원돼, 외국인들의 사찰 체험 기회가 확대된다.

문화관광부는 12월 19일 강원도청에서 개최한 '관광 진흥대책 보고회'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민관광시대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으로 18대 과제를 선정하고 템플스테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템플스테이 지원확대와 같은 사찰 문화 상품화 계획은 ▲숙박시설 확충 ▲고유문화 관광 상품화 ▲일본인 방한 수요 확대 ▲동남아 · 구미시장 개척 등 4개 과제에 포함돼 있다.

템플스테이 확대 방안은 전국 30개 사찰에 시설 보완 예산으로 향후 5년간 국고 100억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사찰 요사채를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여행사를 통해 사찰 고유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또 일본 · 구미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찰 탐방, 불교체험 등의 특화상품이 개발된다. 사찰 문화체험 특화상품에는 참선 · 예불 체험 등이 포함돼 있어 외국인들의 한국 불교 문화 체험 확대와 한국 불교 이해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8대 과제는 5년간 관광정책의 큰 틀로, 정책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정영석 사무관은 "한국 불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전통 사찰 문화가 잘 보존돼 있어, 전통문화를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아직 템플스테이가 가능한 사찰이나 종단과의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4계절 가능한 한국 대표사찰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12월 23일 연천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충효체험 한마음큰잔치.

민관군 어우러진 상생, 화합 한마당

심원사 기원법회 및 공양잔치
소년소녀가장들에 장학금 지원

2004년 새해를 맞아 민 · 관 · 군이 함께 어우러져 상생과 화합을 기원하는 한마당 큰잔치가 열렸다.

한국불교 지장신앙의 근본도량 심원사(주지 도후)는 12월 23일 연천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지역 기관장들과 군인, 소외된 노인 및 주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맞이 충효사상 체험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상생과 화합 기원 전통불교 법요식에 이어 공양잔치가 열렸다. 이어 소외된 노인들과 주민들을 위한 위안공연, 지역 공공기관과 군부대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2천여 주민들에게는 양말 등 선물이 전달됐으며, 연천 철원지역 소년소녀가장들에게 1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심원사 주지 도후 스님은 "한국전쟁의 접전지인 연천지역의 특징인 분단과 결손 등의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민족의 구심점인 충효사상이 구현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준비했다"며 "인간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과 불일치는 불교의 지장신앙이 그 치유대안"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달마문예 교양대학 문 연다
2004년 3월 개강, 정원 30명

불교문예 교양대학이 문을 연다.

서울 흑석동 달마사(주지 미명)가 2004년 3월 개강할 예정인 달마문예대학은 운문반, 산문반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문예일반 및 창작지도 교과과정이 편성됐다. 또 문예특강은 불교와 문학, 한국불교의 이해, 문학과 생활, 문학연수, 불교문예현장 답사여행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된다.

30명 정원의 달마문예대학은 내년 하반기에 중급, 고급과정도 개설해 수료생들의 불교문예활동을 지속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계간 문예지를 발간해 수료생들의 문단등단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달마문예대학은 고문에 신경림 시인, 이사장에 종림 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장), 학장에 소설가 김성동 씨를 비롯, 혜봉 스님(친일불교론 저자), 맹란자(수필가) 고형렬(시인), 김사인(시인) 씨가 이사 및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의 (02)813-7425 김원우 기자

경기도불교사암련, 결성

수원불교연합회(회장 성관, 수원포교당 주지)는 12월 15일 캐슬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경기도불교사암연합회 결성 등 2004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수원불교연합회는 지역불교 활성화 모색 및 공동사업 연구를 위해 경기도불교사암연합회를 결성키로 하고, 지역 사암련 및 연등축제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와 토론회를 2월 초순 개최하기로 했다. 또 화성 등문화축제, 연꽃식재사업, 총선 공정선거운동, 연합 자비실천활동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남한강 영산재 개최

양평불교사암연합회(회장 화암, 사나사 주지)는 12월 26일 법림정사에서 결산총회를 열고, 2004년도 사업계획으로 남한강 영산재와 산사음악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사암련은 또 합동성지순례, 불우이웃돕기, 여주교도소 교화법회 등의 주요행사계획도 확정했다.

김원우 기자

봉인사 자비수관 수련회

남양주 봉인사(주지 지운)는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지운 스님(전 송광사 강주)의 지도로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의 오대관법을 통한 위빠사나와 티벳 밀교계통의 자비관법 수행으로 이뤄진 자비수관(慈悲手觀) 수련회를 개최한다. 또 봉인사는 11일부터 16일까지 매일 1시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다도수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강좌도 마련한다. (031) 574-5585

김원우 기자

금강선원 김지견박사 추모재

서울 금강선원(선원장 혜거)은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김지견 박사 3주기 추모재를 개최한다.

이날 추모재는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의 법어와 백운 스님(미륵암 주지) 추모사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02) 445-8484 김원우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셋이 모이면 못할 일 없죠

인천 영산정사 최음전 · 임옥재 · 송운석 보살

인천시 남구 숭의동 수봉산 자락에 자리잡은 영산정사. 그곳에는 그 흔한 '직책' 하나 없지만 절 돌보는 일만은 누구 못지않은 노 보살 세 명이 있다. 바로 최음전(71), 임옥재(64), 송운석(60) 보살이다.

하얀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넘긴 최음전 보살. 6년 전부터 영산정사와 인연을 맺은 최 보살은 인생의 곡절을 다 겪어내고 부처님의 품에 안겼다. 서른여덟 살이라는, 앞날이 창창한 둘째 아들을 먼저 보낸 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달래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 온 것이다.



◇인천 영산정사의 숨은 일꾼 송운석, 임옥재, 최음전 보살(왼쪽부터).

최음전-자식 여의고 부처님 품에 안겨
임옥재-뛰어난 통솔력으로 신도 화합
송운석-사찰 · 신도 살림 내 손안에

"젊을 때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살기 바빠서 그랬는지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랬는지 기회가 닿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자식 먼저 보내고서야 제가 가야할 길을 찾게 됐죠."

법명인 진불심으로 더 유명한 임옥재 보살은 7년 전 영산정사에 발을 들여 놓았다. 영산정사에서 통솔력이 뛰어나기로는 임 보살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한다. 큰 일이 있을 때면 조용히 나타나 일의 몫을 나누고 진행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1988년부터 영산정사를 지켜온 송운석 보살은 영산정사의 산증인이다. 송 보살은 지금의 요사채가 언제 지어졌는지, 동네 아이들 중 누가 영산정사에서 운영하던 유치원을 다녔는지도 훤히 꿰고 있다. '이번 달에는 누구네 집에 제사가 있고, 누구네 딸은 언제 시집간다더라'는 소식도 송 보살의 머리 속에 모두 들어 있다.

요즘 이 세 보살의 진가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새로 주지를 맡게 된 정각 스님이 신도들의 가정 대소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만든 상조회 활동이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 이들은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면 도움의 손길 하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겪어본 사람은 안다"며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조회 활동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또 하나, 요즘 세 보살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주지 스님의 설법이 있는 일요법회이다. "스님이 너무 쉽고 재미있게 법문을 해 주셔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듣는다"는 것이 여섯 달 동안 빠지지 않고 법회를 들은 보살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지난 달 초에는 주지 스님의 생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기도 한 이들은, 영산정사가 주민들에게 그리고 불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오늘도 법회와 절 일, 신도들 경조사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여수령 기자



추천의 말

정각스님 영산정사 주지

한마음으로 가르침 실천

최음전, 임옥재, 송운석 세 보살님은 저에게 있어 스님과 신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누이처럼 지내는 벗이자 도반입니다. 세 분 모두 불교와 인연을 맺은 사연도, 살아가는 모습도 각기 다르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만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말없이 절을 보살피고 틈틈이 불법을 공부하는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 영산정사는 언제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금강불교대학 2548년(2004)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은 국내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으로써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하는 천태종 종립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 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학과과정	지역 (기수)	교육년한	교 과 목	교 육 일 시	지 원 자 격	특 전
불교학과	초급과정	1 년	신행입문, 원시불교, 불교학개론, 불전이해, 불교경전개설	매주 월요일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수료 후 중급반 진학 자격취득
	중급과정 (서울21기, 부산16기)	1 년	한국불교사, 법화경요해, 대승불교사상, 천태지관	매주 화요일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졸업 후 교법사과정 진학 자격 취득
교법사과정	서울(11기) 부산(11기)	1 년	정토사상, 유마경, 금강경, 포교방법론, 화엄학, 비교종교, 밀교사상, 천태종학, 열반경	매주 수, 목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① 본교 중급과정 졸업자 또는 ② 불교전문 교육 2년 과정의 수료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 졸업 후 별도 시험 과정을 통하여 종단내 교법사 선발

학 과	모집정원		제 출 서 류	면 접 일 시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료	전형방법	입학식
불교학과	서울 · 부산 각 120명	초급과정	가.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반명함판사진 4매(원서용포함)	*서울 : 2004년 2월 26일오후 6시 *부산 : 2004년 3월 1일오후 6시	가. 기 간 : 2003년 11월 20일~ 2003년 2월 16일 오후 4시까지 나. 접수처 : 서울,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원서료 : 5,000원	가. 1차 서류 나. 2차 면접	*서울:2004년3월6일 오후 2시 *부산:2004년3월7일 오전 11시
		중급과정	가. 중급과정 지원서 1부 나. 사진 2매	서류전형				
교법사과정	서울 · 부산 각 50명		가. 교법사과정 지원서 1부 나. 사진 1매	*서울 : 2004년 2월 27일 오후 6시 *부산 : 2004년 3월 2일 오후 6시				

【서울 금강불교대학】
서울 교무과 02-576-6401 신촌성룡사 02-336-2052 봉천동명락사 02-889-7272 강동구강사 02-479-4450
망우동삼룡사 02-496-3839 구로명화사 02-854-0196 분당 대광사 031-715-3000 인천연화사 032-873-0747
수원용광사 031-255-4105 안양대안사 031-459-3666 성남화성사 031-745-1482 구리금성사 031-563-9364
평택법장사 031-655-9090

【부산 금강불교대학】
부산교무과 051-808-0730 울산정광사 052-277-7100 마산삼학사 055-244-6464 대구대성사 053-651-6108
포항황해사 054-277-3611 김해해성사 055-336-3585

◆서울 금강불교대학 ◆부산 금강불교대학

◆면접 후 개별통보

◆서울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내 2층 Tel : (02)576-6401~2 FAX : (02)574-1541
- 양재역 성남방면 7번출구 마을버스 05, 06번 버스 (LG연구소 우면APT에서 하차)
- 강남역 6번출구 414번 버스

◆부산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131번지 삼광사내 Tel : (051)808-0730,0713 FAX : (051)819-7654
- 어린이대공원 인접지에 위치함

이재창-금강불교대학학장 원의범-동국대명예교수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리영자-동국대명예교수 권기종-동국대교수
서윤길-동국대교수 장충식-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이봉춘-동국대교수 조용길-동국대교수
박경준-동국대교수 김용표-동국대교수 권탄준-금강대교수 지창규-동국대교수 최종석-동국대교수
허경구-동국대교수 김승일-국민대교수 이동우-동국대교수 최기표-동국대교수 정성준-동국대교수
최봉수-동국대교수 오지연-동국대교수 김은희-동국대교수

대한불교 천태종 금강불교대학장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성종사**와 **(주)비엔비 기업**이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가의 신개념 전자종들

가릉빈가



인간문화재 원광식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

◇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퍼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님들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 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첨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 품 명** : 가릉빈가

●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M 정도에서도 웅장한 종소리 및 녹음한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맑고 웅장하게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 엠프(스피커 3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회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 출력 50 –100W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변경, 알람시간조절, 임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 INCH 3개, MP3기능 – 45분(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장착), 오토리버스 기능, 볼륨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매시간 타종 기능(타종 횟수 조절 가능) – 알람기능 (세번 작동가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엠프 기능

●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 **소비자가** : 4,500,000원(종 25관 + 종틀 + 스피커 3개 + 기타 = 일체포함)

● **종제작업체** : 성종사 ● **전자 종틀제작업체** : (주)비엔비

● **문의처** : 02–733–6141(代)
032–772–5451(代)

인간문화재 원광식선생의 작품을 느껴보세요


용무늬풍경 12,000원


조선의종 180,000원


일반보급형종 100,000원


전자 한국의종 297,000원


전자시계종 160,000원

전국지사 및 판매점, 판매사원 모집 1. 초도자금 300만원 개설 가능 2. 무점포 창업가능 3. 불가에 뜻을 가지고 있는분 우대 www.bellkorean.com

산문밖의 선



무절제에서 생명 만들기

'참나' 찾는 작업이 곧 예술

문범강 美 조지타운대 교수



· 1954년 대구 출생.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80년 도미. 82년 캘리포니아 컬리지 오브 아츠 앤 크래프츠에서 드로잉 전공.
· 메릴랜드 대학원에서 판화 전공 졸업.
· Kerr 갤러리(뉴욕, 88년), 샘터화랑(97년), Space Untitled 갤러리(뉴욕, 97년) 등에서 8회 개인적 개최. 마틴 루터킹 기념도서관 갤러리전(84년), 몽고메리 대학 국제판화전(91년). 미국미술의 오늘전(플로리다 미술관), 광주비엔날레(95년), 북미판화공모전(90년).
· 국제판화공모전 1등상, 브랜다이즈미술전 판화부문 최고상(83년) 등 수상.
· 현 워싱턴 조지타운대 교수.

철사, 천등 온갖 잡동사니 작품 소재로 이용
'나' 라는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미술
85년 대행스님 친견 후 제2의 전성기 맞아
명상클럽 조직 참선지도 등 포교에도 열성

미국 워싱턴 시 인근 록빌에 위치한 조지타운대 문범강(49) 교수의 작업실. 한창 작품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는 문 교수가 없다면 작업실은 온통 잡동사니 더미로 가득한 창고에 불과했을 것이다.

작업실 여기 저기에 무질서하게 흩어진 플라스틱, 철사, 나무판, 천 조각들. 그러나 고철이 용광로를 거쳐 펄펄 끓는 쇳물로 다시 태어나듯, 문 교수의 손끝을 거친 사물들은 무질서의 극치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심지어 화장실 문에 붙은 '마음을 버리는 그릇' 이란 글귀처럼 행동 하나하나 마저 예술 창작으로 거듭 나는 듯 했다.

사물들은 어떻게 예술적인 생명을 얻는가? 문범강 교수는 창작 활동을 '나' 를 찾는 과정에 비유했다.

"작품 활동을 하며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고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어떤 존재가 내 작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를 발견하고 그 '나' 로 하여금 스스로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참나' 의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예술이며, 그 때에만 삶과 세상 너머의 풍경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문 교수는, '참나' 를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자신의 잘린 머리를 바라보는 그림으로 표현됐으며 오목 거울을 바라보는 작은 불상을 배치한 오브제를 탄생시켰다고 설명한다.

그의 '참나' 를 발견하겠다는 갈망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를 만들어낸다. 독경을 하기 위해 입을 벌린 사람과 입을 벌리고 죽은 물고기의 이미지를 겹치거나, 속이 비었다는 공통점을 이용한 유리병을 문 물고기의 그림은 현재 기억의 저편을 탐구하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박스에 혀를 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시각적 대상인 박스의 맛을 본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고정관념을 깨고 새롭게 대상을 인식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중국인 옷을 입은 늑대 얼굴의 교황 그림이나 푸른색 늑대와 박제된 예수의 이미지를 병치한 그림들은 '성스러움' 이면의 '상스러움' 이란 메타포어를 가진 작품들이다.

작품경향 만큼이나 창작방법도 변화무쌍하다.

"처음에는 판화를 했어요. 한국에 생소한 에칭작업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하지만 판화로는 전시공간 하나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회화를 배웠어요. 이제는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 라고 할 것이 없기에 예술이랄 것도 없다. 끊임없이 나와 대상을 탐구하고 변형시키는 작업이 바로 그의 작품세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는 그 작품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는 "불교가 맹목적인 믿음만을 강조한다면 나는 불교적인 작가가 아니다"고 말한다. 불교적 무늬나 색감, 이야기 소재만을 이용한다고 불교미술이 되지 않는 것처럼 참된 미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나를 구성한다고 믿어왔던 것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문범강 교수는 "불교의 무아(無我)는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욕망과 그것을 탐닉하는 '나'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 때 우리는 전생, 현생, 내생을 관통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나' 를 발견하게 되죠" 라고 말한다. 그는 어느 순간 그가 해온 작업들이 불교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헤엄치는 일임을 알게 됐다. 불교는 마치 모든 생명체를 만들고 보호하는 바다처럼 넓기만 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80년 미국 메릴랜드 대학원에서 뒤늦게 미술공부를 시작한 문범강 교수. 현대 한국 화단의 거장인 천경자 화백의 사위인 문 교수의 작품 곳곳에 불교 사상이 녹아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85년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한마음선원 법회에서 대행 스님을 친견하면서부터다.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는 것이 전부였지 불교가 무엇인지 잘 몰랐죠. 그러다가 만난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관하라는 큰스님의 가르침이 제 창작 활동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문 교수는 대행 스님의 법문과 책을 구입해 탐독하기 시작했고 조지타운대 내의 명상클럽을 조직해 미국 학생들의 참선을 지도하며 포교활동을 펼치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문 교수는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의 사고 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한국불교를 알릴 좋은 번역 서적이 많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강유신 특파원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서울 실상선원 1000日 영가 천도법회 봉행 현재접수중

어두운 곳에 연등의 등불을

약사 제일 영험도량 실상선원
봉사와 무료복지관이 있는 천축사 기도성취도량 용암사

선 원 장 성 환
주 지 종일, 일광, 정윤, 일현 총 무 곽동훈
신도회장 김동호, 박공례

■ 실상선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93번지 02)745-8503
■ 천 축 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041)734-2680
■ 용 암 사 경북 청송군 현동면 월마리 산 49-3 054)873-3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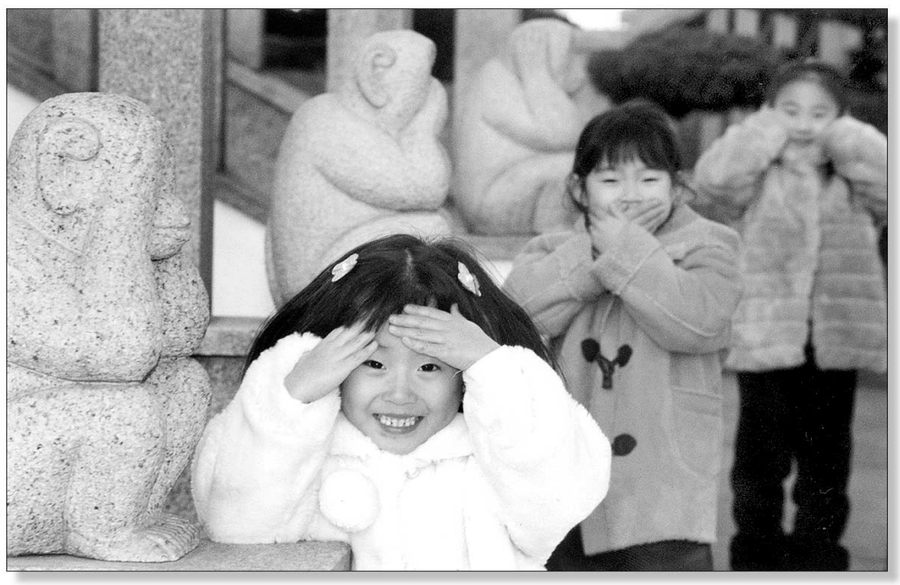


올해는 갑신(甲申)년 원숭이의 해. 어리석은 인간을 풍자하는 해학으로, 나쁜 기운을 없애주는 벽사(辟邪)의 의미로, 또 장수와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동물로 사랑받아왔던 원숭이. 미숙한 지혜가 저지르는 실수는 인간적인 모습마저 담고 있기도 하다.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으로 불교와 친숙한 원숭이는 <본생경> 등 많은 경전에서 보살행을 하는 영물로 등장한다. 또한 선어록에서는 '이리 뛰고 저리 날뛰어 제어하기 어려운 중생의 마음'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갑신년의 불교사와 경전 및 선어록 속의 원숭이 이야기를 통해 '원숭이 마음' 길들이는 한 해를 준비하자.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올해엔 '원숭이 마음' 길들이세요



◇입, 눈, 귀를 잘 다스려 '원숭이 마음'을 길들이라는 뜻을 가진 인천 용화사의 원숭이상과 아이들. 사진=고영배 기자

선사들, 집착과 분별심에 일침
마음 비워 자유로운 삶 살 것 강조
분주함 다스리면 깨달음에 도달

옛부터 장수와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동물로 사랑받아왔던 원숭이가 12지에 자리하고 있는 뜻은, 재주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 소인배가 되기보다 노력에 노력을 더하는 참사람이 되라는 선인들의 가르침이 아닐까.

이런 의미를 담아 원숭이를 의인화한 것이 <서유기>의 손오공이다. 전남 여천 흥국사 대웅전 뒷면 벽화에

액운 없애주고 장수·부귀의 상징
<서유기>서 '정법 수호신'으로 표현
번뇌·망상 치달리는 중생심에 비유

는 손오공이 관음보살의 교화에 의해 바다 건너 삼장법사 일행을 인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듯이 원숭이는 '정법 수호신'으로 상징되기도 했다.

<서유기> 뿐 아니라 원숭이와 불교의 연관성은 매우 깊다. 부처님 일대기에는 인도 바이샬리의 원숭이가 부처님께 꿀을 공양한 이야기도 있고, '전생담' 중에는 사냥꾼으로부터 동료 원숭이를 구하는 선업(善業)의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 등 많은 설화가 들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교 속의 원숭이는 번뇌, 망상으로 이리저리 치달리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한다. <유교경>의 가르침은 대표적이다.

"부지런히 힘써 마음을 항복 받아라 이 오근(눈, 귀, 코, 혀, 몸)도 그 주인은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그 마음을 제어하라. 마치 그것은, 큰 원숭이가 나무를 만나서 이리 뛰고 저리 날뛰어 제어하기 어려움과 같으니, 마땅히 빨리 그것을 바로잡아 방일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유교경>은 "이 (원숭이 같은) 마음을 놓아 버리면 모든 착한 일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그것을 한 곳에 모아 두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비구는 마땅히 힘써 나아가 마음을 항복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역대의 선사들 역시 원숭이 같은 어지러운 마음을 쉬는 것이 수행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석두(石頭) 스님은 선(禪)의 이치를 이렇게 해설했다. "마음의 원숭이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생각에서 나온 말은 사방으로 달리며, 신기(神氣)는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진다."(참동계) 사람이 번뇌 때문에 잠시도 마음과 생각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것을 원숭이와 말에 비유한 '심원의마(心猿意馬)'라는 고사성어는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왕양명은 학문의 첫 목적이 지식에 있지 않고 마음의 안정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고사를 자주 인용하곤 했다.

반산보적 선사도 부질없이 외연을 좇는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했다. "끝없이 위로 향하는 외가닥 길은 천 명의 성현도 전하지 못하거늘 교학자들은 공연히 헛수고를 하니, 마치 원숭이가 물속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선문염송)

이와 같은 '원숭이 마음'을 비우고 버리는 것은 참된 성품(性品)을 보는 선 수행의 핵심이기도 하다. 홍은 스님은 이렇게 설했다. "'어찌해야 성품을 봅니까?' '창문이 여섯 개 있는 어떤 방에 원숭이를 넣고 기른다고 하자. 동쪽에서 원숭이 이름을 부르면 그 원숭이가 아는 체하고, 나머지 창문의 어느 곳에서나 부르면 모두 아는 체하니 그렇게 해야 한다.'"

중생의 마음은 언제나 마음 안과 밖의 사상(事象)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대상에 반연하면 응당 거기에 머물게 되고, 머물면 살아 숨쉬는 생동감이 사라져버린다. 집착과 미혹이 활발발한 성품의 작용을 가로막는데, 이것이 본래 부처임에도 중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혜능 스님 등 여러 조사들은 생각이 한 곳에 매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자재롭게 활동하는 '무주(無住)'를 강조했다. 무주는 언제 어디서나 활발하게 작용하는 것이며, 무지나 혼돈에 침체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우고 버리는 공부가 필요하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좋아하고 싫어함 등 시비와 분별하는 마음을 쉬는 일이다. 임제종의 한 유파인 접현종의 틱낫한 스님은 "인간의 마음은 원숭이의 마음과 같다.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결코 멈추지 않는다"(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며 분별심을 쉴 것을 말한 바 있다.

서산 대사는 세속적 현실에 매몰되거나 관념적 울타리에 갇힌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현실만 따르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 같고, 마음만을 붙잡으려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범부들은 눈 앞의 현실에만 따르고, 수도인은 마음만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마음과 바깥 현실 두 가지를 다 내버리는 이것이 참된 법이다."(선가귀감)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해서 설법하는 것은 티베트 불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미국의 법우재단(Dharma Friendship Foundation)이 상임법사인 툽텐 최된(Thubten Chodron) 스님은 <원숭이 마음 길들이기>라는 책에서 본 마음은 이러하다.

"원숭이들이 한 물건을 잠시 갖고 놀다 금방 실증이 나서 다른 물건을 찾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지속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 이 생각에서 저 생각, 이 감정에서 저 감정, 이 곳에서 저 곳으로 내달리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항상 행복을 우리 밖에서 찾을 뿐, 참된 행복의 열쇠인 마음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잔꾀만 내려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한 원숭이지만, 그 분주한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정법을 수호하는 손오공으로 거듭날 수도 있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구법(求法) 여행을 떠나는 삼장법사의 마음으로 '원숭이 마음'을 길들여 보자.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갑신년에 어떤일이?

▶384년(백제 침류왕 1)=9월, 마라난타 스님 진(晋)으로부터 백제에 옴. 백제불교의 시작.

▶684년(신라 신문왕 4)=8월, 백제의 도녕(道寧) 스님, 일본에서 비를 빌어 가뭄을 구제.

제3 왕자 무상(無相) 출생(762 입적).

▶804년(신라 애장왕 5)=9월, 망덕사의 두 탑이 서로 부딪침.

보조체징(普照體澄) 스님 출생(880 입적).

진감혜소(眞鑑慧昭) 스님, 세공사(歲貢使)를 따라 당에 들어감.

▶864년(신라 경문왕 4)=4월 10일, 선각형미(先覺逈微) 대사 출생(917.8 입적)

광자윤다(廣慈允多) 스님 출생(926 입적)

선각도선(先覺道詵) 스님, 옥룡사 창건

▶924년(신라 경명왕 8)=2월 19일, 신라 황룡사에 백고좌를 개설해 경을 강의하고, 선승 300인을 공양함.

4월 1일, 봉림사 진경대사비 세움.

신라, 왕이 승하하니 황복사에서 화장.

봉암사 지증대사비 세움.

정진긍양(靜眞兢讓) 스님, 중국에서 돌아옴.

법경현휘(法鏡玄暉) 스님, 구봉도건(九峰道虔) 스님의 법을 얻고 중국에서 귀국.

▶1104년(고려 숙종 9)=3월 6일, 회경전에서 인왕도량을 개설, 스님 1만명을 공양함.

별무반을 세우고 승도를 뽑아 항마군(降魔軍)을 삼음.

▶1404년(조선 태종 4)=12월, 사간원, 부녀가 절에 다니는 것을 금지.

▶1464년(조선 세조 10)=1월 5일, 간경도감, <선종영가집 언해> 2권 조판간행, <아미타경 언해> 조판 간행.

4월 7일, 간경도감, <금강경육조해 언해> <심경 언해> 조판 간행.

고려의 오랜 풍속인 전경법(轉經法)을 부활시킴.

▶1644년(조선 인조 22)=5월 10일, 편양언기(鞭羊彦機) 스님 입적(1581 출생).

▶1704년(조선 숙종 30)=1월 4일, 월담설재(月潭雪齋) 스님 입적(1632출생).

▶1764년(조선 영조 40)=8월 7일, 송파각휜(松坡覺暄) 스님 입적(1686 출생).

사암채영(獅巖采永) 스님, <불조원류> 지음.

▶1884년(조선 고종 21)=1월 13일, 지암이종욱, 강원도 양양에서 출생(1969 입적).

5월 9일, 보암 유부연, 황해도 토산에서 출생.

일본 대곡파 본원사, 인천별원 창건.

▶1944년=3월 15일, 총독부, 31본사 주지에게 조선불교진흥책(皇道불교 확립, 불교민중화, 불교 생활화)으로 회보(回報) 발행.

4월 28~29일, 조계종, 제1회 포교사자격검정시험 실시.

6월 26일, 미술사학자 고유섭 입적(1904 출생).

6월 29일, 만해 한용운 스님, 심우장에서 입적(1879 출생).

9월 30일, 혜화전문학교(동국대 전신), 전시 교육비상조치에 따라 강제 폐교.

12월 7일, 태고사에서 대동아전쟁 3주년 기념 전몰장병 위령법요 거행.

12월 8일, 종교보국회 결성.

〈453호 「상식퍼즐」 정답〉



"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격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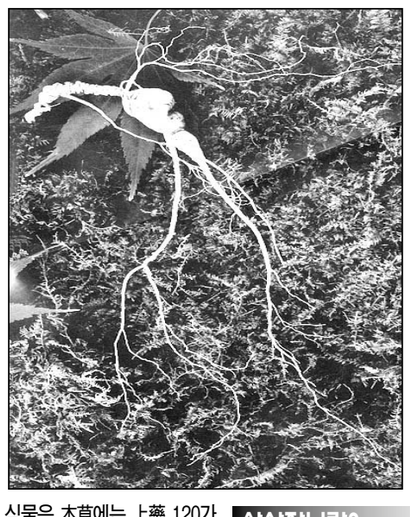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바꾸자 그리고 희망을 쏘자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설문

변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명제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그 흐름을 읽지 못하는 한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물결 속에 휩쓸리고 말 것인가.

1994년의 불교개혁.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쳐야 할 것은 많다. 구습은 여전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없다.

문제는 어떻게 변하느냐다. 무조건의 변화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교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희망을 찾는 일이다.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설문을 통해 오늘의 자화상을 그려봤다.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계율, 잘 지키지만 '변화' 도 필요하다

● 설문조사 취지 및 의미

올해는 불교 개혁 10주년이자 현대불교 창간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대불교 10년에는 불교 변화의 파노라마가 그대로 투영돼 있다.

그동안 불교는 많은 변화를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들은 많다. 불교가 미래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현대불교는 한국불교가 무엇을 벗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신년특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의 방향은 계율, 불교 이미지, 발전방향 등 크게 세 가지다.

계율은 승 · 재가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바로미터다. 따라서 계율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불교 이미지에 대한 조사는, 승 · 재가는 물론 불교 전체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또한 현재 한국불교의 모습 그대로를 파악하고 무엇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파악한 것도 이번 설문에서 빼놓아서는 안될 핵심이다.

스님 · 타종교인 · 비불교도 711명 응답
50대 가장 많고 남 53%, 여 46.9% 비율
본지, 독자대상 문제점 등 설문조사

설문은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불교인과 비불교인의 시각을 고루 반영하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 스님과 재가불자 외에 다른 종교 성직자와 일반인(타종교인과 무종교인)을 고르게 포함시켰다.

설문 방식은 우편과 이메일 설문을 병행했으며, 모두 1만부를 발송해 711부를 회수했다. 응답자 신분별로는 스님 200명, 다른 종교 성직자 15명, 불교신도 327명, 일반인(타종교인 및 무종교인) 167명이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7명(27.7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87명(26.31%)-60대 이상 130명(18.28%)-30대 97명(13.64%)-20대 90명(12.66%)-10대 10명(1.40%) 순이었다. 10대와 다른 종교 성직자는 표본수가 작아 연령별, 신분별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성별은 남자 377명(53.02%), 여자 334명(46.98%)으로 비슷했다.

한명우 · 권형진 · 김철우 · 김은경 기자

10점 기준…스님 7점 33.6% 가장 많아
재가자 5점 이하 29.0%나…잘 안지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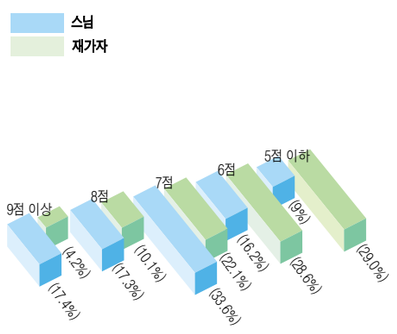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점수(10점 만점)를 준다면?

승가의 경우는 '7점(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다)'이 33.6%로 가장 많았고, 9점이상(잘 지키고 있다)17.4%-8점(문제없다)17.3%-6점(잘 지키지 않는다)16.2%-5점이하(상당히 문제있다)9.0% 순이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다소 우세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스님들 스스로가 계율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5~6점을 준 스님이 33.5%나 됐다. 불자와 일반인의 20~25%에 비해 10% 가량 높은 수치다.

불교신도에 대한 계율 점수는 5점이하가 28.9%로 가장 많았고, 6점 28.6%-7점 22.1%-8점 10.1%-9점이상 4.2%순이었다. 부정적 시각(5~6점)이 57.4%로, 긍정적 시각(8~9점이상) 14.3%보다 훨씬 높았다.

계율 어느정도 지키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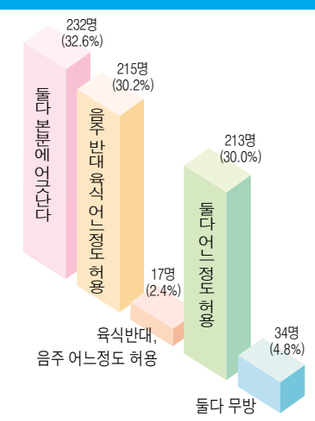


스님33.5%(200명중 67명) "경험 있다"
"어느정도 괜찮다" 60%가 관대한 견해

스님 응답자 200명 가운데 출가 이후 육식, 음주,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는 18명(9%)에 불과했다. '육식과 음주를 해봤다'는 응답이 67명(33.5%)로 가장 많았고, '세 가지 모두 다 해봤다'는 응답자도 42명(21%)이나 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육식을 해봤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흡연 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스님들의 음주와 육식에 대한 보편적 인식은 어떨까. 전체 711명의 응답자 가운데 232명(32.6%)만이 '둘 다 본분에 어긋난다'고 답했을 뿐, '육식은 어느 정도 괜찮다' 30.2%, '둘 다 어느 정도 괜찮다' 30.0%를 합쳐 60% 넘는 응답자가 최소한 육식은 허용해도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인보다는 스님과 불교신도가 조금 더 개방적이었으며, 음주는 괜찮다고 한 응답은 7% 정도에 불과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스님의 음주 · 육식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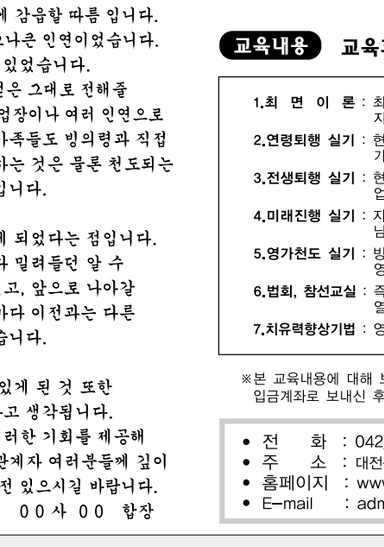


계율이 시대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64.7%로, 아니라는 응답 34.9%에 비해 20% 가량 높았다. 이같은 시각은 일반인(72.5%)은 물론 스님(61.5%)과 불교신도(62.1%) 사이에서도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질문을 설문의 1번 문항에 배치해 음주나 육식 등과 관련한 다른 문항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계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든 모르든 간에, 계율에 대해 고전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평소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연령별로는 20 · 30대에서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 정도로 높았으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7%정도 많게 변화를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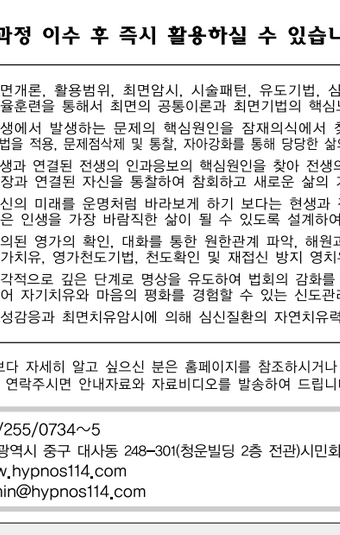
계율 바꿔야 하나
"시대 따라 변해야" 64.7% 차지
스님 61.5%, 불자들 62.1%가 긍정적



승용차 소유에 대해서는 '문제시할 일이 아니다'(42.6%)는 답변이 가장 높은 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소형 승용차나 사찰 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44%가량이었다. 스님들의 활동에 승용차가 필수항목임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시할 일이 아니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를 신분별로 비교하면 스님(55.5%)보다 일반인(36.5%)이 훨씬 적었다.

그러나 골프와 스키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본분에 어긋난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았다. '국민정서상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36.4%에 이르는 등 부정적 인식이 74%를 넘었다. 이같은 부정적 시각은 스님이 가장 높았다. 스님들 스스로가 출가자가 즐기기에는 적절한 스포츠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무방하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다.

스님 승용차 보유, 골프 · 스키 허용
소형 · 사찰명의 소유 문제 안돼 44%
"골프 · 스키 본분에 위배" 74%가 부정적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아주 오래된 과학, 특별한 치유의 세계!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원"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신탁의식을 행했던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TV를 통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간혹 소개가 되고 있지만 **최면의 진정한 활용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은 아주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많은 유명 대학에서는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 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최면에는 여러 분야가 있으나 금번 한국전생빙의연구원에서 **전생, 빙의 전문가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영성 개발은 물론 직접 현장에서 타인의 영혼 치유에 필수적인 **전생퇴행기법과 빙의처리기법**을 중심으로 최면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바쁘신 수행일정을 고려하여 총4회, **집중훈련 특별워크샵과정**을 통해 단기 완성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최면을 알게 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자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게 됨으로써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최면은 인간의 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활동을 실험, 검증,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학적체계가 완성된 가장 유용한 방편일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전생과 현생의 업장과 습으로 인해 윤회의 고해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전생과 현생의 업을 정화**시키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통로이자 궁극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먼저 이러한 인연으로 인도해 주신 부처님께 감음할 따름 입니다.
한국전생빙의연구원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로 인해 고통받는 신도는 물론 가족들도 빙의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 원을 풀고 깨닫게 하여 천도하는 것은 물론 천도되는 모습까지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중략 -
또 하나는 저 스스로 현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 자신의 전생을 알고 나서 참선할 때마다 밀려들던 알 수 없는 허망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아주 깊은 선정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략 -
또한 여러 불사를 힘들이지 않고 이룰 수 있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인연을 통한 통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전생빙의연구원의 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00사 00 합장

「전생, 빙의 전문」 특별워크샵

WWW.HYPNOS114.COM

교육내용 교육과정 이수 후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최 면 이 론 : 최면개론, 활용범위, 최면암시, 시술패턴, 유도기법, 심화기법, 자기최면, 자율훈련을 통해서 최면의 공통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2.연령퇴행 실기 :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최면심리치료 기법을 적용, 문제점삭제 및 통찰, 자아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3.전생퇴행 실기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참회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게 한다.
4.미래진행 실기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확신시켜준다.
5.영가천도 실기 : 빙의된 영가의 확인, 대화를 통한 원한관계 파악, 해원과정, 빙의증세치유, 영가치유, 영가천도기법, 천도확인 및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6.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 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신도관리법을 자문함.
7.치유력향상기법 : 영성감응과 최면치유암시에 의해 심신질환의 자연치유력 향상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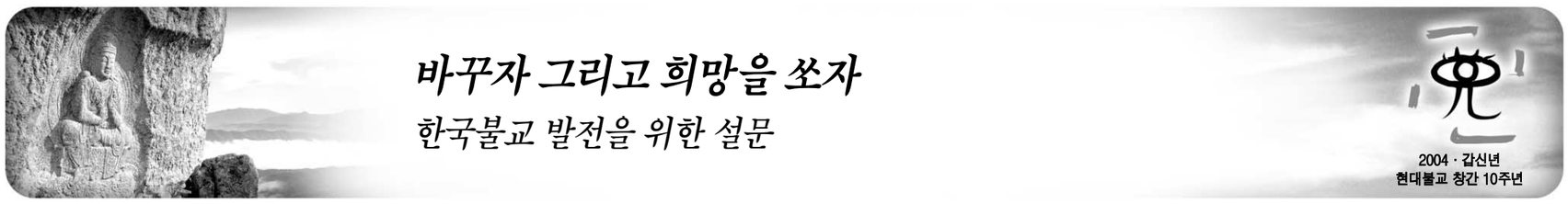
大野 임재형 박사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아카데미 원장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 2층 전관)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E-mail : admin@hypnos114.com

주최 : 한국 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아카데미 WWW.HYPNOS114.COM

[특 전]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전생상담사 인증서 수여
[교육기간] 1차 : 1월 7일(수) 오후 12:30 ~ 오후 9:00까지
2차 : 1월 8일(목) 오전 10:00 ~ 오후 8:00까지
3차 : 1월 12일(월) 오후 12:30 ~ 오후 8:00까지
4차 : 1월 19일(월) 오후 12:30 ~ 오후 8:00까지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전화접수 후 입금 또는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확실한 신분 보장
[교 육 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의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



인류의 '목탁' 위해 경쟁력 더 높여야

개선해야할 점

승가교육이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은 필요성을 넘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물줄기인 듯하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복수(2개까지 가능)로 물은 결과 '스님의 자질'을 든 응답자(19%)가 가장 많았다. 불교신도(15.9%)들도 이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이러한 응답은 말 그대로 '자질이 낮다'는 뜻보다는 '승가교육체계의 개혁'을 요구하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다른 문항에서 어떤 종교의 성직자가 가장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6.3%가 불교라고 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천주교(41.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승가교육체계 개혁 필요
재정투명·사회참여 저조

계종만 해도 출가해서 정식 스님인 비구(니)계를 받기까지의 교육 기간과 내용이 다른 종교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은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사회참여 부족'(14.6%)과 '기복화'(11.5%)를 든 응답자의 비율도 만만치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다음으로 많은 불교신도들이 '사회참여 부족'(12.8%)과 '기복화'(11.8%)를 든 데 반해 스님들은 '내부 분열'(25.3%)과 '사찰재정 불투명'(14.2%)을 들었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이 '스님의 자질'(12.3%)이나 '사회참여 부족'(12.3%)보다 '내부 분열'(14.4%)을 최우선순위로 꼽았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대목이다. 이 질문에 대한 불교신도들의 무응답 비율이 무려 30.9%에 달한다는 것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드러내놓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껄끄러워 하는 불교계의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

한국불교의 현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절대 다수가 '불교가 변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불교가 희망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아니다'는 생각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모순인 듯한 이번 결과는 불교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과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높은 기대치'와 그러한 눈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질타'를 동시에 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전체의 94.8%를 차지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높았지만, 전체의 36.4%는 '개혁 수준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대로가 괜찮다'는 응답은 4.2%에 머물렀다. 일반인(26.3%)보다는 불교신도(37%)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강도의 변화를 요구했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개혁적 수준의 변화'(45.5%)를 요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에게 희망주는 종교다 44%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의 30.4%가 종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29.1%)이라는 응답이 바짝 뒤를 쫓았다. 다른 종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22.8%)과 구습과 구태가 여전하기 때문(17.4%)이라는 응답도 비슷한 비율로 거론됐다. 불교신도들은 사회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지 못한 점(30.9%)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일반인들은 다른 종교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29.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가히 '종합병원'이라고 부를 만한 데도 불구하고, 불교가 지금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44%가 '그렇다'고 응답해 '아니다'(32.8%)를 앞섰다. 앞서 질문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 필요'를 고른 응답자 중 '희망을 주고 있다'(26.9%)고 답한 사람이 '아니다'(15.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개혁적 수준의 변화'를 요구했던 응답자의 경우 '아니다'(16.6%)는 답이 '희망을 주고 있다'(13.8%)보다 높게 나왔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한국불교의 앞날

"21세기 인류의 대안은 불교 사상이다." 21세기 들머리에 유행처럼 회자되던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사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불교'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천주교(6.3%)가 근소한 차이로 개신교(5.5%)를 앞섰으나 불교와는 차이가 컸다. 스님과 불교신도들이 '불교'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87%와 85.6%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종교가 없거나 불교 이외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천주교(38.9%)—개신교(16.7%)—불교(6%) 순으로 답해 뚜렷한 인식 차를 보였다. 또 이들 일반인의 경우 '막연한 느낌' 때문에 그 종교를 선택했다는 응답(29.8%)이 두 번째로 높아, 사찰 수련회나 템플 스테이 등에 대한 일반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불교에 대한 인식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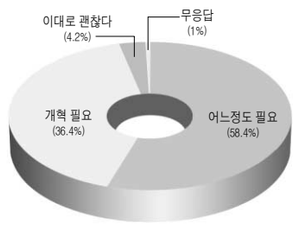
미래 걸맞는 교리·사상 갖춰 75%

희망적인 것은, 40(81.8%)·50(82.8%)·60대(79.2%)뿐 아니라 20대(51.1%)에서도 불교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20대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는 각각 10%, 8.8%에 그쳤다.('없다'가 23.4%) 20대 90명 중 33.4%(31명)만이 불교신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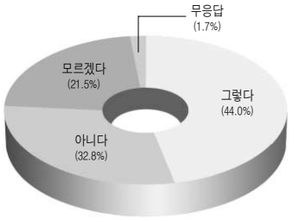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 그 종교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전체의 57.4%가 "그 종교의 교리가 미래사회에 걸맞은 사상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18.6%)이 다음으로 많았다.

종합하면, 미래사회에 걸맞은 사상체계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며, 불교가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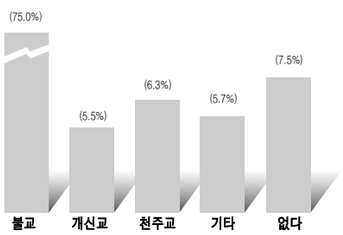
불교의 변화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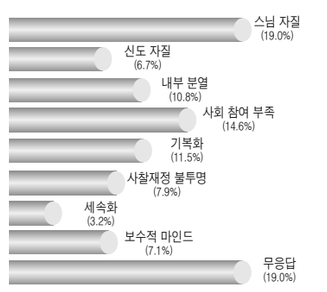
불교는 희망을 주고 있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謹賀新年
대한불교조계종
해동제일지장기도영험도량
충 효 사
회 주 원감 석해공 합장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60번지 / 전화 054)338-8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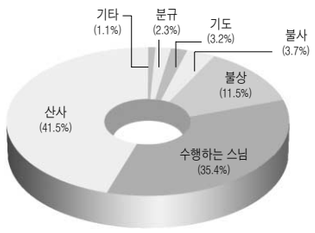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주말용맹정진기도 약사도량 무학사 / 전화 054)262-3802
천일지장경독송회 근본도량 염불원 / 전화 054)272-1077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충효자비원 / 전화 054)338-1152

한가지 소원성취
약사여래부처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갓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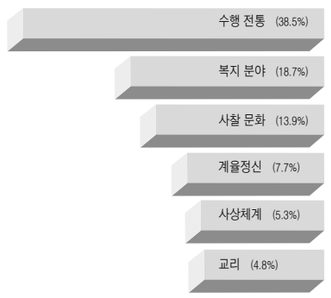


대 중 일 동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
전화053)851-1868(선본사) / 053)851-1869(갓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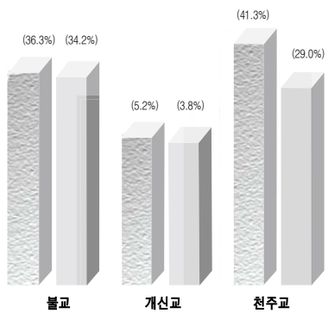
'불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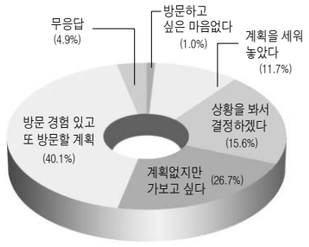
한국불교가 발전시켜야 할 것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



사찰 방문 계획은?



불교에 대한 이미지

산사-수행-불상-불사-기도의 순

'불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산사(山寺)'였다. 전체 711명 가운데 295명(41.5%)이 이렇게 답했으며, 다음으로 252명(35.4%)이 '수행하는 스님'을 택했다. 10명 중 8명이 산사와 수행하는 스님을 불교의 대표적 이미지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불상(11.5%)-불사(3.6%)-기도(3.2%)-분규(2.3%) 순이었다. 신분별로 보면 '산사'의 경우는 일반인이, '수행하는 스님'은 스님이 가장 많이 선택했으나, 산사와 수행하는 스님을 선택한 비율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불교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강한 인상을 주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산사와 수행하는 스님이 많이 꼽혔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불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분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 수행법은 참선이었다. 334명(46.9%)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불교 수행법으로 '참선'을 꼽았고, 염불(15.7%)-절하기(15.6%)-독경(10.9%)-사경(2.2%) 순이었다. 최근 수행 층이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위빠사나 수행을 꼽은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발전시켜야 할 것

'수행' 38.5%로 압도적, 다음 사회복지

수행전통이 38.5%로 압도적이었다. 한국불교의 가치와 미래가 바로 수행전통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수행전통을 올곧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곧 불교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인 셈이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률을 보인 분야는 복지다. 응답자의 18.7%가 이 항목을 꼽았다. 이는 현재 승가복지를 포함한 불교복지와 불교의 사회적 복지활동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찰 문화(13.9%)-계율정신(7.7%)-사상체계(5.34) 순이었으며, 교리(4.7%)-환경문제(3.3%)-문화재 발굴 보존(2.6%) 등은 낮게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일반인의 경우 사찰 문화를 꼽은 비율(23.9%)이 스님(7%)이나 불교신도(13%)보다 2~3배나 많다는 점이다. 불교인이 아닌 경우 사찰 문화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분야에 대한 응답도 눈여겨볼 만하다. 스님의 경우 수행전통 다음으로 복지(30%)를 꼽았는데, 일반인의 10%와 비교하면 3배나 높은 수치다. 이는 승가복지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존경받는 성직자

10명중 4명이 신부 응답, 스님은 두번째

응답자 10명 중 4명꼴(41.3%)로 천주교를 꼽았다. 불교는 36.3%로 두 번째였고, 개신교는 5.2%로 상당히 낮았다. 스님과 불교신도 응답자들도 2%의 근소한 차이지만 천주교 성직자를 더 높게 평가했다. 개신교 성직자에 대해서는 스님과 불자들(1.5~2.8%)보다는 일반인(12.6%)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

신분별 응답률을 보면 스님을 꼽은 비율이 스님이나 불교신도의 경우 각각 39.5%, 41.6%인데 비해, 일반인의 경우는 24%에 그쳤다. 불교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스님'과 비불자들이 바라보는 '스님'에는 적지 않은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존경받는 성직자가 없다'는 응답도 전체 순위에서 천주교-불교에 이어 세 번째(11.5%)로 나타난 것은 곱씹어볼 만하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는 20.9%가 존경하는 성직자가 없다고 답해 종교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덕과 윤리 의식이 가장 높은 종교인에는 불교(34.2%)가 꼽혔으며, 천주교(29.0%)가 그 뒤를 이었다. 스님과 불교신도들이 불교에 많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다. 개신교는 3.8%로 낮았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천주교(32.3%)-불교(16.8%)-개신교(11.4%) 순으로 답했다.

사찰 방문 계획

주5일제 영향…40.1%가 "다시 찾겠다"

불교신도와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사찰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응답자의 40.1%가 '이미 방문해본 적이 있으며 다시 방문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계획은 없지만 가보고 싶다'는 응답도 26.7%나 됐다.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응답자는 11.7%였다.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15.6%였으며, '가보고 싶지 않다'는 대답은 1%로 극소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응답자 10명중 8명이 사찰을 방문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사찰을 찾거나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만 따로 분석한 결과 '방문 경험이 있고 다시 방문할 계획'(31.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계획을 세워놓았거나 방문하고 싶다는 대답도 36%에 달해 사찰이 국민의 휴식처이자 정신적 귀의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불교계는 이같은 흐름을 고려해 최근 일반인과 기업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템플 스테이나 사찰 체험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등의 확대 발전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 권형진 · 김철우 · 김은경 기자

설문조사 결과

■신분
①스님 200명(28.13%) ②스님 외 성직자 15명(2.11%) ③불교신도 327명(45.99%) ④일반인(무종교인이나 불교 외 종교인) 167명(23.49%) ⑤무응답 2명(0.28%)

■연령
①10대 10명(1.40%) ②20대 90명(12.66%) ③30대 97명(13.64%) ④40대 187명(26.31%) ⑤50대 197명(27.79%) ⑥60대 이상 130명(18.20%)

■성별
①남 377명(53.02%) ②여 334명(46.98%)

■거주지
①서울 188명(26.44%) ②인천 · 경기 134명(18.85%) ③강원 34명(4.78%) ④대전 · 충남 57명(8.02%) ⑤충북 25명(3.52%) ⑥부산 · 경남 83명(11.67%) ⑦대구 · 경북 117명(16.46%) ⑧광주 · 전남 38명(5.34%) ⑨전북 22명(3.09%) ⑩제주 13명(1.83%)

1. 계율이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그렇다(64.7%) ②아니다(34.9%) ③무응답(0.4%)

2. 출가자(스님)의 음주와 육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분분에 어긋나는 일(32.6%) ②음주는 반대, 육식은 어느 정도 괜찮다(30.2%) ③육식은 반대, 음주는 어느 정도 괜찮다(2.4%) ④둘 다 어느 정도 괜찮다(30.0%) ⑤둘 다 무방(4.8%)

3. 출가자가 개인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안하는 것이 좋다(12.9%) ②소형은 괜찮다(11.9%) ③문제시할 일이 아니다(42.6%) ④사찰이나 단체 등의 명의는 괜찮다(32.6%)

4. 출가자(스님)가 골프와 스키 등의 스포츠를 즐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분분에 어긋난다(37.8%) ②국민정서상 안하는 것이 좋다(36.4%) ③건강을 위해서라면 괜찮다(19.7%) ④무방하다(5.9%) ⑤무응답(0.2%)

5. 불교에서는 출 · 재가 모두 5계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고 보는지, 점수를 주신다면?(10점 만점 기준)

5-1. 스님의 경우는?
①9점 이상(17.4%) ②8점(17.3%) ③7점(33.6%) ④6점(16.2%) ⑤5점 이하(9.0%) ⑥무응답(6.5%)

5-2. 재가자(불교신도)의 경우는?
①9점 이상(4.2%) ②8점(10.1%) ③7점(22.1%) ④6점(28.5%) ⑤5점 이하(29.0%) ⑥무응답(6.1%)

6. (스님들만 응답) 출가 이후 육식, 음주, 흡연 경험이 있으십니까?(해봤다-○, 해보지 않았다-×)
①육식-○, 음주-○, 흡연-○(21.0%) ②육식-○, 음주-○, 흡연-×(33.5%) ③육식-○, 음주-×, 흡연-○(4.0%) ④육식-○, 음주-×, 흡연-×(27.0%) ⑤육식-×, 음주-○, 흡연-○(0.5%) ⑥육식-×, 음주-×, 흡연-○(2.5%) ⑦육식-×, 음주-○, 흡연-×(2.5%) ⑧육식-×, 음주-×, 흡연-×(9.0%)

7. '불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①산사(山寺)(41.5%) ②수행하는 스님(35.4%) ③불 상(11.5%) ④분 규(싸움)(2.3%) ⑤기도(3.2%) ⑥불사(사찰건립)(3.7%) ⑦기타(1.1%) ⑧무응답(1.3%)

8.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한국불교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2개까지 가능)
①스님 자질(19.0%) ②신도 자질(6.7%) ③내부 분열(10.8%) ④사회참여 부족(14.6%) ⑤기복화(11.5%) ⑥사찰재정의 불투명(7.9%) ⑦세속화(3.2%) ⑧보수적 마인드(개혁성향 부족)(7.1%) ⑨기타(0.2%) ⑩무응답(19.0%)

9. 불교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개혁적 변화 필요(36.4%) ②어느 정도의 변화 필요(58.4%) ③이대로가 괜찮다(4.2%) ④무응답(1.0%)

9-1. (9번 질문에 ①,②번으로 답한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①종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30.4%) ②사회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29.1%) ③다른 종교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22.8%) ④구습과 구태가 여전하기 때문(17.4%) ⑤기타(0.3%)

10. 한국불교가 가장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
①수행전통(38.5%) ②문화재 발굴 보존(2.7%) ③불교문화(13.9%) ④교리(4.8%) ⑤계율정신(7.7%) ⑥템플 스테이(2.4%) ⑦사상체계(5.3%) ⑧복지문제(18.7%) ⑨환경문제(3.4%) ⑩기타(0.3%) ⑪무응답(2.3%)

11. 불교가 지금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그렇다(44.0%) ②아니다(32.8%) ③모르겠다(21.5%) ④무응답(1.7%)

12. 우리나라 종교인들 중 어떤 종교의 성직자가 가장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불교(36.3%) ②개신교(5.2%) ③가톨릭(41.3%) ④원불교(0.7%) ⑤천도교(0.3%) ⑥유교(0명) ⑦민족종교(0명) ⑧기타(1.3%) ⑨없다(11.5%) ⑩무응답(3.4%)

13. 어떤 종교의 종교인들이 도덕적 윤리적 의식이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①불교(34.2%) ②기독교(3.8%) ③천주교(29.0%) ④원불교(2.4%) ⑤유교(1.3%) ⑥천도교(0.1%) ⑦민족종교(0.1%) ⑧기타(2.7%) ⑨대부분 높다(9.0%) ⑩대부분 낮다(14.6%) ⑪무응답(2.8%)

14. 미래사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불교(75.0%) ②기독교(5.5%) ③천주교(6.3%) ④원불교(0.6%) ⑤유교(0.3%) ⑥천도교(0명) ⑦민족종교(0.6%) ⑧기타(2.4%) ⑨없다(7.5%) ⑩무응답(1.8%)

14-1.(14번 질문에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①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18.6%) ②그 종교 성직자들의 자질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7.4%) ③그 종교의 교리가 미래사회에 걸맞은 사상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57.4%) ④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14.1%) ⑤무응답(2.5%)

15.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찰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십니까?(일반인과 불자들만 응답)
①계획을 세워놓았다(11.7%) ②계획은 없지만 가보고 싶다(26.7%) ③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15.6%) ④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1.0%) ⑤이미 방문해본 적이 있고 또 방문할 계획이다(40.1%) ⑥무응답(4.9%)

16. 귀하께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불교 수행법은?
①참선(47.0%) ②염불(15.7%) ③독경(11.0%) ④위빠사나(1.5%) ⑤사경(2.2%) ⑥절하기(15.6%) ⑦기타(1.5%) ⑧무응답(5.5%)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공생선원
주 지 무각(無覺)
사무대중일동
■ 서울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08호
TEL 02)900-2448

대한불교대각종 서울교구원장 주석사찰
대각정사 · 대각불교대학
주 지 해 각
신도일동
■ 서울 강서구 화곡2동 835-3
TEL 02)2699-6384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주 지 성덕
대중일동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91-6
TEL 054) 976-8116
FAX 054) 976-6802

대한불교 총화종 경북교구
포항운주산 도선사
종무원장
주 지 운산
신도일동
※갑신년 해맞이 기원대법회
법어 : 화담대종사
일시 : 2003년 12월 31일 저녁 7시
~ 2004년 (갑신년) 1월 1일
오전 12시 까지
장소 : 포항시 북구 해수욕장
(불자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2리 1488
TEL 054) 246-4467
FAX 054) 241-4718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적멸극락 보궁 건립 추진위원회
증명법사 고 산
회 주 현 성
주 지 지 성
사부대중 일동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TEL 055)672-0100, 672-0489
FAX 055)672-0481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경남종무원
종무원장 임지수 스님
총무국장 김도원 스님
교무국장 안무연 스님
재무국장 송연화심 교임
사회국장 이지명 스님
의전국장 손덕산 스님
포교국장 박지선 스님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84-9
TEL 055)356-9602



대한불교 조계종
운문사 · 운문승가대학
주지 명성
대중일동
www.unmunsa.or.kr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전화 : 054) 372-8800 팩스 : 054) 371-0359

최 정 사
주지 금 봉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동리 302
전화 : 053) 767-4860

제 2 갓 바 위
향림사 · 선재불교대학
주지 정 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륵리 산 1
전화 : 053) 767-7504
팩스 : 053) 767-7503

대한불교 천태종
하양 무학사
주지 황 평 산
■ 경북 경산시 하양읍 양지리 109
전화 : 053) 853-2330 / 851-2330

대한불교 원효종 경북교구총무원
고 왕 사
주지 성 묵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367-3
전화 : 054) 261-0370

대한불교
조 계 종 **원 만 사**
원만사 부설 유치원
주지 법 홍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전화 : 053) 257-1914

대한불교 조계종
최정산 법계사
주지 무 관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212
전화 : 053) 768-2251
팩스 : 053) 768-1251

청 룡 사
주 지 서 암
신도회장 정한국
부 회 장 장임현
총 무 권성분
■ 경북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산200
전화 054) 532-9808 / 533-0823

삼천불 봉안 불사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정토사 · 정토불교대학
주지 산 하 덕 진
사부대중 일동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번지
전화 : 052) 274-3800

대한불교 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임 대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전화 : 054) 247-2729(팩스겸용)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 경북불교대학
바른 배움 / 바른 깨침 / 바른 포교
주지 돈 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전화 053) 792-1353, 1181
팩스 053) 791-4951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송광사 대구본원
관 음 사
주지 元 明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가 26
전화 : 053) 421-3700
팩스 : 053) 427-1889

불광한방병원
이사장 김 웅 석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 2동 510-3
(동부 정류장 네거리)
전화 : 053) 753-9353~5

대한불교 원융종 경북종무원장 주석사찰
황 불 사
주지 불 선
신도일동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 3리 223
전화 : 054) 292-0828~9
팩스 : 054) 292-0820

대한불교 조계종
청 계 사
주지 설 정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전화 : 053) 793-1551

대한불교 조계종
광 덕 사
주지 운 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전화 : 053) 763-0068

대한불교 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 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전화 : 054) 931-7777

금강삼매원
(호위사계 금강삼매경 독송회)
천일기도 : 입재 2001. 11. 29
~ 회향 2004. 8. 25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10-3 (달성네거리)
전화 : 053) 561-4714

마음헛컷 · 국토헛컷
대한불교 조계종
보 현 암
주지 선 진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전화 : 053) 767-0274
팩스 : 053) 762-8950

최정산 남지장사
주지 합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륵2리 865번지
전화 : 053) 768-9920

대한불교 조계종
천성산 내원사
동국제일선원 비구니선방
주지 혜 등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291
전화 : 055) 374-6466

대 산 사
주지 선 오
■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1143
전화 : 054) 372-6534

세계 최대불교 종합복지관 건립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법 왕 사
회주 정 무
주지 실 상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116
전화 : 053) 766-3747, 9088
팩스 : 053) 767-6095

대한불교 조계종
팔공산 보덕사
대중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63
전화 : 054) 976-0108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보 현 사
주지 기 형
신도일동
■ 경북 경주시 황남동 221-25
전화 : 054) 741-1825 (팩스겸용)

대한불교 조계종
서 봉 사
주지 경 희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전화 : 053) 471-8212
팩스 : 053) 471-4813

대한불교 조계종
수 도 암
주지 현 선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2동 136-44
전화 : 053) 743-7070

대한불교 조계종
복지법인 나눔의 집
주지
원장 운 류
신도,직원 일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423
전화 : 052) 211-5666, 212-1178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보건복지대학
(자격증 취득대학)
학장 정 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800-6(불교회관 3층)
전화 : 053) 628-7573
서울교육장 : 02) 2618-2124
팩스 : 053) 311-8922

믿고 맡길수 있는 불교은행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한뼘더 튼튼하게!
· 5천만원까지 신협예금자
보호기금으로 변함없이 보장
· 불자님을 위한 저금리 시대의
고수익확정금리 5.5% 상품
■ 전화 053)426-1037 / 팩스 053)426-5675

불교정통 꽃꽂이
원장 박필상
서울 동국대 불교 꽃꽂이 이수,
경주 동국대 불교 꽃꽂이 강좌 출강
회원 모집(수시)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800-6(불교회관3층)
전화 : 053) 956-7780(야)
핸드폰 : 011-541-7769

신세기교통
대표이사 김대희
대구사원주지 연합회 신도회장,
무료급식소 불자의 집 운영위원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754
전화 : 053) 527-2502

고향떡집
최고 품질 재료와 섬세한 손씨로
만든 정성과 품격이 담긴 혼례음식,
폐백, 이바지 음식과 각종 떡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전지역 택배)
■ 전화 : 053) 472-9597
(대구 앞산 효성타운 대구은행 맞은 편)

현대자동차 부품대리점
동남자동차부품
대표 박희천
■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966

델타 석유
보일러 실내등유 할인 판매 (신속 공급)
대표 박성일(보경)
■ 전 화 (053) 767-5122
핸드폰 016-531-5006



바꾸자 그리고 희망을 쏘자

한국불교의 희망찾기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때로는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정작 두려운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

아직도 고치고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불교는 여전히 '희망'적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구현하고자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스님과 불자들. 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조계·태고·천태·진각종 총무원장과 통리원장, 그리고 불교계 주요 단체장들의 꿈과 희망, 새해 계획을 통해 불교의 '희망'을 찾아본다.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꿈은 이뤄진다" 새해엔 이렇게 뛰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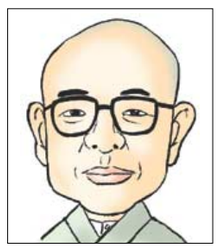


법장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변화의 틀 다지기에 주력

올해는 종단 안정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변화의 기틀을 굳게 다져나가는 데 역점을 둘 생각이다. 우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불사가 끝나고 새 청사 시대가 열리는 만큼 조계종이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종단 조직체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총무원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종단발전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활발한 대사회 활동과 포교를 바탕으로 불교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운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전통문화센터 건립 원력

지난 한 해 동안의 태고종은 원융화합을 통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종도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해였다.

새해에는 이러한 종도들의 참여를 토대로 총무원장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각종 개혁불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교계는 물론 사회에 일하는 종단, 존경 받는 승가의 이미지를 심어 나갈 것이다. 또한 불교전통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모든 종도들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종단의 발전과 중흥에 진력하는 한편, 동방대학원대학의 개교 등 종단의 교육불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운덕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남북 교류 등 지속 추진

올해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남북불교교류를 비롯한 의미 있는 여러 불사들이 모든 종도들의 참여하에 계속 진행될 것이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가을에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열반일 행사가 동북아 불교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천태유물전시관을 올 초에 착공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우리 종단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효암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조직정비 통해 포교 활성화

포교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교구를 효율적으로 분할하고, 신행조직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과 동시에 신교도들의 재교육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 우리 종단에 일찍이 있었던 법노장 제도가 바로 구역중심의 포교종책이며, 법노장들이 지역 포교의 주체로 나서도록 이끌 계획이다.

신교도들의 오랜 바람인 탑묘원의 건립과 울릉도 금강원성지 개발을 통한 재원 발굴도 올해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는 진각종의 대중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여 스님(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미디어 시대에 걸 맞는 어린이지도자 양성을 위해 애니메이션과 인터넷을 활용한 어린이지도자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각 사찰 및 어린이단체들에게 보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보급, 어린이법회뿐 아니라 여름·겨울 수련대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불교상담대학 설립·법인화

정덕 스님(불교상담개발원장)

내년 4월이면 설립 5주년을 맞는 상담개발원은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은 '불교상담대학원 설립'과 '사단법인화 추진'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공신력을 인정받은 단체로 거듭남으로써 상담원들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세계여성불자대회 준비 5월 매듭

본각 스님(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추진위장)

6월27일부터 열리는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는 출·재가 여성 불자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큰 행사다. 따라서 새해에는 한국 여성 불자들의 위상과 권익향상에 기여할 이번 대회를 내실 있게 치러내는데 온 힘을 쏟고자 한다.

세계여성불자연합의 한국지부 설립을 준비하는 등 국·내외 여성불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정토회운영 좀더 체계화 추진

유수 스님(정토회 대표)

새해에는 부처님께서 인도 전역을 걸식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교화하시던 모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닌 만큼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정진하겠다. 새해는 4차 천일결사 마지막 해다. 현재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돼 있다. 불자들이 수행의 주체로 나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토회 운영을 좀 더 체계화하고자 한다.

학술·조직·재정 활성화 주력

이평래(한국불교학회장)

새해에는 학술, 조직, 재정의 세 측면에서 한국불교학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술적으로는 자유로운 연구발표의 장이 되고, 조직적으로는 회원들 간의 유대와 애정이 돈독해져 조직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재정적으로는 발표회·논문집 발간·연구여건 확충을 위해 재정적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재가불자 참여공간 마련 주력

박광서(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재가불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며 불교 발전을 위한 비전을 구하고 싶다. 현재 재가불교 지도자들은 꽤 있지만 상호 교류가 부족한 것 같다. 서로가 불자인지도 모르고 모르는 상황에서 조직화란 요원한 일이다. 한 가지 한 가지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커다란 틀이 중요한 때다. 그 틀거리를 만드는데 올 한해 정진하겠다.

'원효 일대기' 현대무용극 기획

손재현 (동국대 체육학과 무용전공 교수)

불교무용은 현재 영산재와 같은 의식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중들이 불교무용을 무겁고 지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새해에는 서양과 동양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 대중무용극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대중들의 눈높이와 기호에 맞춘 불교무용 공연들이 활성화 되면 관객들은 저절로 공연장을 찾을 것이고 무용을 통한 포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불교국가지원사업 등 추진

최명준(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대한불교진흥원은 올해 불교국가에 눈을 돌릴 계획이다. 몽골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원과 장학사업, 한국불교문화원의 설립 등을 준비 중이다. 또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컴퓨터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불교계가 힘을 합쳐 부처님의 정법이 전 세계에 구현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화합·상생정신으로 보살도 실천

노옥섭(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갑신년 새해 우리에게는 헤쳐 나가야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치와 사회가 더 큰 안정을 찾고 경제와 문화가 창달하기를 소망한다. 다행히 올해는 국내외 각 기관의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한 전망을 현실화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몫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보살도를 실천하여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길 발원한다.

청년인재양성 교육사업 매진

정상옥(대한불교청년회장)

불교계를 이끌어갈 청년불자 양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에 올 한해는 리더쉽 교육을 시작으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군불교위원회로부터 전역자 명단을 입수, 대불청 산하 지구별로 청년회원을 모집해 지역청년회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정여 스님

◇ 정덕 스님



◇ 본각 스님



◇ 유수 스님



◇ 노옥섭



◇ 이평래



◇ 박광서



◇ 손재현



◇ 최명준



◇ 정상옥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Ⅲ-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원단법회
◎ 일시 : 2004년 1월 4일(일) 오전 10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바꾸자 그리고 희망을 쏘자

한국불교의 희망찾기②

시대는 변했다. 세상은 더 이상 이념이나 정치 · 경제적 논리에 의해 움직이기를 거부한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미래를 움직일 동력요인은 무엇일까.

그 키워드는 바로 '문화'다.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다듬어 계승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문화는 세상을 좌우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문화'란 그 시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 안에 불교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찾아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불교의 전통과 문화. 서구에서, 인터넷에서, 그리고 우리의 문화 속에서 불교가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어제'를 다듬어 '내일'을 만든다



◇전통불교의식인 영산재. 최근 정부로부터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면서 불교 전통문화로 확실히 자리매김이 됐다.

한국불교의 수행 · 문화 전통은 서구에서도 인정하듯이 인류의 정신문화를 채워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사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는 정작 이 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것이야 말로 불교가 우리 사회의 정신적 자양분이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 불교가 이 시대의 종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수행 · 문화 전통을 올곧게 발전 ·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전파된 세계 각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불교의식을 정립시켰다. 우리나라도 민족문화와 예술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쳐 연등회, 팔관회, 수륙재, 우란분재 등의 형태로 전통의식에 구체화됐다.

유 · 무형의 전승유산 역시 한국불교의 전통이다. 무형 유산으로는 간화선 중심의 수행가풍과 영산재 등의 의식, 사찰과 각종 불구류를 생산해온 장인정신 등이 있으며, 문화재 · 불화 · 불상 · 가사장삼 · 단청 등의 유형 전승 유산이 있다.

이 같은 불교의 유 · 무형 문화유산은 최근 '불교문화상품'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새로운 '전통 만들기'로 이어지고 있다. 영산재, 참선, 발우공양, 다도 등의 무형 문화는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양화되고, 사찰 문양이나 음식문화 등의 유형문화는 현대적 이미지에 맞춰 '상품'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특히 템플스테이, 사찰 수련회, 연등축제 등은 이미 불교문화 유산을 활용한 대표적인 한국불교전통 계승의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철우 기자

수행·문화전통의 계승

간화선 수행 한국불교 미래밝힐 법등

사찰음식·문양·연등축제 등 상품화 박차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수행 · 문화 전통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발전적 계승을 해야할까.

무엇보다도 간화선 수행가풍이 있다. 임제종풍의 조계종 수행가풍은 전국의 선방에서 대중수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간화선 수행 전통은 일반 재가불자에게도 수행의 지침이 되는 등 요즘 들어 '수행의 일반화' 현상이 한국불교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간화선 수행 전통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힐 법등(法燈)이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의식 역시 계승해야 할 한국불교의 전통이다. 불멸 후 성립된 율장은 불교가 선의 종지(宗旨)는 불립문자(不立文字)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선사 또는 부처님의 말씀은 어록이나 경전, 즉 언어를 매개로 한 서적에 의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고 언어뿐만 아니라 사진, 오디오, 동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종교의 홍포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전적으로 책에 의존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1대 다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인터넷에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 중심의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에 사진,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최근 멀티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계종에서는 이미 1996년부터 아기부처님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해 현재까지 동자승, 꽃비 휘장 등 120여 종을 개발했고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 하는 등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의 역사, 문화, 예술, 생활과 관련된 각종 1차 자료를 문화원형이라고 한다. 불교는 16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왔기에 다양한 문화원형을 가지고 있다. 이들 자료를 활용, 디지털화 해 애니메이션, 게임, 전자책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한다면 불교는 현대인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중앙승가대학교 김응철 교수는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IT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한다면 굳이 불교를 강조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불자적 소양과 심성을 길러줄 수 있으므로 포교수단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불교문화 콘텐츠

풍부한 1차 자료 다양한 개발 가능

자연스럽게 포교 기반도 형성돼



◇서구사회에서 불교수행법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명상이나 선이 미국, 유럽 등 서구사회에서 새로운 '영적문화'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구사회에서 개인의 심신 안정, 웰빙을 위해 시작됐던 명상은 나아가 기업, 교도소, 학교 등 사회 각 분야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재범률 저하,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 및 탈선 방지, 기업의 업무효율 향상 등 명상활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가 관련 산업이 60억 달러 규모로 발전했다. 특히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소위 '참선 경영'이라 불릴 정도로 참선을 통한 사원들의 자기개발을 독려한다.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에 따르면 참선을 사원들의 사기진작 프로그램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참선을 활용하는 목적은 회사에 따라 사원의 업무부담 감소 및 업무의 효율성 등 다양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참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원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를 거뒀으며, 생산성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사고로 지배돼 왔던 서구사회에서 명상 등 불교 수행법이 사회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불교권 국가인 한국사회에서 명상이나 참선이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서구사회가 얻어낸 명상효과를 '벤치 마킹'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국에서도 불교 수행법의 범종교적인 사회장치화를 위해서는 불자들 스스로의 관심과 수행이 우선 돼야 한다는 자성이 필요하다.

한상희 기자

서구 수행열풍 활용

학생·재소자 선도 등 사회대안으로 정착

생활의 변화 이끌며 산업구조로 '꿈틀'

▲ 학교에서의 명상수업 = 명상은 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가출 등의 탈선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도 활용된다. 영국 웨일스 남부의 카디프나 미국 매사추세츠 주 로웰, 디트로이트 시 등의 중 ·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수업이나 과외활동으로 명상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시간대 대체의학 연구소의 최근 연구결과는 명상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감정적, 사회적 안정에 변화를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 '자기 개발' 및 업무효율을 위한 기업 내 명상프로그램 = 미국에서는 '자기 개발(self-improvement)'을 위한 명상, 참선,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 주 사

주지 정락
총무 영명
기획 원오
교무 성무
재무 성직
사회 응진
호법 지강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88
전화 031)234-0040
전송 031)234-2818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玄海

대중일동

(232-941)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홈페이지 : www.woljeongsa.org

원주실 033)332-6661,2
월정사성보박물관 033)334-1817
종무소 033)332-6664,5
오대법보 편집실 033)333-6296
FAX 033)332-6915

월정사 진부 연꽃유치원 · 어린이집 033)335-8853,4
월정사 강릉장애인복지관 033)643-1801
월정사 강릉시 장애인 보호작업장(해오름식품) 033)644-9442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

조실스님 효일 범행
회주스님 원파 혜정
총지선원장 월복 함주
주지스님 허공장 지명
강주스님 향산
부주지스님 무상
기획스님 지원
재무스님 원일

법주사 대중일동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전화 043)543-3615
팩스 043)543-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 화 사

주지 일응 지성
부주지 진담 재무 상원
총무 재윤 사회 법륜
기획 정관 포교 혜경
교무 현천 호법 선광

금당선원
조 실 법원 진제
선원장 지환

강원
강 주 도엄 해월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화 053)982-0101~2 팩스 053)985-4405
홈페이지 www.donghwas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觀 音 寺

조실 석주
회주 중원
주지 용주
부주지 광조
총무 세정
기획 사명
교무 유정
사회 승언
호법 유방

한라산 관음사 :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387번지
전화 064)755-6830 팩스 064)756-2202
포교당 보현사 :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47-12
전화 064)722-2829~30 팩스 064)758-3367
홈페이지 www.hallasangwaneumsa.org



불자 스포츠 스타들의 희망쏘기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는 유독 '불자'가 눈에 띈다. 진지한 얼굴로 경기에 임하는 골퍼, 야구 선수 등의 손목에서 불자의 상징인 단주가 자주 발견 되기도 한다. 바쁜 훈련 일정과 승리에 대한 압박감 등 피로에 절어 있는 선수들이지만 "자주 사찰을 찾지 못해도 마음만은 언제나 불법 속에 사는 불자"라고 당당히 말한다. 그들의 이런 자랑스런 모습은 불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갑신년 불자 스포츠 스타들의 원력을 알아본다.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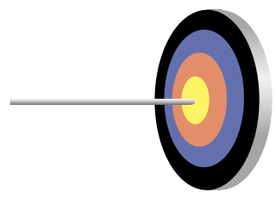


◇ '2004년 희망을 향해 쏴라!' (왼쪽부터) 양궁 국가대표 박미경, 박경모 선수. 사진=고영배 기자

고도의 정신력이 필요한 양궁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1, 2위를 놓치지 않아 '효도 종목'이라 불리는 양궁. 땀 냄새가 가득히 느껴지는 역동적인 운동은 아니다. 하지만 활시위를 과녁에 겨냥하기까지 요구되는 고도의 집중력과 마음가짐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관찰해야 하는 정신운동이다. 그런 면에서 양궁은 마음자리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하는 불교와 많이 닮아 있다. 지난 해 11월 미얀마에서 열린 제 13회 아시아양궁선수권 대회를 승리로 이끈 국가대표 박경모(29 · 인천계양구청), 박미경(22 · 전북도청) 선수도 틈틈이 명상을 통한 이미지 트레이닝과 근처의 사찰을 찾으면서 마음수행을 한다.

내면바라보기 불교와 닮아
트레이닝과 정신수행 병행
일념의 평상심 유지가 중요



두 선수에게 불교가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박경모 선수가 시원스레 한마디로 대답한다.

"솔직히 경기 때는 종교고 뭐고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과녁만 보여요."

그의 대답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게 정답이다. 경기를 위해 활시위를 당기는 그 순간에는 과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다른 생각이 나지도 않는 '삼매'에 빠질 테니까. 박미경 선수도 한마디 덧붙인다.

"경기 전 심리상태를 고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훈련 일과가 시작되기 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죠. 활시위도, 과녁도 없지만 '나는 지금 경기장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며 한발 한발 쏘는 거예요."

선수들에게는 또 마음의 흐트러짐을 다스리는 자신만의 비법도 있다. 박미경 선수는 '명상의 시간' 같은 테이프를 들으며 자신 만의 명상을 한다. 조금 덜렁거리는 자신을 차분히 하기에는 '딱'이란다. 박경모 선수는 고참 선수답게 "활을 잘 쏘기 위한 마음은 활로써 잡는다"며 잡념을 없애려 활쏘기 자체에 몰두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 때에는 선수촌 근처 불암사에서 맑은 공기와 풍경소리로 자기 안의 생각들을 정화시킨다.

요즘 두 선수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준비에 한창이다.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우선 3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등 안에는 들어야 한다. 선발전은 남녀 각각 3명씩 총 6명의 국가대표만을 선발하는 '좁은 문'이다.

"올림픽을 제외하고 세계선수권 대회, 아시아선수권 대회 등에서는 개인전, 단체전 1등을 모두 해봤어요.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열심히 훈련에 임할 계획입니다."(박경모)

"어렵게 들어온 대표팀이니만큼 이번 선발전도 통과해야지요. 태극마크가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박미경)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올림픽을 향한 그들의 첫 활시위가 성공적으로 당겨진 그 날, 축하 인터뷰로 또다시 만나자고 약속

마음 살피면 금메달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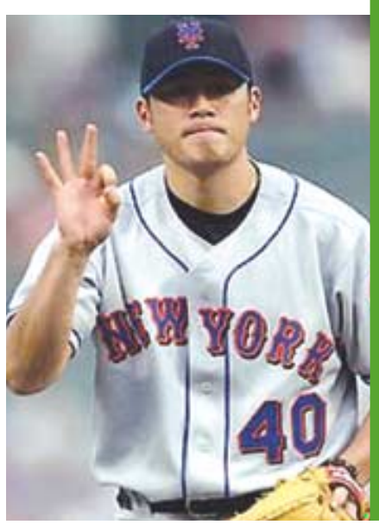
잘나가는 스포츠 선수들은 불자?

최근 <주간동아>가 한국 여자 골퍼 20명을 선정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55%에 해당하는 11명이 불교신자였던 것. 박세리 선수를 비롯해 강수연, 정일미, 조경희, 골프계의 신데렐라 안시현(사진 왼쪽 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한국여자 골퍼 20명중 11명 불교신자
가족의 기도와 신심이 선수들에 큰 힘

동계올림픽 인기종목 쇼트트랙의 여성 선수들 중에는 유독 불자가 많다. 94 · 98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따냈던 전이경 선수(27 · 현 세미프로 골퍼)는 경기 때마다 '옴마니반메훔'을 암송하기로 유명하다.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여자대표팀의 최민경(21), 주민진(20), 최은경(19), 고기현(17)도 불자다.

남자 스포츠 스타들의 신심도 돈독하기는 마찬가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서재응(사진 오른쪽) 선수는 어머니가 주신 염주를 몸에서 떼놓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기 중 벌어졌던 심판과의 헤프닝은 유명한 일화다. 국내 야구계의 '꽃미남'으로 불리는 두산 베어스 홍성흔(사진 왼쪽) 선수는 대학 때 108배, 3천배 정진 등을 통해 급한 성격을 누그러뜨리는 마음수행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축구의 홍명보, 김남일, 박지성, 설기현, 김은중 선수 등은 국가대표로 활약했음은 물론 현재 세계무대에서 한국불교와 한국축구의 맹위를 떨치는 불자들이다.



스포츠 스타들 중에 불자가 많은 이유

수행 통한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 추진력 갖게 돼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따른 체력소모가 상당하다. 하지만 선수들에게 이보다도 큰 문제는 정신적 소모.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바로 알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고뇌는 육체적 훈련만큼 혹독하다.

특히 중요한 시합을 앞둔 선수들은 심리적 압박감과 긴장상태에 빠지기 쉽다. 시합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려면 '평상심'을 유지해야 한다. 선수들이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과 마음수행을 강조하는 불교는 코드가 맞는다.

불교의 이런 특성은 선수들 개인 종교와 상관없이 정신훈련과 심상훈련(이미지 트레이닝)에 도입되기도 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훈련프로그램 중 하나로 불교 명상법인 위빠사나를 수행했다. 이에 대한 효과는 부산 아시안게임 종합 2위라는 결과로 입증됐다.

참선 또한 선수들의 정신훈련에 효과가 있다. 참선을 통해 마음자리를 살피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만큼 강한 집중력과 추진력을 갖게 된다. 참선은 특히 양궁, 사격, 골프 선수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수들 자신이 느끼는 불교의 장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많은 선수들이 "절에 갔을 때 느껴지는 향내음,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 깨끗한 환경 때문에 훈련으로 받은 스트레스, 피로 등이 저절로 사라지는 듯 하다"고 말한다.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한국대승불교 조계종

종 정 김부경

종회의장 황관능
원로의장 손무변
포교원장 최법운
교육원장 김대공
사정원장 이경담
기획원장 김대각
사서실장 성운고
기획원장 박사우

서울종무원장 석지성
부산종무원장 성운고
대구종무원장 왕상인
중부경남종무원장 허 준
서부경남종무원장 유도화
경북종무원장 최보해
경주종무원장 지일장
경기종무원장 황약산
충북종무원장 왕상인
충남종무원장 석법성
전북종무원장 석혜성
전남종무원장 김법정

총본산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전화 055)521-1236, 1286 / 사서국 051)852-3707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인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배 만 오
종 회 의 장 무 성

벽담 문도회 일동
법인종 종도 일동

총무원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정1리 528-1 전화 054)862-8787, 862-9870

제16차 2004년 겨울 어린이 · 청소년 단기출가 수련학교 수련생 모집 안내

수련은 몸을 연마하고 마음을 닦아서 '맑은 마음'으로 '좋은 벗'을 생각하고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일상적인 사회 생활 속에서 육바라밀행을 만들어 가는 실천적 프로그램입니다.

① **언 제** : 2004년 1월 2일(金) ~ 2004년 1월 6일(火)
② **어디서** : 속리산 대성암 까치마을 수련원(오후 2시까지 수련원 도착)
③ **인 원** : 30명 ④ **대 상** : 어린이 · 청소년
⑤ **참가비** : 80,000원(교통비별도)
⑥ **내 용** : 명상수련, 심성개발, 예절교육, 즐거운 전통체험놀이, 별빛산행, 속리산 수정봉 등반, 모닥불놀이 등.
⑦ **준비물** : 쌀1되, 필기구, 세면도구(비누, 치약, 칫솔), 수건3장, 운동화, 슬리퍼, 갈아입을 여분의 옷(속옷포함 상 · 하), 양말 4켤레, 손전등, 개인구급약 등. (모든 물건에 이름을 꼭 써 주세요.)
⑧ **마 감** : 2003년 12월 25일 오후 5시까지(입금을 하셔야 신청이 됩니다.)
⑨ **접수처** : **대성암(수련원) ☎(043)542-5882~3 지장사 ☎(02)856-1558(代)**
▶홈페이지 : www.jijangsa.com 단기출가 수련학교 신청서에 신청

2004년 겨울 어린이 청소년 한문서당 모집요강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미풍양속 생활예절, 정신수양으로 행동심 고취을 위해 한문, 참선, 서예, 다도교육을 실시하며 스님들이 직접 모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기간** : 일시 - 2004월 1월 7일(水) ~ 1월 15일(水) 8박 9일
◎ **대 상** : 초등학생 2학년 ~ 청소년/30명 ◎ **참 가 비** : 16만원(교재비포함)
◎ **교육내용** : 한문(명심보감, 수심보경), 서예, 생활예절, 발우공양, 참선, 다도. 전통문화체험(죽염 만들기, 천연염색물들이기, 도자기만들기, 연만들기, 성불도놀이, 법주사 성지순례, 속리산 문장대 산행, 자연탐사 등).
◎ **교육담당** : 수련원장스님, 지도법사스님, 선생님
◎ **접수기간** : 12월 1일 ~ 2004년 1월 2일
◎ **접수마감** : 2004년 1월 2일(소정의 심사를 합니다)
◎ **합격자 발표** : 2004년 1월 2일(홈페이지 게시 및 이메일로 개별통지)
◎ **접수문의** : **(043)542-5882~3**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서약서, 참가학생의 글, 부모의 자녀소개서)를 홈페이지(단기출가수련학교)에서 작성 후 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
▶주소 : 우편 376-863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33번지. 수련원 한문서당
▶홈페이지 : www.jijangsa.com 단기출가 수련학교 신청서에 신청
▶메일 : jijangsa@jijangsa.com

■ **주관 :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사 속리산 대성암**
■ **주최 :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수련원**

기공안내 氣功案內

♠도(道)를 닦거나 기공수련의 기초 관문인 **경락 소주천(經絡小周天) 운행**을 기공사가 직접 1개월 이내에 완성시켜 드립니다.

♠**11~13세 미만 아이들에게 인체투시 기능**을 1주일에 완성.(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

♠ 6세미만 **벙어리 아이**에게 말을 하게 하고 16세미만의 **간질병 아이**를 경기 뚝. 확실합니다.

♠척추디스크, 심혈관계통(혈액 순환기계통), 소화기계통, 난치병(폐장암, 위암, 대장암, 당뇨, 뇌졸증, 관절염) 등 **중병질환에 특수한 치료 · 예방 효과가있는 氣功수련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불제자들에게 성명쌍수(性命雙修) 수련법 전수!** (말로, 책으로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경락소주천과 대주천을 완벽하게 운행할 수 있는 (인연이 닿는 분은 3개월 이내) **기공사 (기공 치료 의사)를 양성**합니다.

무료 상담 환영

대불통령내단술(大拂通靈內丹術)수련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오피스텔 1212호(교대사거리)
TEL : 02-3471-7277 / FAX : 02-521-5518
H · P : 016-299-4864 / 016-214-4864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재질(모직) / 조끼 · 몸배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누비



5. 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250,000 ▷순면누비 ₩160,000

잔누비 / 셔츠



8. 셔 츠 ₩60,000 (차이나형, 라운드형) 바 지 ₩70,000
라운드형 ₩30,000 ~ ₩35,000
차이나형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권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원을 20만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달인물(만삼생것10kg, 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20만원 ■ 2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홍삼의 기를 마시자!

홍 삼 메 딕 스

※ 진짜 홍삼은 누구에게나 맞고, 만병을 다스리게 합니다.

어머님은 다시 건강을 찾으셨습니다.



- **홍삼메딕스는** 일반 기계처럼 한번 찐 다음 한약다리 듯 하는게 아니고, 찌고 말리고를 9번 반복하는 신비의 **구증구포** 비법을 최초로 과학화**(경북과학대)**한 것입니다. (신기술 발명특허출원 10 · 2003 · 0027351)
- 홍삼이라고 다 효능이 같지는 않습니다. **홍삼메딕스**는 최고 품질의 홍삼원액을 가정에서, 저렴하게, 얼마든지,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최신식 기계입니다.
- **홍삼메딕스**에는 **춘천옥 원석**을 넣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기(氣)를 보강합니다.

02-777-0105 헬스테크상사

당신도 침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침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3개월이면 침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3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 정골방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1. 5 (주 2회 - 매주 월, 화요일. 주 · 야간반)
▶ **강사** : 침술즉효요법, 침술학 교과서 저자 직강(교재 무료)

명리학 강좌

가장 어렵다는 용신법을 쉽고 간단하게 배울수 있으며 3개월만 배우시면 당신도 프로가 될 수있습니다
▶ **내용** : 사주작성, 취용법, 대세운법, 사주간명법,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궁합, 작명법(실습위주)
▶ **개강** : 2004. 1. 7(주 2회 - 매주 수,목요일. 주 · 야간반)
▶ **강사** : 명리학 교과서, 매화역수 저자 직강(교재 무료)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매년과 매월은 물론 시간대별로 길흉화복의 적중률이 매우 정확한 명리학입니다
▶ **개강 일정** : 2004. 1. 9〔09:00~12:00〕 주1회 - 금요일 (주 · 야간반) 1개월 완성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엄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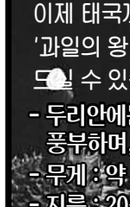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엄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건강과 깨달음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할

두뇌와 신경계 이야기

1. **40대는 30% 50대는 60%의 급격한 기억력 감퇴현상**이 일어나며 한번 파괴된 뇌세포는 재생이 어렵습니다. **(치매는 암보다 무섭다**고 생각한다 - 어느 간병인의 수기中)
2. 기도, 공부, 정진, 컴퓨터 사용등에 쉽게 피로해지는 것은 두뇌가 **인체 에너지의 1/4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피로, 졸음, 늦잠** 등은 뇌의 피로 현상임)
3. **뇌안의 시한폭탄인 뇌동맥꽈리**는 중년이후 혈관이 퇴행되어 뇌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며 국내는 매년 1만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일단 터지면 1/3이상이 병원에 도착하기전에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4. 인체는 하나이고 뇌가 통솔하고 있으므로 뇌와 신경계는 필수호르몬과 기혈생성, 순환과 **면역기능** 각종 **난치성질환** 및 **깨달음**에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灼醫丸
초 의 환



- 피를 맑게하고 인당 · 백회 · 송과선 및 차크라 등을 활성화 시킵니다.
- 수행자, 기도인, 컴퓨터 사용자, 야간근무자, 두뇌기능 저하 개선, 병후회복, 피로회복, 장과 소화기를 비롯한 전신기능이 호전 됩니다.
- **다가올 미래** 생명의 조화와 완성을 위하여 수년간 다수 신비가들의 **영적조언과 세밀한 기(氣)검토**를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사리자 02)878-2515 / 011-9715-6071
서울시 관악구 봉천 8동 1554-18 201호

사찰, 법당, 앰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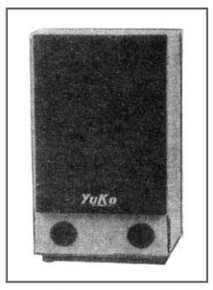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신입생 모집 - 정규반, 통신반, 인터넷반

▷ 누구나, 선착순 5천명
▷ 주 · 야간반 - 3월 중순 개강
▷ 주1회 강의**(053-474-8228)**
(대구 큰절, 경산법당, 칠곡법당)

행자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 행자 교육 전문도량
- 행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민주적 교육
▷ 수계 후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제3회 전국 불교만화 공모전

▷**작품 모집**
문의 : 053)474-8228, 02)3392-0334

문의 : 053)474-8228
TVbuddha.co.kr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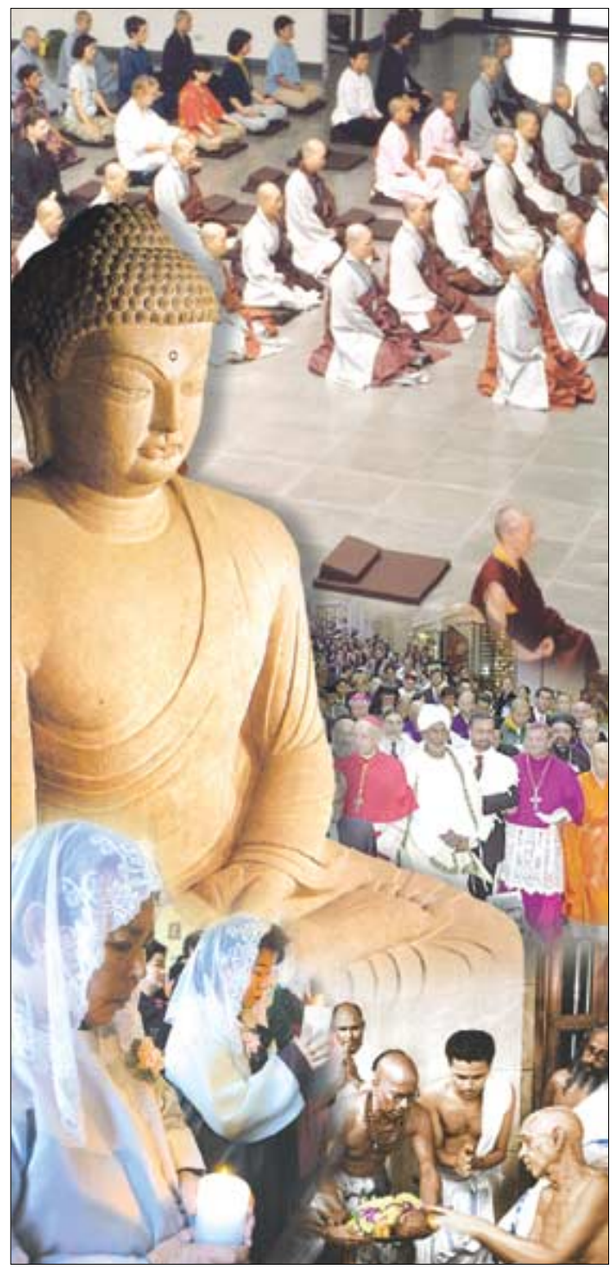
종교패러다임 변화와 불교

프롤로그

현대사회는 산업문명에서 탈산업문명으로의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배문명이 다원화되고 그 다원화된 문명들이 서로 융합되어 가고 있다. 이는 문명의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의 근대화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산업문명과 국민국가에 대해 겨우 적응해왔던 불교를 비롯한 고전종교들이 또 다시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시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의 문명변동과 관련하여 종교 패러다임의 변화와 불교(프롤로그)의 합의를 살펴본 후 '불교, 종교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가', '21세기 인류를 향한 불교문화의 비전', '미래사회 불교가 직면한 도전' 등에 대해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획일화된 고전 종교의 틀 변화 요구



문명사적 전환



서구 근대화는 정복·투쟁의 시대
인간의 삶 조망하는 세계관 증대
물질보다 사회 중심의 문화로 변화

20세기의 인류문명을 요약하면, 산업문명의 시대이고, 국민국가의 시대이며, 이념적으로 양립된 냉전의 시대였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문명종교로서 지위를 누린 기독교의 세기이며, 동시에 종교의 신성성을 해체한 세속화의 세기이고, 국가중심의 세속종교가 난무한 대체종교(代替宗敎)의 세기였다.

과학과 기술을 무기로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형성한 산업문명,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억압하여 지배력을 획득한 국민국가. 이 양자는 18세기 이성중심의 계몽주의가 시도한 '근대적 기획'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즉, 타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문명이었다. 또한 역사의 진보 다시 말해, 이성의 진보에 의한 역사발전이라는 거대담론이 근대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

'근대적 기획'은 보다 나은 정복과 투쟁을 위해 주체와 객체, 문명과 야만, 인간과 자연 등의 대립 이항구조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이름아래 지배문명 중심을 향해 열을 세워 복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대립구도가 해체되어 가고 있으며, 그 경계선마저도 허물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지배문명마저 파편화되고 있다. 이른바 근대화의 추상적이고 성찰적인 범주인 근대성 즉, 이성적인 인간 주체의 발견, 문명화를 위한 객체로서 자연의 정복, 개인과 개인 사이의 투쟁 등은 인간 삶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모두 재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각 분야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획하는 근대적 세계관에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주를 묶어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유기적인 세계관으로의 관심이 증대되고, 과거 중심에서 벗어난 신비주의적인 주변문화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제 과거의 민족이나 국가, 계급이나 이념에 대한 문제가 사회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환경, 소비생활, 교육, 여성, 청소년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문제가 새롭게 사회운동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른바 이러한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 혹은 시민자주운동의 등장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의 표현이며 산물이다. 말하자면, 이 시대는 역사의 발전. 이성의 진보, 그리고 냉전이데올로기와 같은 거대담론을 거부하고 작은 이야기, 분산과 지역전, 혹은 국지전을 강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모든 영역에 분권화와 유연성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모든 경직된 관료제 조직이 이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영역에서 창의성과 유연성의 증진을 위해 조직구조와 작업과정이 전면적으로 분권화하고 네트워크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물질문화보다는 정신문화, 정치경제보다는 사회문화로의 사회적 중심가치가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고전종교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종교문화의 패러다임 변화



관료적 조직거부·소공동체 등장 가능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종교' 부상
불교, 현대문명 이끌 잠재력 많아

산업문명과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제도종교나 신종교들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해 많은 문제들을 다시 성찰해야 할 것이다. 초월성과 유일신만이 문명종교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날 것이다. 신이 없이 영성만 존재하는 종교가 새로운 힘을 얻고, 종교적 영성을 담아내는 틀도 관료적인 교단조직이 아닌 새로운 소 공동체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

계몽주의 이후에 진행되었던 세속화의 현상도 역시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전 세기에서는 인본주의, 맑시즘, 진화론, 과학기술의 발달 등 세속적인 이데올로기가 전통사회의 종교기능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종교의 영역 자체가 그 경계선을 잃고 타문화와의 융합이 일어나거나 고전종교는 파편화와 동시에 재성화(再聖化)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대체종교가 난무하였으나 이제 국민국가의 신화가 약화되면서 시민중심의 대체종교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방단위 운동과 국가단위 운동, 문화적인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문화권단위 운동, 세계시민으로서 책무를 다짐하는 전지구적 단위운동 등으로 상당히 다차원적이면서 각 단위의 생활문화의 문제를 담은 종교들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삶의 환경과 질에 관련되는 소비자 중심의 생활종교가 부상할 것이고, 건강과 부와 같은 개인차원의 세속적인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종교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종교변화의 경향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새로 등장한 신종교들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8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종교운동은 신앙계층이 취향계층이나 매니아층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든가, 개인의 건강과 부 혹은 심리적 평안을 추구하는 개인중심적, 현세중심적 구원관으로 경도되어 있다든가, 인간의 건강과 잠재력개발을 위한 각종 수련방법, 주술적 수련방법 등을 강조하고 있다든가, 윤리적 문제와는 무관한 저항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기존 사회질서 및 종교를 부정하고 있다든가 하는 점은 이미 기존의 종교와 전혀 상이한 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서구 존재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당연시했던 현대문명들이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재검토되고 있는 지금, 그 대안으로서 불교의 무아 내지 연기와 같은 관계론의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고전종교의 윤리와 형이상학은 인간의 환경을 자연세계와 사회관계로 제한시켜 왔으나 이제 인간의 환경은 우주여행과 생명복제를 통해 무한한 시간과 공간으로까지 크게 확장되었다. 새로운 윤리와 형이상학이 필요할 때이다. 그런 면에서 불교는 분명 현대문명에 공헌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서구문명에 밀려 지배문명을 추종만 해왔던 불교가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을 계기로 맞아 자기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십분 발휘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연구위원〉



윤승용

92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한국사회변동에 대한 종교의 반응형태 연구'란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문화공보부 종무실 종무담당관, 서울대, 한양대, 덕성여대 강사를 거쳐 한국종교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사업국 부국장으로 재직 중. 저서는 〈세계종교사〉 〈한국 종교의 의식과 예절〉 〈현대한국 종교문화의 이해〉 등이 있다.





종교패러다임 변화와 불교
불교, 종교문화의 중심인가?

아직까지 불교가 여러 종교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자기내면의 성찰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물질만능시대에 불교문화는 '정신과 생명'을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현상을 창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향 한성대 의생활학부 교수는 "영화, 음악, 미술, 건축 등 다방면에 걸쳐서 이미 불교는 우리 문화 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기계화된 현대문명에 현대인들이 등을 돌리며 정신적인 충족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한다. 서구에서 이미 불고있는 뉴에이지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현재의 종교문화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불교는 종교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정신 · 생명 중심 새 문화코드 견인

예술작품속에 녹아든 空 · 禪사상
21세기 문화의 새 바람 일으켜
뉴에이지 음악 · 영화에 깊숙히 자리잡아

'의상작품에 <반야심경>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 무용수들은 연꽃을 들고 춤을 춘다. 미술작품에는 '공(空)'과 '선(禪)' 사상이 흐른다. 영화속에 등장하는 우주선은 연등행렬에서 따왔다.'

21세기 들어 예술 작품 곳곳에 불교사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정형화된 틀속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멘탈리즘(정신주의)을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의 열망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세다. 멘탈리즘을 강조한 뉴에이지의 열풍속에서도 동양사상, 특히 명상문화에 대한 흔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종교문화는 어떠한가? 그동안 상당히 서구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전통 종교문화 계승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 과정에서 종교문화가 너무 물질적이고 외형적으로 치우쳐 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래서 종교가 내적으로 자기성찰을 하면서 심성개발을 위한 문화형성을 해야 하는데 제 구실을 다하지 못했다. 게다가 일종의 기복주의 문화가 너무 강하게 만연돼 물질적 성공을 종교적으로 정당화 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도 종교문화의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화의 세기인 21세기에 한국 종교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불교도 예외는 아니다.

21세기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새뮤얼 헌팅턴은 오래전에 "20세기의 정치 경제적인 패러다임에서 21세기는 문명과 문화적인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견했다.

20세기가 종교적인 틀을 고집했다고 한다면 21세기에는 진정한 종교의 가치를 보여주고 구현하는 문화적 형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불교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맥을 같이 하는 불교문화는 음악, 미술, 건축, 영화 등 다방면에 걸쳐 21세기 문화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서양에서도 동양 특히 불교의 선(禪)사상에서 오브제나 모티브를 따온 것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불교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증거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월드컵을 맞아 외국인들을 위한 산사체험의 일환으로 열린 템플스테이도 한국의 불교문화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알리는데 한몫을 톡톡히 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주 5일제를 맞아 내적인 자기성찰을 원하는 이들에게 주말 산사여행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꼭 불교적 사상이 아니더라도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장르를 통해 '마음닦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도 불교가 종교문화의 중심에 서기 위한 필수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찍이 서구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뉴에이지'에 대한 이해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스타워즈' '매트릭스' 등의 영화와 '부다 바(Buddha Bar)'로 대표되는 라운지 음악은 대중문화 속의 '뉴에이지'다. CG= 최정근

뉴에이지 문화

● 음악

뉴에이지는 '뉴에이지 음악'으로 대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에이지가 추구하는 동양 사상과 명상, 참선에 대한 관심은 이를 위한 음악들도 탄생 시켜 대중에게 깊숙히 침투했다.

뉴에이지 음악은 보통 클래식이나 재즈 포크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결합한 연주곡으로 정의된다. 서로 다른 장르가 혼합된 특성으로 인해 '크로스 오버(Cross Over)'로 불리기도 한다.

강렬한 사운드 보다 잔잔한 멜로디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몽롱한 느낌을 준다. 이런 음악들은 명상 뿐 아니라 심리치료, 스트레스 해소 등에 광범위 하게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의 음악레이블(Fonix, Kuckuck)이나 '부다 바(Buddha Bar)'로 대표되는 라운지 음악이 명상음악으로 주목받고 있다.

잔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율
명상 · 심리치료 ·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 영화

영화에서도 뉴에이지의 독특한 색깔은 유감없이 발휘된다. 신비주의적 분위기, 몽환적인 영상기법, 초시대적 배경 등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뉴에이지적 특징이다. 인간의 심리와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어두운 뒷골목을 배경으로 한 느와르적인 영화도 뉴에이지에 분류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 SF 영화로 정확한 시대와 배경을 짐작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워쇼스키 형제의 '매트릭스'가 허상인 기계세계를 벗어나 내 안의 구원자를 일깨운다는 내용 때문에 뉴에이지 사상을 그대로 옮긴 영화로 평가 받기도 했다.

신비 · 몽환적 영상기법 영화제작에 활용
스타워즈 · 사랑과 영혼 · 매트릭스 대표적

● 문학

'뉴에이지 문학'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계발하는 과정을 내용으로 한다. 동양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성장과정을 묘사한 헤르만 헤세와 리차드 바크도 뉴에이지 문학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또 오죠 라즈니쉬의 <배꼽>, 남태평양 티아비아 섬 투이아비 추장의 연설을 담은 <빠빠라기>, <히말라야 성자들> 등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베스트셀러다.

이밖에도 프리초프 카프라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Tao of Physcis)>,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The Turning Point)>등 현대과학의 허점을 꼬집은 신과학 서적이 뉴에이지 문학에 포함된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 '뉴에이지'란

뉴에이지는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과학문명, 물질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했다.

기독교적 신(神)중심 사고와 과학 논리에 지친 마음과 정신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불교, 인도사상, 동양사상등에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따라서 뉴에이지는 인간내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계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존재'라 이해하는 불교적 철학과도 상당히 맞아 떨어진다. 뉴에이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서구사회의 불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다. 참선, 명상, 요가 등이 계속해서 붐을 이루는 것이 한 예다.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계종
미 타 사
회주 황원호
주지 원 오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3가 51
TEL 02)923-0492

대한불교 조계종
보련산 보탑사
사부대중 일동
■ 충북 진천읍 연곡리 48-3
TEL 043)533-0206

대한불교법화종 직할교구 종무원장
봉화산 법만사
법문가요보급사찰
주 지 법만
신도회 일동
법연회 일동
서울시 중랑구 중화1동 274-63
TEL 02)433-6591~2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경국사
원로위원 이지관
사부대중 일동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75-3
TEL 02)914-5447

= 미얀마 정부 정식 승인 =
한국 · 미얀마
친선 교류협회
공동회장겸 미얀마명예대사
목탁 - 혜은
홍파
TEL 02)338-0567
FAX 02)322-0170
H·P 011-229-6061

= 불교의 나라 =
미얀마 · 캄보디아
한국 · 미얀마 친선교류협회 직영
전 문 랜 드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주)예스 굿투어
상담 : 02)365-7747
011-9039-1239
팩스 : 02)365-2294



종교 패러다임 변화와 불교
미래사회에 대한 불교적 비전

2500년을 거치며 인류의 역사와 문화 창달을 이끌었던 불교가 '지금-여기'에서 21세기의 대안사상으로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두루 통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와 그 실천성까지 담보하고 있는 불교는 현대의 평화, 인권, 환경 관련 사안 등 우리 시대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통해 불교는 미래사회 인류가 바른 삶을 서원하고 실천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바른 삶 서원과 실천이 세상 이끄는 힘

평 화

'미친 운전사의 질주를 막아야 한다'는 무슬림의 테러 논리가 다시 '미친 운전사인 독재자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미국의 공격 논리로 돌변하고 있는 시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이슬람의 회교근본주의가 충돌하면서 '전쟁과 평화'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수많은 논쟁이 거듭됐고 파병이 결정된 현재까지도 '명분없는 파병'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불교계 역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환경연대 등 18개 단체가 반전평화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 파병철회를 촉구하며 부처님 가르침 속의 상생과 평화를 논하고 있다.

<범망경> 제11계 '통국사명계(通國使命戒)'에서는 "군사를 일으켜 서로 다투고 한량없는 중생을 살해하지 마라. 더구나 보살은 군대 안에 들어가 왕래조차 하지 마라"고 가르친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원한은 원한에 의해 결코 풀어지지 않는다. 원한은 버릴 때에만 풀리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라는 구절로써 불교의 고전적 평화사상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이익과 관계된 분노와 탐욕까지 털어낸 '평정한 마음'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원효의 '화쟁론'에서도 불교적 평화의 한 방편을 읽을 수 있다. 원효는 삼국이 대립하며 싸우던 시절, 모든 대립과 갈등을 한마음(一心)으로 모아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했다. 그는 종파를 떠나 자리(自利)와 이타(利他), 반야와 유식, 돈(頓)과 점(漸) 등 서로 대립적인 교의뿐만 아니라 염(染)과 정(淨), 진(眞)과 속(俗)등 이항 대립적인 개념을 하나로 아울렀다. 또한 간디는 힘의 논리와 폭력으로 세계 곳곳을 휘두르던 대영제국에 맞서 불교 특유의 아힘사(비폭력) 정신으로 맞섰다. 나라를 빼앗기고 100만 인구의 목숨마저 내놓아야 했던 티베트 망명 지도자 달라이라마도 "내가 갚을 차례일 때 참아야 윤회가 끊어진다"며 오히려 "중국인을 위해 자비심을 키우자"는 정신으로 힘겨운 저항을 끌어가고 있다.

이 같은 불교적 평화사상은 21세기 현대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불교평화교우회는 폭력과 인종차별주의로 신음하고 있는 사회의 고통을 치유하겠다는 서원으로 전세계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고, 참여불교세대연대 역시 지뢰퇴치운동,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사회문제의 불교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내 단체로는 정토회 산하 JTS, 좋은벗들 등이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등지에서 국제기아 · 질병 · 문맹퇴치 민간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등은 대북지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있다. 평화학의 창시학이자 불교사상가로 널리 알려진 요한 칼퉁(Johan Galtung) 교수의 '적극적 평화' 개념, 즉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개개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평화 개념이 불자들의 활동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원한은 버릴때만 풀린다" 가르침 실천돼야
파병반대 · 기아 · 질병 · 문맹 퇴치 운동 활발



◇발우공양을 통해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깃들여 있고 한 톨의 밥에도 만인의 노고가 깃들어 있음"을 배운다.



◇한국 JTS 유정길 아프가니스탄 카불 지원팀장이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환 경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운동, 수경 스님의 삼보일배 대장정, 지율 스님 등의 천성산 살리기 고행 등이 진행되면서 불교계에는 '환경'이라는 화두가 불꽃처럼 되살아났다. 불살생계율을 원칙삼아 근근히 이어오던 불교계 환경보호 운동은 이들의 적극적 실천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환경보호의 불교적 실천을 이끄는 근본은 역시 '연기법'이다. 모든 것은 인연화합에 의해 형성된 산물이요, 자립적인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연기법의 핵심이다. 현대 사회학에서 '사회'의 개념을 인간과 자연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때문에 불교의 환경론은 '불살생계'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굴레에 빠져 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주라'는 '방생계'의 우주적인 차원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연기사상 바탕 … 자연과 인간공생 추구
대안공동체 · 환경지키기 등 적극 추진

그런 의미에서 교리에 기초해 벌이는 생활환경운동은 확실히 주목할 만하다. 불교의 식사문화인 발우공양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음식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 또한 꾀할 수 있어, 상의상존 · 상호보완의 이치를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생활운동으로 꼽힌다.

또한 실상사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은 도농 · 지역공동체 운동, 대안공동체 운동, 귀농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불교환경연대는 북한산 · 수락산 · 불암산 살리기와 천성산 · 금정산 살리기 등의 환경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인 권

유엔(UN) 헌장에서는 오늘날 '인권'이라 부르는 것을 자연권, 즉 인간 본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 취급한다. 유신론적 전통에서는 인간 존엄의 궁극적 근원은 인간의 신성성이다. 즉 인간의 존엄은 인간이 신의 이미지로 창조됐다는데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불교의 경우는 어떠할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탄생과 함께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온 세상이 모두 괴로움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고 말했다. 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 된다. 이는 '이 세상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인간 존엄의 일대 선언이요, 모든 존재에 내재한다는 불성(佛性)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다.

"가장 존귀한 것은 자신" 인간존엄 선언
자리이타 정신으로 사형제 폐지 등 노력

이 같은 가르침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전개됐다. 석가모니는 철저한 계급사회의 틀을 깨고 승단 내 사성(四姓) 계급의 평등을 추구했으며, 당시 남성과 동물 중간정도로 인식되던 여성에게도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부여했다.

조준호(동국대 강사)는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재가 아라한 21인 가운데 우바새와 우바이가 각각 11명과 10명으로 나타날 정도"라며 "초기불교시대 여성재가불자의 위상은 상상을 넘어선다"고 말한다.

21세기 현대에서도 이 같은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동시에 불교인권운동의 근본이 되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 한국 JTS,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의 불교 단체들은 국제난민, 외국인노동자, 양심수 등의 인권을 위해 사무량심(四無量心)의 자세로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또한 차별과 억압의 기제가 되고 있는 호주제, 사형제도 등의 폐지운동 역시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으로 밀도있게 진행해 나갈 전망이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주석사찰
삼각산 청련사
주지 지명(덕찬)
신도일동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62-1
TEL 02)379-3935 / FAX 02)379-6938

대한불교조동종 부원장 주석사찰
백마산 백운사
주지 일광
신도일동
■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쌍동리 산 54
TEL 031)766-0837,766-0833

대한불교조동종 중앙종회의장 주석사찰
비슬산 혜광사·(사)능인선원
주지 진일(승려시인)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8동 2040-3
TEL 053)473-3131

대한불교조동종 포교원장 주석사찰
백화도량 연화사
주지 지덕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덕절1리 245-2
TEL 031)376-1255

대한불교조동종 교육원장 주석사찰
수락산 도선사
주지 대은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54
TEL 02)938-1405

대한불교조동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영평사
주지 정림
신도일동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TEL 031)676-3960, 676-2960

대한불교조동종 문화원장 주석사찰
오봉산 보문사
주지 월암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1-57
TEL 031)222-2700 / FAX 031)222-2800

대한불교조동종 총무부장 주석사찰
봉제산 우암사
주지 덕성
신도일동
■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24-197
TEL 02)2698-6100 / FAX 02)2607-6155

대한불교 조계종
검단산 정심사
주지 원영
신도일동
홈페이지 : www.songchol.net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9-7
TEL 031)791-7732, 794-1222

대한불교 조계종
서달산 맑은도량 달마사
회주 종림
주지 미명
신도일동
■ 서울시 동작구 흑석1동 60-29
TEL 02)813-7425, 815-2746



종교패러다임의 변화와 불교

미래사회, 불교가 직면할 도전

과거 2천 5백년 동안 인류의 문화와 역사 창조를 주도해 온 원동력의 하나인 불교.

'세계화', '정보화'로 대변되는 21세기에 '불교가 인류를 위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는 전 불교도에게 던져진 중요한 화두다.

끊이지 않는 종교전쟁과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인터넷의 폐해, 물질만능주의의 만연에 따른 종교성 상실과 종교의 상품화 등 불교가 직면할 문제점들과 더불어 불교는 미래사회의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본다.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선명한 불교'만이 세계 종교 역할 가능케

미래학자들은 미래사회의 반작용으로 현재보다 더 심각한 생명의 물질화와 생태계의 파괴, 공해로 인한 질병 증가,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의 팽배로 인한 지적 혼돈과 청정한 정신문명의 파괴를 꼽는다. 실제로 오늘날의 지구촌은 이러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특히 정신적 가치관의 혼돈은 물질문명의 폐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간성의 부재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사회에서는 종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 확실시 된다.

그렇다면 불교는 21세기에 있어서 과연 삶의 궁극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불교학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권기종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시대가 달라졌다 해서 종교의 본질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한다 하더라도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 교수는 오히려 종교는 종교다워야 한다고 말한다.

"불교가 상품화되고, 성스러워야 할 성전(聖殿)에서 시장의 논리가 야기되고, 성직이 세속적 직업으로 전락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불교와 불교인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급선무다. 이는 곧 불교인들이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박광준 교수(신라대 사회복지학과)는 "지식사회 그리고 진정한 물질의 시대라고 하는 미래사회의 두 가지 특징은 그 각각에 대응해야 하는 불교실천방향을 제시해준다"고 말한다. 곧 그 하나는 불교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물질을 소중히 다루고 아끼는 불교적인 생활양식이 보다 많이 보다 빠른 속도로 국민들 사이에 보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가 불교다워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불교에 내재하고 있는 비불교적 요소를 불식하고 근본불교가 간직한 인간존엄, 평등, 개혁의식 등 본연의 선명한 불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미래사회에 있어 불교가 종교의 중심이 되는 길이며, 21세기의 보편적 세계종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길이다.



끊이지 않는 종교갈등

불신 · 대립…세계 35곳서 분쟁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 시대에 살고 있다. 이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는 종교의 사상적 편견으로 인한 아집과 독단이 심화되어 종교간의 갈등이 초래되기 쉽다. 지난 역사 속에서 종교가 있는 곳에 대립이 함께 했으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살육이 자행되기도 했다. 21세기에 접어든 지금도 세계의 35개 지역에서 분쟁이 지속되는 등 종교간의 마찰과 대립은 그치지 않고 있다. 9.11 테러에 연이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종교간 불신과 국가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종교가 인간 삶의 지혜나 기반을 제공해주기는커녕 대립과 투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일반인들의 종교에 대한 회의감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종교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종교에 대한 열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종교간의 배타적 대립과 미움을 종식시키고 대화의 원리와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자신의 교단이 얼마나 독자성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넓혀갈 수 있을지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역사상 '비폭력과 무저항'을 실천해 온 불교가 종교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처방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종교분쟁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 불법의 파괴자인가

인터넷 발달…사이버신종교 양산

인터넷은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다가오는 새 시대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포교의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기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매개로 한 재가자들의 신행활동의 다양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이 종교에서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반생명적인 정보를 유통시키는 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이버 신종교의 양산도 우려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최종석 교수는 "인터넷 상의 사이버세상은 앞으로 사이버종교를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실에서 소외되고 현실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의 도피처나 구원처로 익명의 사이버세계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찾으려 할 것이고, 이에 부응하는 사이버종교가 대두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불교는 포교의 문제를 넘어서 미래의 사이버상의 종교문화를 선도해 나갈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도전…종교 상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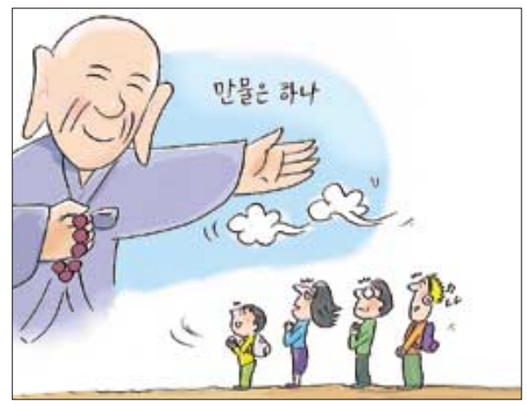
'종교 소비자'들 스승 좇아 방황

자본주의는 종교수행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로 성장한 우리는 종교를 '소비'하려는 인식 또한 성장했다. 종교전통이 소비자의 상품이 되는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달라이 라마의 제자이자 스라바스티 사원의 설립자인 둡텐 최된은 "가장 적게 지불하고 가장 많이 가지려 하는 우리의 소비성향이 그대로 종교수행에도 드러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가장 수승하게 깨달은 스승과 가르침을 구매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싫증이 나면 곧 색다른 수행법을 찾아 나서게 된다"고 말한다.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박수호 선임연구원은 불교계의 외적 환경변화로 종교의 시장화와 종교 컨텐츠의 상품화를 지적한다.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종교의 시장화'라고 한다면, '종교 컨텐츠의 상품화'란 여러 종교의 컨텐츠들 중에서 자신의 기호에 맞는 내용들을 끌어 모아 자신만의 종교생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에 대한 욕구가 최고조에 달한 요즘, 인간의 건강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각종 수련법과 값비싼 종교용품들이 난립하는 것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종교성 상실의 시대

자기 탐구정신 끊임없이 퇴행

오늘날 거대화된 종교는 일견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번영을 구가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교단의 조직이 비대화된 것일 뿐, 세계의 신비를 느끼고 기쁨을 찾고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본래적 의미의 '종교성'은 끝없이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종교인구 변화추세를 살펴볼 때, 지난 30년 동안 전체 종교인구가 증가한 곳은 인도네시아 등 남아시아국가(0.8%) 뿐이고, 다른 지역은 모두 종교인구 비율이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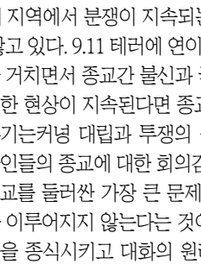
일본 종교학자 우에다 노리유키는 <종교의 위기>에서 "거대화된 종교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교단의 조직이 비대화된 것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세계의 신비를 느끼고 기쁨을 찾고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본래적 의미의 '종교성'은 끝없이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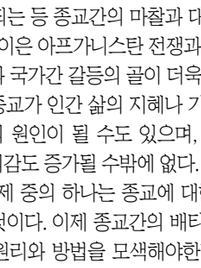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상대적으로 정신세계는 공허해질수 있다. 사회적 범죄도 그 근본원인은 정신의 황폐화 때문이다. 끊임없는 자아탐구를 통해 참된 본성을 확인하는 불교의 전통은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가능케 하는 명약이 되기에 충분하다. 여수령 기자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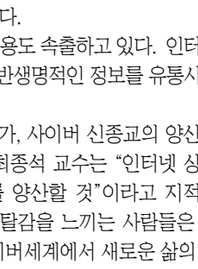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불자기업 기보전자산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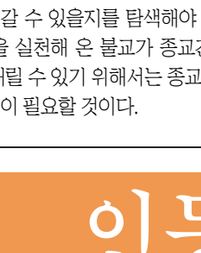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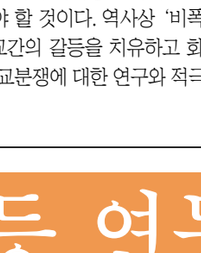

인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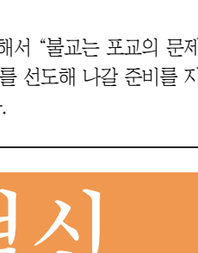
특징
- 기존 설비에 전구만 교체 사용 가능하며 비용이 절감 됩니다.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수명이 반영구적 입니다.
- 발광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아 유지 관리비가 감소 합니다.
- 반도체로 되어 있어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전구 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연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연등

특징
- 일반 소켓 220용에 다용도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별도 전선 교체없이 전구 교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구 소켓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더 방향으로 빛을 조명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제품문의처

황금 LED 조명 – 기보전자산업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73(세운상가 가동 가열 특 3호)

TEL : 02)5566-9098,7550 FAX : 02)2266-7557 E-mail : kibosa@kornet.net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체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송이 송이 내리는 눈이 딴곳으로 안떨어지듯 한번도 자신이 우주 아닌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체를 버려서 무에 들었거던 다시 일체를 끌어 안아 자연이 되라. 나 없는 자리를 찾으면 길이 열리고, 나 있는 자리를 찾으면 천문을 열며,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자리를 찾으면 묘정봉에 오른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 선밀공. 프라나호흡. 프라나동작. 36장관조.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 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듦)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문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 격 : 24세 ~ 34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불교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합니다. 여러분을 법신불의 세계로 모십니다.

종 령 수 성

통리원장 **법 공** 중앙종의회의 장 **의 강** 사 감 원 장 **법 성**
총무부장 **지 성** 중앙종의회 부의장 **원 송**
재무부장 **대 원** **교구장**
교정부장 **법 등** 서울경인교구장 **해 정** 대구경북교구장 **우 승**
사회부장 **인법계** 충청전라교구장 **법 성** 부산경남교구장 **혜 암**

불교 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3 /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佛紀 2548 年 謹賀新年

財團法人 **韓國佛教 法輪宗**

종 정 정 각

예경실장 **자 명**

원로원장 **혜 우** 총무원장 **덕 산**
사정원장 **벽 송** 부 원 장 **고 산**
부 원 장 **허 주** 부 원 장 **보 명**
종회의장 **탄 공** 총무부장 **도 해**
부 의 장 **승 도** 교무부장 **지 명**
부 의 장 **법 천** 재무부장 **현 송**
규정부장 **오 엄**
사회부장 **혜 도**
문화사업부장 **우 호**

총무원 : 충남 논산시 노성면 화곡리 44-7
전화 041)734-5377~8 / 팩스 041)734-5379 / www.yumjoo.com

財團法人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무찰 김태현 총무원장 동봉 정대룡

장로의장 **정금봉** 호계원장 **최용암** 총무원부원장 **최혜천**
장로부의장 **김명종** 교육원장 **이법운**
장로의원 **박수암 송원경 안통령 유청송 이송은 염원각** 포교원장 **김원각** 교무부장 **박지광** 교무국장 **이일명**
감사원장 **김화엄** 교육부장 **안법해**
선거관리위원장 **정법성** 재무부장 **김법진**
사회부장 **장성각** 사회국장 **권연화**
규정부장 **김지성** 규정국장 **이도운**

중앙종회의장 **엄지공** 중앙종회부회장 **진대륜** 중앙종회사무처장 **박도안**
중앙종회의원 **용주 인허 도운 덕산 법안 해동**

서울교구 **이법운** 경북교구 **조혜광** 부산교구 **정유심** 대구교구 **강삼현**
경기남부교구 **안법해** 충남교구 **박영명** 대전교구 **박도안** 광주교구 **김혜성**
경기북부교구 **이도혜** 충북교구 **김법청** 강원교구 **이호성** 전북교구 **유혜선**
경남교구 **이정수** 제주교구 **이현철** 인천교구 **임유정**

서울시 강북구 수유 5동 440-28 엄지B/D 4층
전화 02)998-8161~2 팩스 02)998-8384

대한불교 법상종

원로회의 의장 **법 현**

종정직무대행 · 총무원장 학 산

총무원부원장 **해 월**

총무부장 **성 암** 교육원장 **무 성** 중앙종회의장 **도 명**
교무부장 **법 일** 연구원장 **혜 정** 부 의 장 **청 담**
재무부장 **혜 명** 연구부장 **도 일**
사회부장 **일 공** 홍보원장 **수 경**
규정부장 **대 광** 참선원장 **강 월**
교화부장 **월 암** 참선원부원장 **도 선**
포교부장 **경 천** 사정원장 **지 암**
사정위원 **덕 암**
사정위원 **혜 산**

서울시 중랑구 망우2동 515-53
전화 02)491-1624.1625.1627 / 팩스 02)491-1622

社團法人 **大韓佛教 一乘宗**

元老院長 金 慧 峰

元老議員 崔慧笠 金法輪 李德和 全梵天 金妙岩 金無壯 裵福德
趙圓峰 全南江 朴慧仁 南靑葉 安妙淨 孫蓮華 金圓性
金善在 黃龍法 金妙華 李慧月 洪仁煥

總務院長(宗正權限代行) 金慧定

總務副院長 李吉祥
總務院長司書室長 金聖德 司 書 朴正坤
總務部長 延正修 監察部長 丁大聖 **僧正院長 李慧仁** **僧正副院長 朴正法**
財務部長 裵正休 布敎部長 趙正道 **企劃院長 李慧得** **企劃副院長 趙正泰**
敎務部長 李覺明 企劃部長 崔法一 **敎育院長 潘慧治** **敎育副院長 金法甫**
社會部長 洪奉德 宗策部長 李東和 **布敎院長 林佛光** **布敎副院長 朴慧聖**

中央宗會議長 徐慧印 **中央宗會副議長 鄭月河 李炅侑**
中央宗會議員 姜月岩 宋靑監 宋余款 黃一鳥 李正安 金正五 辛正志 李慈雲

大邱 · 慶北敎區 宗務院長 金朗祗 釜山敎區 宗務院長 文法成
慶南敎區 宗務院長 朴禪愚 全南敎區 宗務院長 黃孝定

總務院 : 京畿 九里市 校門洞 346-18 電話 031)562-2751 電送 031)562-2752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대행 · 총무원장 정혜안

사서실장 **김법우**

원로원장 **양지은** 중앙종회의장 **남지산**

감찰원장 **장혜운** 총무부장 **허법공** 재무부장 **정법수**
교무부장 **권법혜** 규정부장 **최법현**
포교원장 **박법정** 사회부장 **김법경** 포교부장 **김법주**
호법원장 **이법안** 총무국장 **이법지** 재무국장 **송보혜**
교무국장 **강보연** 포교국장 **박보정**
문화원장 **김법천** 사무국장 **편법연**

서울종무원장 **문법홍** 인천종무원장 **박법정** 경기종무원장 **김법우**
부산종무원장 **이정토** 경남종무원장 **김법천** 경북종무원장 **정호진**
전남북종무원장 **김법경**

총무원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전화 055)883-7771,7790 / 팩스 055)884-7791



韓國佛教 臨濟禪學院

常任顧問

釋道成 大禪師 釋牛角 大禪師
釋東春 大禪師 釋慧岩 大禪師

宗 丈 釋惠泰

元老院長 釋慧泉 中央委議長 釋慧邊
宗務總理 釋摩定 中央禪院長 釋保巖

中華民國 臺北 臨濟宗 本山 正覺山 光德寺 方丈 釋淨心
中國佛教 臨濟宗 七塔法派 本山 七塔禪寺 方丈 釋成峯

臨濟宗 七塔法派 國際 法子聯誼會長 釋心茂
臨濟宗 七塔法派 한국 法子聯誼會長 釋普光
臨濟宗 七塔法派 중국 法子聯誼會長 釋慧通
臨濟宗 七塔法派 싱가폴 法子聯誼會長 釋慧寂
臨濟宗 七塔法派 인도네시아 法子聯誼會長 釋慧行
臨濟宗 七塔法派 홍콩 法子聯誼會長 釋慧因
臨濟宗 七塔法派 말레이시아 法子聯誼會長 釋慧禪
臨濟宗 七塔法派 인도 法子聯誼會長 釋慧生
臨濟宗 七塔法派 자카르타 法子聯誼會長 釋慧願
臨濟宗 七塔法派 호주 法子聯誼會長 釋慧該

중앙선원 :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산10-1 전화 : 031)864-0399
종무행정원 : 서울 중랑구 망우3동 120-7 전화 : 02)496-3952~3 / 팩스 02)496-3950

율종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원로원장 월하 혜경 혜운 혜정 혜일 혜산 백공 도일
총무원장 혜인 부원장 혜명
종회의장 혜일 부의장 정오
총무부장 금당 총무국장 월산
교육부장 정산 교육국장 혜원
포교부장 현블 포교국장 인해
사회부장 상산 사회국장 정덕
규정부장 현블 규정국장 도현
재무부장 법정 재무국장 보덕
교구종무원장 현블 법정 대도 상산 금당 해타 혜관 법련 혜원 도광
동산 혜묵 봉선 정오 도월 정산 혜월 남산 덕산
전국신도회장 서진수 고문변호사 하석철 자문위원 김윤주 교수 김상덕 교수
신문사 : 학장 혜인 부학장 혜운 처장 손영진 조교 정금옥 정보길
분 교 : 수원 김동균 미국 우담 일본 정대 부산 봉선 혜정 경남 혜명
충청 동산 강원 성일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총무원 02)3445-7375 학교: 02)511-2026 - 8 신문사 02)3445-7376 전송 02)511-2028

세계불교 일붕법왕종

세계불교법왕청 세계법왕 무해존자
종정 해명 부종정 관용스님

총무원장 구천스님 행정부장 혜성스님 재정위원장 이재묵
사무총장 법천 교육부장 법해스님 전국신도회장 전종만
포교원장 일웅스님 포교부장 혜천스님 공연예술단장 머루와다래
불교무술원장 구천스님 예술부장 보현스님 규정부차장 혜명스님
총무부원장 만공스님 포교과장 청의스님 행정과장 홍철표
규정원장 법룡스님 포교계장 도산스님 행정계장 진영규
규정원부원장 무애스님 문화계장 선덕스님 규정부장 법광스님
사무처장 법지스님 사무계장 황용하 종정사서실장 해왕스님

유관기관 : 불교언론인회, 월간한국문화, 세계군경무술스포츠연맹,
대한민국무예총연합회, 불교녹색봉사회, 전국청소년지도육성회
산하기관 : 전국신도회, 전국대학생회, 전국여성신도회, 전국법사회

서울교구 법천선원 법천 충북교구 원형사 법일 경남교구 법황사 법심
경기교구 원흥사 구천 전북교구 용천사 법구 경북교구 안심사 법용
충남교구 일도사 법성 전남교구 약사사 법정 제주교구 구월사 법장

총본산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원흥리 494-1 원흥사 전화 031)585-2090

세계불교 법륜종

종정 보광법광

총무원장 지암 부산종무원장 혜선
교육원장 성묵 경기종무원장 지봉
지도의식원장 강주 강원종무원장 지해
총무부장 법산 대구경북종무원장 혜인
재무부장 지봉 경남종무원장 행화
교육부장 지오 충남종무원장 성주
종정사서 성법 충북종무원장 혜성
전남북종무원장 법산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779 금선사 전화 033)763-2441
총무원 : 전남 여수시 광무동 933-70 장군사 전화 061)641-7198 / 011-807-8428

대한불교 법왕종

창종주 석동암
2세종정 석수선

사서실장 가성

총무원장서리 보문 총무부원장 혜룡

총무부장 경지 규정부장 성덕 서울종무원장 표강
원로원장 경덕 재무부장 원명 부산종무원장 해룡
사정원장 호당 교무부장 각명 대구종무원장 혜명
선관위원장 성림 포교부장 동선 경북종무원장 호당
교육원장 법행 교육부장 수신 경남종무원장 무상
사회부장 보명 충남북(대전)종무원장 성덕

종회의장 무상 종회사무장 홍신

사단법인 국제불교승가회

총 재 혜철 (한국불교 원각종 종정)
부 총 재 정암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계종 종정)
부 총 재 의천 (대한불교 선화종 종정)
회장겸고시위원장 동암 (대한불교 법왕종 창종주)
부 이 사 장 무상 (대한불교 법왕종 종회의장)
상 임 이 사 보문 (대한불교 법왕종 총무원장 서리)
이 사 수선 (대한불교 법왕종 2세종정)
이 사 가성 (대한불교 법왕종 종정 사서실장)
감 사 경지 (사단법인 법왕종 총무부장)
사회분과위원장 혜봉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 종정)
포교분과위원장 법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정원장)
섭외분과위원장 혜종 (대한불교 태고종 원로)
지도분과위원장 지산 (한국불교 정토종 종정)
홍보분과위원장 청원 (대한불교 불광종 종정)
총무분과위원장 송산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국제분과위원장 청호 (대한불교 연화종 총무원장)
조직분과위원장 정철 (사단법인 대한불교 호국법사 단장)
무술분과위원장 동원 (대한불교 연화종 종정)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716-1 전화 052)257-7816, 227-7816 FAX 052)268-7813



불기 2548년 甲申年

"한국 전통선의 부흥과 대중화를 위한
길라잡이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사 장 정일
총무이사 정관
재무이사 대운
교무이사 자민
이 사 혜운 도형 송산 성열
선근 법진 동진 상원
성우 정수 정덕
감 사 영주 보관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재단법인 선학원

재단사무국 |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전화 (02)734-9654~6 | 전송 (02)734-3410

봉 축

(재) 대한불교진흥원 제정
제1회 대원상(단체부문)수상

동 산 반 야 회

불기2547년 12월 17일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제1회 대원상(단체부문)수상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불교 · 대중불교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회원일동

동 산 반 야 회 · 동 산 불 교 대 학

법주스님 무진장
사무국장 구본설
이 사 장 김재일
사무처장 임선학
기획실장 문종순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전화 02)732-1206 팩스 02)732-1207

사단법인 한국불교금강선원

총 재 활 안(한정섭)
이사장 강혜원

임 원 : 호 암 대 명 전 란 권용득 최유수
강화순 한연선 한동국 이홍표 정미경

나란다삼장불학원 · 기로의집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계간 세계불교
사 장 보 현

월간 금강법보
사 장 김기훈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Fax 02)964-2433

대한불교 총화종

원로원장 전야응
종 정 이동광
부 종 정 주인현 최혜산

총무원장 전남정

종회의장 김화담
문화원장 신도명
감찰원장 조고담
부 원 장 이납은
교육원장 박청해
호계원장 이만오
총무부장 박현오
교무부장 이법오
사회부장 윤대암
규정부장 신법광
재무부장 박지산
조직부장 조민호
기획실장 김행원

서울(총무원직할)종무원장 박현오
경기동남부종무원장 기혜성
경기북부종무원장 유법경
충남교구종무원장 김기태
경북교구종무원장 김운산
경남중부종무원장 김문곡
부산교구종무원장 최만재
경기서부종무원장 김혜암
경기성남종무원장 정종화
대전교구종무원장 이인해
울산·경남동부종무원장 권청담
경남서부종무원장 김만월
전북교구종무원장 권덕산
제주교구종무원장 오월홍

종 도 일 동

총무원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호
홈페이지 : http://www.chonghwajong.org
전화 : 031-592-8891/ 팩스 : 031-592-8892

한국불교
조동종 총본산

총무원장 금 선 학 봉
사정원장 달 재

종도일동

서울 용산구 효창동 5-152 원효사
TEL 02)704-8065, 713-0475
FAX 02)704-8064

근하신년
성북구 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호 암 정 수

성북구불교사암연합회
회원일동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411
TEL 02)927-1232

근하신년
양평 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화 암

양평불교연합회
회원일동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1구
TEL 031)771-4106

근하신년
수원시불교사암연합회

수원시불교연합회
회원일동

TEL 031)251-3652
FAX 031)251-3653

대한불교삼론종
보 문 정 사

주 지 석 혜승

신도일동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고모2리 211
TEL TEL 031)542-0032



조계종 개혁 10년을 말한다

2004년은 94년 조계종 개혁 불사 10년째 되는 해다. 그간 개혁불사는 어떤 열매를 수확했고 어떤 결실이 여물고 있는가? 또 반성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94년 당시 개혁의 주체세력이었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 의장 청화 스님과 정병조 교수(동국대 윤리문화학과),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과)가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봤다. 이 자리에서는 크게 △94년 조계종 개혁 무엇을 남겼나 △한국불교의 과제(중앙집권적 불교조직, 출 · 재가 문제, 수행체계, 신도조직) △21세기 한국불교 비전(다원화 사회에서 사회적응, 사찰의 수행문화 공간화, 전통과 계승의 혁신문제) 세 부분으로 나눠 회고와 반성, 대안을 모색했다.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바쁘게 달려 왔지만 아직 '할 일' 많다

현황과 과제 그리고 비전



◇조계종 개혁 10년 좌담회에 참석한 청화 스님(중앙) 성태용(왼쪽) 정병조(오른쪽) 교수. 사진= 박재완 기자

좌 담

- 참가자: 청화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 의장)
  정병조 교수(동국대 윤리문화학과)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과)
- 사 회: 김원우(본사 취재부 차장)
- 일 시: 2003 12월 8일
- 장 소: 본사 사랑방

▲1994년 조계종 개혁이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먼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은 고쳐나가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방향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 해봤으면 합니다.

성태용= 개혁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뜻이 조금씩 반영됐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긍정적 측면입니다. 개혁 와중에 재가자들의 참여 기회가 열리고, 총무원 운영이 민주화됐습니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근본적인 구조자체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94년 당시, 의지는 강렬했지만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대감이 상실됐습니다. 여기에는 개혁세력이 종단 내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비판할 수 없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 승가 사회에 '바꾸자'는 의지가 없어지고, 개혁에너지가 사그라졌습니다.

정병조= 조계종 개혁은 모든 불교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다변화된 시대에 맞게 내면과 외면 양면 모두 개혁돼야 하지만 외면만 개혁됐습니다. 94년 개혁불사는 한국불교 천육백년 역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종헌 · 종법 개정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이뤄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좌초한 것도 현실입니다.

청화 스님= 개혁입법 중 가장 긍정적인 것은 겸직을 금하는 조항입니다. 개혁 이전에는 총무원장이 종회의장도 하고, 교구본사 주지들이 종회의원도 하는 등 종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전혀 못했습니다. 즉 비판 세력이 없어 종단이 무기력했던 것이지요. 또 하나는 총무원과 포교원, 교육원으로의 삼원체제가 이뤄진 점입니다. 예전에는 포교원과 교육원이 독립되지 않아, 적은 인력과 예산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단을 이끄는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종회의원, 본사 주지 등 종무일선에 나선 분들이 상당히 젊어졌다는 것도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조계종 개혁의 부작용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병조= 부정적인 측면을 짚어보면 개혁의 미진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혁의 부정적인 면 중 한 가지는 다른 분중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입니다. 개혁을 하다보면 저항세력과 부딪치게 됩니다. 여기서 저항세력은 폭넓게 봐서 수구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개혁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총무원장 스님을 대상으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같은 세속법에 의지해 분쟁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종도들이 개혁에 대해 무관심한 것입니다. 종단 문제에 나서면 안 된다는 겸손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방관이자 방조입니다.

청화 스님= 우리들이 처음 개혁의 깃발을 내세웠을 때 주된 목적은 총체적으로 사회적 신뢰 및 시대적 여망에 부흥하는 종단, 한점 부끄럼 없는 종단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사명감이 결여되면서 기존 종단의 구태의연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문중이라는 거대한 성곽 속에서 보호받고 살다보니, 당대 현실을 직관하는 안목이 없고 주관이나 의식,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중들이 교구본사를 사유화하다보니, 종단이 이념이나 진보적인 사고에 따라 시대적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틀에 갇혀버렸습니다. 중앙 행정적 측면이외에도 종단은 종단의 아성 속에서만 존재하고 문중과 본사는 따로 놀았습니다.

성태용= 일전에 조계종 총무원 예산 편성을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어서였습니다. 한국불교가 성장하기 위해선 중앙으로 결집돼야 합니다. 교구본사 나름대로 특징 갖춰가면서 중앙에 힘이 실려야 합니다. 또 출가공동체가 우리의 모델이라 생각할 때, 비구니스님 위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녀평등문제를 놓고 볼 때, 재가가 승가를 모두 본받기에는 승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비구니스님을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비구니 문제를 통해 계율을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논의해 봐야합니다.

정병조= 교구본사와 총무원간의 합리적인 관계가 설정돼야 합니다. 현 교구본사 체제는 1911년 조선사찰령이 발표되면서 일본인들이 소유권을 몰수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현 교구본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서울에 본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불교 스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구니 스님들이 결집할 본사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본사와 말사의 사격이 현저하게 뒤바뀐 것도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도들의 의견의 구한 뒤 구체적으로 논의해 현행 골격 유지한 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무원이 지금과 같이 분담금에 의존해서 행정을 집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한국 불교 현황으로 넘어 왔습니다. 평가 보다 중요한 것이 과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단의 현황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 및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청화 스님= 종단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고 단단히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제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제도라는 것이 아무리 엉성해도 사람들이 운영만 잘하면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순기능 보다 역기능으로 흘러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총무원장 직선제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으로 흘러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바람직한 대안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은 문중이 형성되면, 문중 어른들이 그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문중 안에도 사분오열이 생겨 권위가 무너지고, 대중공사도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결국 수행자로서의 정신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방법이건 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조= 2002년 한국종교인구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대략 불자가 1천 2십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종교 인구중 불자 숫자가 1위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가분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즉 노년층이 사라지고 나면 제2종교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층 포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한국불교를 세계화 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국불교 세계화는 숭산 행원 스님처럼 몇몇 큰 스님들이 개인적인 원력으로 불모지를 개척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종단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승가 사회의 보수교육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승가사회 보수교육이라고 해봤자

재가자 참여 늘고 종무행정 체계화
개혁입법중 겸직금지 가장 긍정적

종회의원 · 본사주지 연령층 젊어져

기득권층 배타적 · 종도 무관심 문제점
총무원-교구본사 관계 재설정 필요

비구니스님 결집할만한 본사 없어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각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각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차량용 가정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제조원 Mountain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현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1334-9490, 334-9491 야간 : 0311706-3060





◇조계종은 94년 개혁불사의 기치를 올린 이래 10년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사진 위는 94년 개혁회의 현판식이며 아래는 이번달 완공될 역사문화 기념관.

일년에 한번 정도 본사 주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교육 정도입니다. 조계종이 살길은 역량 있고 상식적이며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스님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계고시 등의 실시가 시급합니다.

성태용=서울 불광사가 회계감사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찰 운영 자체의 변화 조짐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에게 사회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영역 등은 신도들의 몫입니다. 다만 시줏돈이 부처님 법에 따라 여법하게 쓰여졌는지 등을 물을 권리가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찰 재정 투명화 운동 등 변화 바람이 외부에 의해 강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야지 타의로 발생되면 승가 사회의 권위는 사라지고 맙니다.

▲재가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종단이 출가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그런 면이 강한데요, 재가자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씩 해주십시요.

성태용= 재가불교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귀감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스님들이 장례치를 걱정을 하니 '신앙심 깊은 재가불자들이 여법하게 치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즉 스님들은 수행하고 재가불자는 그 밖의 것을 하라는 역할을 부처님께서 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가자들은 재가자가 해야 할 일을 스님들에게 넘기고, 스님이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가자는 출·재가자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해, 자기 위상을 찾아야 합니다. 또 재가자는 스님들의 승가공동체, 청정공동체를 본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은 청정한 모습으로 재가자가 나아가야 할 큰 길을 제시해 주면됩니다.

청화 스님=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소승불교를 지향하는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대승불교 주체는 재가불자 입니다. 그런데 재가 불자들의 각성이 크게 일지 못하고 있는데요.

청화 스님= 불교와 신을 믿는 종교가 같은 '종교' 선상에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신을 믿는 종교는 믿음이 강조되고, 불교는 마음닦음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의 능력을 상기하면서 의존하면 편할 수 있지만, 닦음은 의지를 갖고 나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을 찾는 개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닦음은 스님뿐만 아니라 재가불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신도들이 수행까지 겸비했을 때 스님들도 신도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달라져야 스님과 신도단체의 유기적인 관계가 바람직하게 형성될 것입니다.

정병조= 현재 재가신도들의 입장에서 간화선은 문제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시대, 다변화된 시대,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시대에 간화선이냐 위빠사나냐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행적인 면에서 간화선은 권장되고 지켜져야 하지만 재가자들에게 강요돼서는 안됩니다. 각자의 처지와 방편에 맞는 수행법으로 정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간화선을 폄하하거나 가치를 평가절하 해서도 안됩니다.

성태용= 간화선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불교의 특징인 간화선이나 선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불교계의 역적 같은 분위기를 풍겨왔습니다. 자칫 부처님보다 조사를 앞세운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 불교는 교(敎)라는 토대를 갖고 있지 않은데, 간화선이 선의 전부인양 논의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특히 재가불자들에게 간화선이 유일한 것인 양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수행하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내공을 쌓은 후, 내공이 떨어지면 다시 수행하고, 소모하고, 수행하는 것은 재가불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재가불자가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스님들이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화 스님= 수행방법으로 간화선을 얘기하지만, 간화선이 탑 불교는 아닙니다. 간화선은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한 방법이면서도 그 방법이 사람의 체질이나 성향에 따라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이 한 방법인 것은 틀림없지만, 모든 사람이 간화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멸빈자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과연 멸빈자 구제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을 나눠 주십시요.

정병조= 멸빈자를 구제한다고 했을 때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돌출됩니다. 일반 사회에서 사형을 구형한 사람이라도 구제하는 지금, 원칙적으로는 체탈도첩된 사람이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등적인 방법으로 구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청화 스님= 소위 종단에서 징계 받은 스님들은 정화 이후 개혁 할 때마다 종단에서 양산되어 왔습니다. 종단에서 소외받은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님들은 승려로 살아온 반평생을 생각하면 암담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소수로 있는 현실에서, 종단은 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니 그 반발로 종단 분규 같은 것을 일으키는데, 그럴 때마다 종단화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종단이 화합되려면 토대가 구축돼야 합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징계했던 이들을 모두 사면 복권시켜야 합니다. 정치의 회오리에서 징계 받은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승려로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종단의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이 종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면 종단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성태용= 어차피 정치적인 회오리 속에서 희생된 것에는 구제의 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회오리 속에서 불교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승복을 벗어 반납하는 의식을 치르고 상대는 용서하는, 양쪽의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사면하면, 진정한 불교적인 사면일 것이고 불교계의 화합도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골이 깊어지고 또 문제를 없애기 위해 사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한국불교가 적응하기 위한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젊은 층 포교전략, 전통의 계승을 통한 혁신문제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조= 미래 사회에서 불교는 한국 현실로 볼 때 다종교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미래 사회에서 불교 평가는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불교는 진리성은 충분하지만 사회성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은 사회에 봉사하려고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재가자들이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선종을 표방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선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이미지메이킹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티베트, 일본, 태국, 중국 불교는 있지만 한국불교는 없습니다. 십년 정도만 노력하면 미국 유수 대학에서 한국불교 관계를 전공하는 사람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불교에 미쳐서 공부하는 것이 한국불교 세계화에 효과적입니다.

청화 스님=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이른바 '중생고'를 자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사명감을 자각한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시대상황에서 사회, 경제, 남북관계 등 총체적인 시대 상황 속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가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살아 있는, 생명력 있는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수행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를 바로 보고, 재가불자는 불교를 믿고 수행하되 불교에만 매몰되지 말고, 시대정신을 생각하고 불교 신자로서 해야 할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불교가 미래에도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로 우뚝 설수 있을 것입니다.

성태용= 한국불교가 아직 세계적 위상은 없지만 특징은 있습니다. 중국불교는 전통이 무너졌고 일본불교는 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불교는 불교전통을 갖춘 북방불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고(苦)를 불교가 해결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퇴영적으로 '물질문명에 지친 자들 이곳으로 오라' 처럼, 마치 쓰레기에 뿌리는 향료처럼 불교가 자리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렵겠지만 승속을 막론하고 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불교가 마련해 나간다면 세계적인 불교로 우뚝 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은 승가공동체를 청정공동체로서 여법하게 자리 잡고, 재가자들은 승가를 모범삼아 재가자의 공동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이렇게 사부대중이 제 자리를 찾을 때 불국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남동우·오유진 기자

출·재가는 종단의 두 바퀴 "화합해야"
불교 세계화·청년포교 관심 가질때
진정한 참회·용서로 멸빈자 사면을
자발적 사찰재정 투명화 운동 바람직
승가 모범 삼아 재가자 공동체 이뤄야

정초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좋은 책

참회·참회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 도 祈禱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일타큰스님 주변의 기도 성취 체험담 총 52편을 모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기도를 통한 부처님의 가피를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수 있게 됩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미타신앙·미타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 뿐만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에서 누리는 행복, 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갑히 불교신앙의 결정판이라 자부하며, 불자들의 1독을 권합니다.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관음관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게 풀이 되어 있는 이 책은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바라는 분들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지장신앙·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 김현준 편역 / 값 5,000원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찬,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부록-지장보살예찬문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우룡 큰스님 지음
신국판 / 값 6,000원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4×6판 / 값 3,500원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 자세, 방황하는 영가를 올바르게 천도하여 주변을 다스리고 복을 쌓는 방법,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뛰어넘을 수 있어야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

문 '인신난득 불법난봉(人身難得 佛法難逢)'이라 했는데 불법 중에서도 직접 맛을 보고 벗어날 수 있는 이 마음 도리를 가르쳐 주신 스님께 새해를 맞이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스님께서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재 또한 공했기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삼세가 공한 그 가운데 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걸림 없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본래 우리는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금방 무슨 말을 했는데 금방 없어졌으니 벌써 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 초 전도 과거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에 팔자 운명이 이럴까.' 하고 한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일 초 전도 과거라는 거를 알고 내가 천차만별로 공했다고 돌린다면 자유스럽게 마음을 쓸 수 있거든요. 움죽거리지 않는 데를 뚫고 깨뜨리려면, 그리고 내일이 있게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움죽거리지 않는 주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깨트리고, 또 나와서 이 우주의 움죽거리지 않는 데까지 결과적으로 뚫으면 그냥 자유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이름은 많습니다. '그 선을 넘어야 한다. 깨트려야 한다. 증득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근데 말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말이 무슨 소용 있느냐구요. 지금 내가 묵묵히 실천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 있는 자유스러움을 맛보려면 그 움죽거리지 않는 것까지 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덕산 스님이라는 고승이 계셨는데, 대 선사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뛰어넘게 하려고 바리떼를 들고 쳐 나갔더니 대중들이 시간도 안 됐는데 왜 왔느냐고, 종도 안 쳤는데 왜 왔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말 다 했죠, 뭐. 말이 뭐 이어지기나 해요, 어디? 시간도 안 되고 종도 안 울렸는데 왜 나왔느냐, 어청거리느냐 이 소리인데, 그러니 바리떼를 들고 나갔다가 '이거를 어떻게 무마를 해야 하느냐?'는 생각에 돌아서서…. 그 다음에 한판 웃는 걸로 그걸 무마를 시켰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후구를 알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모르는 줄 모르고 저 스님이 말후구를 모른다 이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도리를 모르는, 자기 앞도 채 못 가리는 사람이 어떻게 말후구를 아느냐는 얘기죠.

참, 예전에 선사들께서는 그렇게 마음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뛰어넘어 가게 하기 위해서 기왓장을 갈아서 면경을 만든다고 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드물기는 하지만 그거를 정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둥그렇게 그려 놓고 "여기 들어오면 넌 죽는다." 이러니까 스르르 발로 지우고선 그냥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묘미가 있고 그렇게 허공 길을 아는 사람이라야 허공 길을 묻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지 어떻게 묻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건 물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안 물어서 될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차츰차츰 점수 행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모두 공식한다면 공생으로서 공심이 되고 공체로서 공용을 할 겁니다. 즉 말하자면 공생을 알면 공심을 알고 공심을 알면 공체도 알고 공체를 알면 바로 공용도 알고 공용을 알면 공식을 안다는 거죠. 안이비설신의 자체가 한데 합치면 원식이 됩니다. 이게 공식이죠. 먹는 것만 공식이 아닙니다. 먹는 것만 가지고 공식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닥치는 대로 내가 한데로 흡수할 수 있어야 집어 먹는 게 되겠지요. 체가 없는 거를 만 개를 집어넣으면 어떻고 수만 개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두드러집니까? 그래서 마음에다가 수만 개를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다고 했던 거죠. 마음은 그렇게 무궁무진한 겁니다.

내일이 없고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는 그 속에서

내일이 있는 세계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자유인

여러분이 지구라고 말하지만 그게 우리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주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병 속에 새를 한 마리 길렀는데 병은 그대로 있고 새는 커졌으니 어떻게 그걸 꺼낼 수 있겠느냐?" 하셨다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수좌들이 그걸 꺼내지 못해서 애를 쓰고 다니다가 끝을 못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죠. 왜 끝을 못 보겠습니까. 글쎄 자기 몸이 병 속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새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선언을 해 놨는데, 고등 동물인 사람은 그와 같이 마음대로 마음을 쓸 수 있다, 자유스럽게 마음을 쓸 수 있으니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맘대로 하라고 선언을 해 놨는데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아, 병이야 고대로 있죠. 어떻게 병이 커지나요? 새가 커지면 자연적으로 나올 줄도 알아야죠. 이렇게 오글랑노글랑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그 병에서 새 한 마리도 못 꺼내죠.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전자에 선지식들이 방편으로 말씀해 놓으신 거,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죽였다던가, 하는 이유를 '이것이 무슨 뜻으로 이렇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해요. 또 조주 스님은 짚신짝 하나를 머리에 이고 나갔다는데 그건 어떤 이치로 그랬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좀 자기가 뛰어나와서 자유자재할 줄을 알아야 내일도 알고 내일도 있는 거지, 그걸 자유자재 못하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암흑 속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걸 바꿔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주 특별한 말인 줄 알지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복작거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일도 없고 어저께도 없고 오늘도 없는 그 가운데 주장자도 박차야 내일이 있는 세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잘 살고 있는 줄로 알지 마세요. '우린 주머니 안에서 꼼짝 못하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저 닥쳐오는 대로 살고 있으니 자유는 영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일이 있는 자유를 한번 맛보시게끔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이 없고 어저께도 없는 오늘, 이 주머니 속에서 허덕이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이 없고 어저께가 없는 그런 속에서 내일이 있는 세계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자유인인 것입니다.

고정되지 않았기에 공하다 했고

깨우치지 못했는데…

문 만일 주인공에 관하는 공부를 하면 주인공을 알기 전까지의 수행은 어떤 공덕이 있는지요. 그리고 수행의 점차와 과정이 마치 사다리처럼 누적이 돼야 어느 날 주인공을 볼 수 있는지요. 그냥 딱 뛰어넘을 수는 없는지요?

답 깨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고정됨이 없는 거를 안다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뜻을 알게 됩니다. 일체가 고정됨이 없다는 걸 알면, 일체가 고정됨이 없는 것은 죽고 사는 생사의 언어가 붙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간단할 텐데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깨닫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게 나고 드는 것은 한군데서 나고 든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날까지 거기서 나갔고, 모든 사람 성품에서 일들을 하니 바깥의 일들을 바로 보는 것이 자기예요. 자기가 보고 느끼고 움죽거리고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하라고 시켰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날 시키게 된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지 그 사람만 위해서 말을 듣는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한테서 나고 들고 하는 것이 고정됨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물감 삼십 가지를 놓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물감을 이거 쓰고 저거 쓰고 그러니깐 어떤 게 진짜 물감이냐고 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어떤 거를 쓸 때 내가 쓴다고 할 수도 없으니 양면이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랬으니 공했지요. 공했으면서도 소소영영하지 않은가요? 갖다 쓸 거 다 갖다 쓰고 말입니다. 또 쓰자는 대로 그냥 주어져서 자연적으로 그냥 써지고요. 공했으면서도 소소영영하게 분홍 쓰려면 분홍 쓰고 흰 거 쓸려면 흰 거 쓰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한번 휘 돌아보고 '어! 저런 건 푸르르게 해야겠구나.' 이런다면 또 푸르른 걸 쓰는 거죠. 그래 자연스럽게 그렇게 쓰면서도 그게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했다고 했고, 공했기 때문에 외려 찰나찰나 자유스럽다는 얘깁니다.

본래 깨친다는 언어도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을 못하고 제대로 용(用)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을 하면서도 이거 쓸 때 요거 쓰고 요거 쓸 때 이거 쓰고 자유스럽게…. 화가가 그림 그리듯 그렇게, 상황을 봐서 환경에 따라서 요거 잘 요렇게 그렸으면 이것이 특상을 받을 텐데 나무가 파란지 나무줄기가 흙빛인지 그것도 안 보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갖다 그리죠. 그래서 더불어 공해서 같이 돌고 도는 겁니다.

그렇게 뭐든지 소소영영하게 공했기 때문에 뭐든지 소소영영하게 쓸 수 있으면서 삼십 가지 물감을 그냥 거기 놔둬도 내가 쓸 때는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힘들게 짊어지고 다니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런데 '요게 내 거다, 요게 내 거다.' 하구선 한두 가지만 가지고 다닌다면 필요할 때 삼십 가지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을 놔라. 착을 놔도 그 삼십 가지는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시시때때로 찰나찰나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거고, 환경에 따라서 용을 하는 거고, 환경에 따라서 네가 한생각을 내는 거뿐이다. 그러니 한 가지 색에 착을 두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욕심 부린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 삼십 가지를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모든 걸 오관을 통해서 잘 보고선 한 가지 갖다 쓰고, 그거 다 쓰고 나면 또 필요한 색깔 한 가지를 갖다 쓰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살림살이도 다 그렇습니다. 집안을 꾸미려 해도 그렇고 세상에 집을 지으려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지가 들어야 하고 다 지어 놓고도 삼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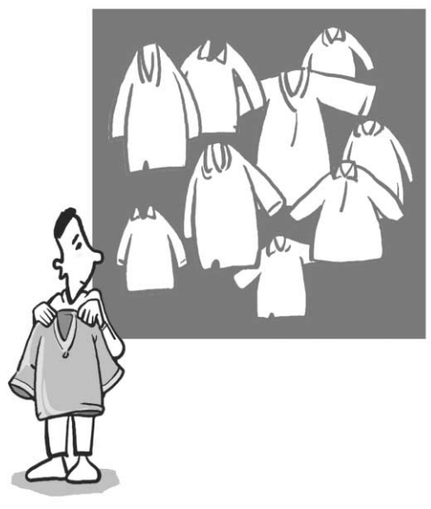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공했기에 찰나찰나 자유스러워

을 손을 봐야 돼요. 그래야 원칙상으로 그게, 즉 말하자면 자기 마음에 거추장스럽지 않고 다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어떻게 한꺼번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깨닫는 줄 아느냐는 말입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봄이 올 때는 겨울이라는 과정이 있고 가을이 올 때는 여름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걸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안정이 된 주인이 처리하는 거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주인이 없는 데서 그냥 날라리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하곤 전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장자가 항상 그대로, 운전수는 자기 자동차 속에 있으니까 핸들을 잡고 있는 거니까 그걸 믿고 거기서 움죽거리게 해라. 그리고 너는 끌리는 대로 따라서 움죽거려라.' 이러는 건데 그것을 소홀히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고 병이 낫고 이러는 데만 치우쳐서 그러니깐 그게 안 되지요.

본래 헌 해도 없고 새해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또 새해가 밝았으니 올해부터는 '이거는 나의 절대적인 보배다. 나의 절대적인 보디가드다. 나의 절대적인 주인이다.' 이렇게 믿고선 '죽고 살고 너한테 달렸다!' 이러고 딱 그냥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인생을 참답게 살아가려면…

문 '인생은 무의미하다. 그렇지만 살아야 한다.'는 카뮈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무의미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진정 삶이 무의미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참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요?

답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몸속에 헤아릴 수 없는 생명과 의식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억겁 전으로부터 우리가 진화돼서 형성됐다는 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몸이고요. 그 속에 천차만별의 모습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까? 그런데 몸속에 있는 그 모습들 중의 하나가 만약에 큰 물체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축소돼서 모두 여러분의 몸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인과성업보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다섯 가지로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둔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로서 몸에 모두 주둔이 돼서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생각난다고 해서 생각되는 대로 '내 마음에서 나오지.' 이렇게 생각은 마세요. 그거는 그 다섯 가지의 의식 속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의 심봉이라는 선장은 바로 불(佛)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많습니다마는 그 선장은 바로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중심에 끼워져 있는 심봉과 같은 겁니다. 수레 중심에 끼워져 있는 중심축입니다. 그걸 주장자라고도 합니다. 그 심봉은 힘을 배출해 줄 뿐이지 부동한 것인데 바퀴가 모두 거기에 의지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수레라고 본다면 부처님 자체, 근본이 그 심

☞45면으로 계속

모든 것을 일초 일초 부수고 넘어가야

☞44면에서 계속

봉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시공이 없이 돌아간다'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먹는 거 싸고 자는 거,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정되게 하는 게 하나나 있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망했다, 내가 잘되게 했다 하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립니다.

어떤 거 하고 어떤 거 볼 때에 내가 하고 내가 봤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본다면 때에 따라서 부인에게는 남편이 되고 자식들한테는 아버지가 되고 부모에게는 아들이 되고…. 이렇게 찰나찰나 나투어서 돌아가듯이 인생살이가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그 공마저도 공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교라는 자체가 광대하고 어마어마해서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말로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없는 진화를 해 왔습니다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자기 모습, 자기 차원이 주어지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망망대해에 배 띄워 놓은 거와 같고, 살얼음판을 딛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고 물에 빠질 수가 있고,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여러분의 몸을 배로 비유했고 몸속의 생명들을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들이 의식적으로 모두 한 심봉의 선장으로 합쳐 주지 않는다면 배는 뒤집히게 돼 있죠.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체 만물만생 중에 무정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뿌리 없이 사는 싹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영원한 자기 선장의 뿌리가 있는데도 그 선장을 믿지 않고 타의에서 구한다면 백 년 만 년이 가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어떠한 마음을 쓸 때에 올바로 했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자체도 천차만별로 하는 사이 없이 나갑니다. 고정됨이 없어서 하는 사이 없이 하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오고, 보는 사이 없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했다'는 생각도, '내가 안 했다'는 생각도 그냥 묵묵히 놓고 가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 몸뚱이, 생명의 집합소가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속의 그 생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 주인이 합니다. 그 주인을 부처라고도 하고 자기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타의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자의에, 나로부터 세상은 있는 겁니다. 사대성인들이 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너를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이 우주의 섭류도 다 알 수 있느니라. 너를 모른다면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으며 우주의 섭류를 알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음이 묘하고 광대한 것을 여러분은 모르고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좋다. 일거수일투족 들어오고 나가는 거, 내고 들이는 거, 그것을 하는 놈이 누구냐? 네가 하지 않느냐. 바로 네가 한다면 네가 어떤 거 할 때 너라고 할 수 없으니 바로 주인공이다. 그러니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긴다면 일체가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과학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발현되지 않는 이상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과학을 연구 못할 겁니다. 무(無)의 세계, 정신세계의 50%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학계도 그렇습니다. 50%를 모른다면 그 반만 가지고 사람을 100%로 건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 살고 있는 것도 99%지, 100%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죽는 것도 건지는 거요, 살리는 것도 건지는 겁니다. 헐었던 옷을 벗어 버리게 하고 진화해서 다시 새 옷을 입게 되니까 그것도 건지는 겁니다.

건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도 모습도 가져올 수 있고, 어느 집에 어떻게 인연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자기 인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미지를 끝까지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세생생에 주어진다고 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세생생 주어지는 것이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헤매고 돌게 될지, 자유인으로 살 건지는 자기 자신에 달려있습니다, 모두.

놔라! 놔라!
모든 게 환상이면서 실체다

사무친 마음이어야 할 것 같은데

문 스님의 말씀을 믿고 늘 함께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의 말씀에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데 스님께서는 언제나 구체적으로 행하는 법을 정성껏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겨운 짐을 주인공에 놓고 가면서 공부할 때 믿음이 충실해야 하고, 또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충실해야 하고, 무엇보다 '나를 움죽거리게 하고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일체 행을 하게 하는 놈이 바로 너 아냐. 너가 있다는 그 자체의 증명은 너밖엔 증명을 할 수가 없어!' 하고 간절하게 관해야 합니다.

틀고 앉아서 좌선을 한다 하더라도, 뭐를 찾고 뭐를 찾고 뭐를 찾는다 해도 우선 자기부터

일체를 맡겨 놓을 수 있는 믿음 충실해야

맘은 가볍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니까 공부하는 사람의 사무친 마음, 절절한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사무친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스님의 뭉둥이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나오는 거를 다시 주인공 자리에다 믿고 놓을 수 있는 그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나 자가발전소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증명이고 특징이니까 모든 것을 주인공에 돌려놓고 그 생각나기 이전을 관하세요. 통로는 거기밖에 없어요. 미래 정신세계의 통로는 바로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그대로 자기 자불을 알아서 편안히 여여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아무 생각없이 어영부영 그냥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 · 최주현

업식 물 불의 환상에서 벗어나려면

문 요즘 너무도 많은 큰스님들께서 입적을 하셨습니다. 스님들의 장렬한 열반을 뵈오면 너무도 이 불법공부가 소중하고 이 공부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저 자신의 공부 수준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스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업식이 화해서 나타나고 물을 건너가야 하고 마지막에는 불바퀴를 벗어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럴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답 모든 것은 일 초 일 초 부수고 넘어가야 하고 일 초 일 초 보람 있는 살림살이를 해야 합니다. 누가 칼을 쥐고 죽이러 오는데 가만히 죽어 주는 것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게 부처님 법이에요! 에누리가 없어요. 그것이 자비거든요. 죽여도 자비요 살려도 자비요, 안되는 것도 자비요 되는 것도 자비예요. 왜? 안되는 것도 일 초에 넘어가고 되는 것도 일 초에 넘어가고요. 그러니 그걸 조절해서 용도에 따라서 내가 쓰려면 쓰는 것이지 어디 규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불 켜고 싶으면 스위치를 눌러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불구덩이는 뜨거워서 못 들어간다는 의식 관념을 가지고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관념을 가졌거든요. 귀신들이 있는 데는 무섭다는 관념을 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혼연일체가 돼서 일심으로 돌아가야 삼중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환(幻)에서 살기 때문에, 의식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환상천이 떡 앞에 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식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모두 환상천에서 그냥 색깔을 나타내고 은통 야단을 치니 거길 못 건너가지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는 것도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넓은 강이 있는데 거길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빠져 죽을 텐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쪽 건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간다면 한 찰나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색상의 의식 관념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죽은 혼백도 그렇게 못 건너간다 이거예요.

또 불구덩일 건너가야만 할 텐데 불구덩이 소용돌이를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타 죽을 텐데

자유인이 되고 못되고는 자기에게 달려있어

말입니다. 타 죽는다는 의식 관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놔라! 놔라! 모든 게 환상이면서 실체다. 그러니 영원한 거다. 죽은 게 없기 때문에 산 것도 없고 산 게 없기 때문에 죽을 것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고 잘 배워야 전자의 부모들이 지은 업보나 인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해서 자기를 낳아서 길러 준 그 은혜로 지옥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묵은 빚을 갚게 되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하려면 아래 자손들한테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게 먹게 해라 이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 상식이면서 교양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론만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실천을 하세요! 어떠한 악한 거라도 거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밖엔 해결 못한다고 믿으세요! 병이 나도 거기에 진실히 맡기면 그 한생각에 의해 찰나에 의사가 되는 겁니다. 또 자식들이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와서 걱정이 되는 경우에도 탁 믿고 맡겨 놓으세요. 그것도 바로 절실하게 믿고 나가야 되는 거지 믿지 않으면 그렇게 놔지질 않아요. 그렇게 믿고 놨을 때에 "엄마!" 하고선 들어오거든요. 어디서 나쁜 무리에 들어갔다가도 집에 오고 싶어 죽겠어서 그냥 오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자기 몸까지 다 버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몇 천 년 몇 만 년 살 것같이 마음이 거기에만 은통 쏠려 가지고는 아우성을 떨다가 털컥 망하거나 뭐가 잘못되면 병까지 든다 이겁니다. 사람이 병까지 들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를 깎아 먹는 일이지 자기를 승화시키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게 마음의 탓이라 이겁니다.

근데 정작 죽어서도 업식은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혼백이 죽은 몸뚱일 버리고 딱 나가 보니까 자기 살았던 대로 업식이 즐비하게 쫓아다니니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죠. 또 거기에서 어찌어찌하다가 벗어났다고 봅시다. 그런데 '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시라 하는 것은 나라는 걸 빼 버려라 이겁니다. 공했다는 걸 알아라. 나라는 게 있다면 의식적으로 나를 내세우게 되고 또 그게 화해서, 즉어서 몸뚱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뚱이가 있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려고 강가를 돌면서 노력을 하지만 자기가 빠져 죽을까봐 건너갈 수가 있나요? 그래 강가를 돌면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오백 년도 가요, 천 년도 가요,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 아닌 줄을 몰라요. 항상 변하고 부서지고 돌아가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불바퀴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둘이 아닌 줄 알고 둘이 아니게 나투는 줄 안다면 그냥 불바퀴가 돼 버릴 텐데, 불바퀴에 닿으면 타 죽을 줄 알고는 거기에 접근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중생을 면치 못한다 이 소립니다.

세상만사가 다 조그만 불바퀴가 있는가 하면 큰 불바퀴가 있어서 함께 돌아갑니다. 우리네 몸을 혹성이라고 가정하면 그 혹성 가운데에 별성이 있고 별성 가운데에 그 뜻이 있고 바로 의식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이 일체를 들이고 냄에 있어서 광력 전력 통신력 자력을 충만히 엮어 나가면서 내면세계의 인연의 줄을 타고 그냥 돌아가는데, 이걸 모르니까 깜깜하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무(無)의 세계,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50%를 깜깜하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 유(有)의 세계, 물질세계만 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누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바도 없고 누구한테 칭찬받을 줄도 모르고,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먹고 살 양으로만 애쓰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먹고만 살려고 하는 자는 돼지와 같으니라. 돼지에게 옥을 준들 옥을 알랴." 그러니 여러분이 살 양으로 먹는지 먹으려고 사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꾸 나오는 데다가 되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살림을 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남편이든 부인이든 형제든 자식이든 부모지간이든 병고 아니면 애고, 애고 아니면 재난, 이런 문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멋진 묘법을 모르고 육신을 그냥 버린다면 참 원통할 거예요. 원통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원통하고 말고요! 남 날 때 나서 코 달리고 눈 달리고 귀 달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이 도리를 모른다면 그냥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철 캠핑하러 나왔다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한 철 캠핑하러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 도리를 알아서 세세생생 끌 간 데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가벼른 언덕을 넘듯 그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대한불교 본원종

종정대행 강무구 사서실장 손무공

총무원장 이대화

원로의원 변정송, 전국당, 최대종, 이송파, 문법정, 유법용, 김용담, 박보명

중앙종회의장 김대운

중앙종회부의장 김대연, 조혜원

교육원장 김동광 감찰원장 박대성

포교원장 이대봉

총무부장 김만혁 규정부장 강만공

교무부장 정대련 포교부장 한법성

재무부장 최대황 사회부장 박명진

교화부장 안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17-3
TEL 02)391-4376 / FAX 02)391-4376

대한불교본원종 종정대행 주석사찰
양자산 서림사
주지 무구
신도회장 박도원
신도일동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3리 964-1
TEL 031)774-3538

대한불교본원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삼각산 연화정사
주지 대화
신도일동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6
TEL 02)379-1965

대한불교 본원종 중앙종회의장 주석사찰
선불사
주지 대운
신도회장 신장호
신도일동
■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402
TEL 031)374-3413

대한불교본원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백운산 성광사
주지 대성
신도회장 대각심
신도회총무 오철근
신도일동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437
TEL 033)661-5308

대한불교본원종 원로의원 주석사찰
관악산 화승사
주지 용담
신도일동
■ 서울시 관악구 봉천 11동 173-51
TEL 02)883-7030

대한불교본원종 중앙종회의원 주석사찰
연방사
주지 일봉
신도일동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동 210
TEL 054)654-2462

대한불교본원종 재무부장 주석사찰
삼각산 대성사
주지 대황
신도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 4동 산 1-1
TEL 02)915-2044

대한불교본원종 사회부장 주석사찰
정토염불 기도도량 본원사
주지 명진
총무 이화옥
신도일동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53-17 3층
TEL 02)955-3090

일산의 푸른 못
지장기도도량 청담사
주지 벽담
신도일동
홈페이지 : www.blue.or.kr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72번지 제1프라자 402호
TEL 031)912-7114 / FAX 031)912-7116

지장기도도량 고창 촉봉산
연화사
주지 도명
신도일동
■ 전북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산 63-1
TEL 063)563-1683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만호사
주지 도운
신도회장 이순목
총무 윤흥진
신도일동
■ 충남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 135-1
TEL 041)567-0392

월정사 서울포교원
법종사
회주 현해
주지 무주
신도일동
법종사불교대학 수시 모집 중
■ 서울 도봉구 쌍문1동 525-3호
TEL 02)905-6666

대한불교 무량종
비룡정사
주지 보산
신도일동
■ 인천시 중구 항동1가 2번지 24통 1반
TEL 032)763-1237

능인정사
주지 법경
신도일동
■ 서울시 광진구 자양3동 227-217호
TEL 02)455-1080, 444-6615 / FAX 02)456-1335

세계최대 단일석상 열반와불 봉안성전
성광미륵사
주지 성광
신도일동
■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마전3리 13-1
TEL 031)544-4800

대한불교본원종
광명사
주지 정오
신도일동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9리 126
TEL 031)571-1311

불암사
주지 종명
신도일동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 5
TEL 031)842-7684

도봉산 광륜사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401
TEL 02)956-5555

대한불교조계종
서대문구사암연합회회장
안산 광명사·설법대학
주지 청곡자원
신도일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 2동 44-498
TEL 02)735-1896, 736-1895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적조사
주지 자성
신도일동
■ 서울시 성북구 돈암2동 593
TEL 02)924-5362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내원사
주지 호암정수
신도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산 1
TEL 02)941-2013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삼각산 천중사
회주 운산
사부대중 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2동 426-3
TEL 02)914-3558

한국불교 태고종
미륵사상 연구원 용천사
주지 청봉
사부대중 일동
■ 경기 양평군 개군면 상좌포리 297-13
TEL031)773-0777, 773-4846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원적산 대성사
주지 학산
신도회장 문용덕
총무 홍한묵
화주보살 김옥덕
신도일동
■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보통2리 535
TEL 031)882-8955

대한불교조계종
찰라챠크라 만다라문화원 여래사
주지 동휘
신도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100
TEL 02)3673-3886

대한불교조계종 25교구 봉선사 말사
불곡산 백화암
주지 보인
신도일동
■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산 40
TEL 031)840-1582

대한불교조계종
돌고개앵무봉 지장기도도량 대원정사
주지 해련
총무실장 박정일 신도회부회장 김원식
거사회총무 김형하 사무장 정선봉
신도일동
■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산 126
TEL 031)855-5001, 5003 / FAX 031)855-5502

한국불교 태고종
마음을 낮추면 세상이 아름답다 성불사
주지 도암
총무 김도희
신도일동
■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 1리 109-1
TEL 031)855-5561 / FAX 031)878-5663

거북마을 영탑공원
태봉산 약수암
주지 성파혜각
신도일동
홈페이지 : www.youngtop.or.kr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3리 347-1
TEL 031)952-4801, 953-4801



인터넷 세상의 새아침 제안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다. 개인의 신변잡화에서부터 과학자의 연구논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국가에서 생산해 내는 정보를 공공 정보라고 부른다. 공공 정보는 국가 행정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자료들을 총망라한다. 여기에는 불교에 관한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만 불자 네티즌들의 이용은 보편화되지 않았다. 공공 정보 가운데 불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공공정보에서 '불교'를 건져라

대부분 문광부 등 정부기관서 생산
양적 · 질적 가치 개인 · 종단 한계 초월
일반 불자들 활용 미흡…홍보돼야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보편적 서비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뜻한다.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기반한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하지 않고 공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책적 규정이라 하겠다.

정부에서는 일반 기업이 할 수 없는 공익사업을 위해 많은 국책연구기관들과 공사를 신설, 다양한 국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 정보는 바로 이들 국가기관들에서 나온 정보다.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 입각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불교 정보는 주로 문화관광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생산되고 있고 그 영역 또한 역사, 문화 등 다양하다. 특히 국가 재원을 통해 생산된 불교 공공 정보는 개인이나 재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종단, 불교 기업 등이 생산하는 불교 정보에 비해 양적으로도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가치 있는 콘텐츠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불자들은 이같은 불교 공공 정보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질 높은 불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산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활용도가 낮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홍정의 과장은 "현재 국가에서 생산하는 많은 정보들은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되고 있다"며 "특히 문화관련 정보의 경우 불교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불자들이나 불교 종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자료들을 활용한다면 불교 포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지식포털
(http://www.knowledge.go.kr)



단행본 등 1092건 불교정보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은 구랍 1일 국가지식포털사이트를 개편해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국가지식포털은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1800여억원을 투입해 545개의 국가기관에서 생산해 낸 1억 9천 5백만건의 자료를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시스템. 특히 통합검색, 상세검색, 디렉토리 검색 등으로 나누어져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검색시스템과 나의 지식창고, 지식 동호회, 뉴스레터 등 개인화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공 정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에서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국가지식포털에는 교리철학, 보살, 경전, 법어, 포교, 법회, 라마교 등 7개의 디렉토리로 나누어져 단행본, 학술논문 등 1092건의 불교 공공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특히 문화재 발굴 보고서 또는 불교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연구 등의 최신 자료들이 업데이트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
(http://www.heritage.go.kr)



2006년까지 모든 문화재 DB 계획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은 국가 자산인 문화유산 정보 DB를 구축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나아가 문화유산 정보를 가공하여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국민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2000년부터 3단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2년도까지는 국가문화유산 기본 DB 구축, 각 박물관 정보시스템 구축에 주력했고 현재는 지금까지의 자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향후 2006년까지 성보박물관의 문화재를 비롯해 유무형의 모든 문화재를 DB화 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불교문화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다양한 부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불자 가정이라면 꼬마유산탐험가 코너의 둘리와 함께 떠나는 문화여행을 통해 재미있게 문화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문화유산에 대한 검색 시스템이 시대별, 종목별, 지역별로 상세하게 나눠져 있어 사용이 편하다. 또 문화유산교실과 사이버박물관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으며 민속문화나 전래동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있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
(http://kyujanggak.snu.ac.kr)



국보 · 보물 자료 등 26만여점 제공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고도서, 고문서, 국보 및 보물지정 자료 등 총 26만여점의 자료 소장, 검색서비스, 국내외 도서관 링크, 한국학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삼국유사를 비롯해 많은 불교 관련 고도서의 원문을 직접 볼 수 있어 주로 역사학이나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 종합관광정보시스템
(http://www.visitkorea.or.kr)



877개 사찰 안내시스템 구축중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관광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관광정보시스템에는 2900여건의 관광지 정보, 700여건의 문화시설 정보, 2400여건의 숙박시설 정보를 비롯해 스포츠 레저, 음식점, 쇼핑, 행사안내 등의 관광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9개국어로 서비스되고 있어 외국인의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다. 전국 대부분의 관광지에 사찰이 있고, 사찰이 문화의 보고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유익한 불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종합관광정보시스템과 별도로 현재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되고 있다. 현재 전국 877개의 전통 사찰을 대상으로 사이트 구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2005년 서비스되는 홈페이지에는 사찰의 기본 정보는 물론 문화재, 사찰 행사, 사찰 관련 기타 정보, 주변 상세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또한 300개 사찰은 영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코리아콘텐츠리소스센터
(Korea Contents Resource Center)

문화원형 디지털화 무료 보급 예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1월 말경 코리아콘텐츠리소스센터(이하 KCRC)를 오픈한다. KCRC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3회에 걸쳐 실시한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 공모를 통해 개발된 다양한 문화원형 콘텐츠를 서비스 · 유통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다. 3차에 걸쳐 실시된 문화원형 사업 공모에는 총 40개 과제가 선정돼 개발이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불교를 소재로 한 과제는 모두 6개로 '만봉스님 단청문양의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적 활용방안연구', '탱화 속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캐릭터 개발', '한국미술에 나타난 길상이미지 개발' 등 5건의 자료들이 모두 공개된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벡터 이미지를 비롯해 2D, 3D 등 다양한 포맷의 자료들로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트가 개설되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은 향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선정된 과제들은 모두 KCRC를 통해 모든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믿을 만한 불교 정보를 얻길 원한다면 국가공공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게 효과적이다. 위사진은 코리아콘텐츠리소스센터에서 만날 수 있는 캐릭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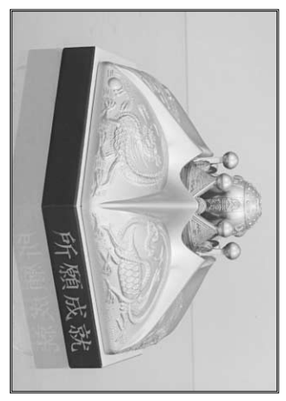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다려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 을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 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측,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관절영양제 "글루코사민샥카트리지"
서울대 병원에서 효능A등급 제품으로 선정


주요성분 및 특징
• 제품의 내용량
글루코사민 샥카드리지 180정(2개월분)×3병
• 1정당 성분 및 함량
글루코사민 500mg, 상어연골분말(콘드로이친함유) 400mg, 구연산칼슘150mg, 비타민 C 75mg, 비타민B, 비타민D3, 토코페롤, 아연, 망간 등
• 복용량

환자체중	1일 권장량
54kg이하	1000mg 글루코사민 800mg 콘드로이틴 황산
54kg~90kg	1500mg 글루코사민 1200mg 콘드로이틴 황산
90kg이상	2000mg 글루코사민 1600mg 콘드로이틴 황산

글루코사민 삭카드리지란?
· 미국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관절영양제
· 관절치료제인 기존의 글루코사민보다 효능을 높이기 위해 상어연골, 칼슘, 비타민, 아연, 망간 등 관절과 연골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한 복합제
·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상결과 그 우수한 효능발표 -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도 인정
· 연골의 파괴 효소를 막고 연골을 생성 촉진하는 제제
= 복용시 =
· 2~3주후면 효과발현 시작
· 4~8주면 30~50% 호전 단계
· 6개월이면 90%이상이 만족
*글루코사민은 1일 1500mg을 6주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용량은 몸무게에 맞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고시(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지(원산지) : 미국 수입 완제품
• 권장섭취량
1일 3회 1정씩 식후에 섭취하십시요.
*신용카드 구매 가능
상담문의 : 080-631-4525
www.sbtongsang.co.kr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74번지 세종별관 3층 서부통상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신비의 생氣부적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틀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